

# GOOD BYE 인계

인계동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 목 차

## 하나. 난 인계동 본토박이

팽나무고개의 유일한 여고생 이영왜 / 윤횡	007
‘인계동 옥편’으로 불린 임익상, 사라지는 동네를 회고하다 / 이승연	023
인계동의 참다운 토박이 / 정수자	037

## 둘. 인계동은 고향이나 마찬가지로

사업적 안목과 넉넉함을 갖춘 인계경로당 회장님 김동영 / 김미엽	051
추억의 주크박스, 인계동 탕자나무집 외아들 김창현 / 김미엽	063
배달부 소년 모연환, 수원 시민의 심부름꾼이 되다 / 이승연	075
재개발의 길목에서 돌아본 인계동 살이, 용환갑과 박응수 / 김형아	093
단정하고 명석한 인계동의 행정공무원 이종칠 / 김미엽	117
인계동 팽나무고개 골목길의 기억 / 금정수	128

## 셋. 나의 시대는 인계동

김옥희의 세계, 인계동 / 윤횡	133
인계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 송은정 / 이진희	149
3대를 이어 가는 대성방앗간의 안주인 안종순 / 윤횡	167

## 넷. 삶의 터전을 찾아 인계동으로

물 좋던 동원목욕탕의 사장님 김상만 / 김미엽	185
수원시 1호 이용기능장 대성이발관의 이대희 / 김현미	197
영광아파트에 살다, 임병자와 전원경 / 이진희	213
7남매를 키운 영동시장 ‘김씨아줌마’ 최선비 / 윤횡	231



# 하 나

난 인계동 본토박이





윤 유 석

(사)역사문화컨텐츠연구원 연구원

## 팽나무고개의 유일한 여고생 이영왜



### 귀하게 자란 영왜네 가게 큰딸

이영왜는 1941년 복숭아밭이 있던 인계동 57번지에서 태어났다. 인계동에서는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다. 아버지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사탕가게에서 일하다가 해방 후에 자립을 했다고 들었다. 아버지가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지 않아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 이영왜가 기억하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다. 부모가 결혼한 지 9년 만에 낳은 첫아이가 이영왜였다. 할아버지는 진사(進士)였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성당에 다녀서 핍박을 받았다고 한다. 할머니는 팔으로 메주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영왜가 팔으로 메주를 썬다고 하면 믿어 줄 정도였다. 다른 애랑 같이 있다가 넘어지면 왜 밀치냐며 무조건 손녀의 편을 들어주었다. 할머니의 상여가 나가는 것까지 기억에 남을 정도로,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은 이후 이영왜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영왜** 내가 자랄 때 할머니 돌아가신 것을 내가 기억을 해요. 제가 여기 인계동 전원 아파트, 거기가 출생지예요. 그때만 해도 아버지가 사탕공장 다니면서 돈을 벌어 와가지구 집을 장만을 하신 게, 집이 좀 컸어요. ㄷ자로 된 집이었는데, 내 울음소리가 나면 할머니가 얼른 와서

누가 밀었냐고. 항상 내 편을 들어주셨어요. 돌아가셔서, 어떻게 내 손녀딸을 두고 눈을 감느냐는 말도 귀에 들리고, 행여 나가는 것까지 기억을 해요.

7살 때 수원고등학교 후문 쪽으로 이사를 했다. 수원고등학교 옆으로 난 길은 인계동과 매교동을 가르는 경계여서 집주소가 인계동에서 매교동으로 바뀌었다. 이영왜의 아버지는 수원고등학교 후문 쪽에 잡화점을 냈다. 상호는 따로 없었고 그냥 '영왜네 가게'로 통했다. 덕분에 이영왜는 실컷 먹고 자랄 수 있었다. 6살 때 남동생이 죽고 8살 때 다시 남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무남독녀였기 때문에 가게의 모든 물건은 다 이영왜의 차지가 될 수 있었다.

**이영왜** 지금같이 슈퍼가 아니라 구멍가게죠. 그니까 상호가 없는 그냥 가게. 내가 보면 별거 별거 다 있었어요. 수원중·고등학교에서 한 200미터? 100미터 정도? 올라오면 가게가 그거 하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만물상이예요. 없는 게 없었어요. 그니까 나는 실컷 먹은 거야, 아무거나. 동생들이 나하고 나이가 차이가 많아요. 내가 6살 때 동생이 4살인가, 남동생이 죽었어요. 그땐 뭐냐, 마마지. 동네에서 돼지를 잡았어요. 어린 맘에 돼지 잡아서 그러니까 그 동생 얼굴 기억을 하구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큰 집을 팔고, 수원중·고등학교 근처에 집을 지은 거지요. 밭에다.

이영왜는 세류초등학교와 매향여자중학교, 수원여자고등학교를 다녔다. 집이 있던 수원고등학교 후문에서 세류국민학교까지 가던 길은 지금도 기억이 선명하다.

**이영왜** 세류국민학교 다닐 때는, 날이 좋을 때는, 수원중·고등학교 가면 언덕이 있었어요. 빨리 가는 길로 언덕으로 내려서, 문화맨션 다리 있죠? 그 위에 다리가 또 있었어요. 뽕뽕 다리라고. 거기가 지금 기름집이 있는데 거기로 건너다니고. 비가 많이 오면 그게 무서워서 이춘택 병원 자리, 거기가 수원극장 자리고, 그 위에 학원 있죠? 거기가 소방서, 한전 자리 그랬어요. 그리로 돌아다녔어요. 비가 많이 오면 또 다리를 건너서 빨간 언덕이 있어요. 문동이 촌이 거기 있어서 애들이 못 지나가게 했어요. 문동이가 잡아서 간 빼 먹는다고. 우리 어렸을 때 비만 오면 못 가는 거야. 왜냐면 문동이들이 나와 있으니까. 별정계 굴을 파놓고 문동이들이 거기 살았어요. 지금 거기가 수성교회가 있어요. 그 길이 여주에서 오는 기차길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기차길이 높으니까 비만 오면 그 길로 갔는데 어른들이 안 보내는 거야.



인계동과 매교동을 가르는 인계로10번길. 길 왼쪽이 매교동, 오른쪽이 인계동이다. 할인마트 자리가 이영왜네 집이 있던 곳이다.

## 깍쟁이 여고생과 군인 아저씨의 만남

이영왜는 세류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라는 부친의 권유로 인천사범학교 병설 중학교 입학시험을 봤다. 그러나 합격하지 못하여 매향여자중학교에 진학했고 수원여자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였다. 팽나무고개에서는 유일한 여고생이었다. 집에서 학교까지 2.5km 정도 되는 거리를 도보로 통학했다. 대부분은 어렵게 살던 때지만 이영왜는 넉넉한 가정형편 덕분에 남들과 다른 학창시절을 보냈다.

**이영왜** 지금 애들은 상상도 못하지요. 왜냐면 그때는 너무 추울 텐데, 고층 건물이 없잖아요. 현재 수원세무서 그 뒤가 별판이었어요. 거기 들어서면 볼이 떨어질 정도로 엄청 추웠어요. 그러면 눈독으로 내려가. 그러면 눈이 녹아서 운동화에 빨각게 묻어. 그걸 수원여고 잔디 있잖아요, 거기에 털고 들어가. 근데 나는 집이 여유로우니까 낮게 입었지요. 그때 다른 애들은 광목



1950년대 수원여고 교실 풍경(국립민속박물관, 『배움의 길, 기록을 따라가다』, 2010)

으로 옷 해 입을 때 나는 크로바라는 고급 기지로 옷 맞춰 입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집이 여유가 있으니까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어요. 돈 갖다가 여고 앞에 호떡집 있죠? 그럼 거기서 사고, 인심 잘 쓴 거지요. 내가 가게를 보니까 돈이 항상 내 손에 있는 거야. 부모가 참견을 못했어요. 부모님은 수원중·고등학교 매점을 하니깐.

현재 수원시청 근처에 이영왜네 고구마밭이 있었다. 수확 때가 되면 이영왜네 집에서 합숙을 하던 수원중·고등학교 축구부원들이 고구마를 지게에 저서 날라 주곤 하였다. 동네에서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주고 수확한 것을 조금 받아 가기도 했다.

여고 시절 이영왜는 깽쟁이였다. 촌스럽고 지저분한 차림의 학생과는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친구들과 사이에서 인기가 제법 있었다. 인기의 비결은 손톱깎이였다. 당시에는 손톱깎이가 귀해서 가위로 손톱을 자르는 것이 보통이었고 이로 손톱을 물어뜯는 애들도 있었다. 이영왜는 자기가 좋아하는 애들한테만 손톱깎이를 빌려주었고 아

이들은 이영왜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

시골에서 통학하던 애들은 가을이면 도시락 대신 삶은 수수나 떡을 싸 왔다. 시내에 살았던 이영왜는 자신이 먹은 수수가 소죽 끓이는 솥에 넣고 찐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기겁을 했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소죽 쫄 때 고구마나 수수를 넣고 찐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기억이 있다. 시골 아이들이 찌 가져온 수수며 떡은 맛있었다. 도시락 못 먹는 애들이 많던 시절이라 수수를 찢어서 나눠 먹곤 했는데 이영왜도 그걸 먹으려고 가게에서 과자며 빵을 가져갔다. 수제로 만든 거라 약간 곰팡이가 난 것도 그늘에서 말려 보자기에 싸 가져가 풀어 놓으면 너도나도 먹겠다고 달려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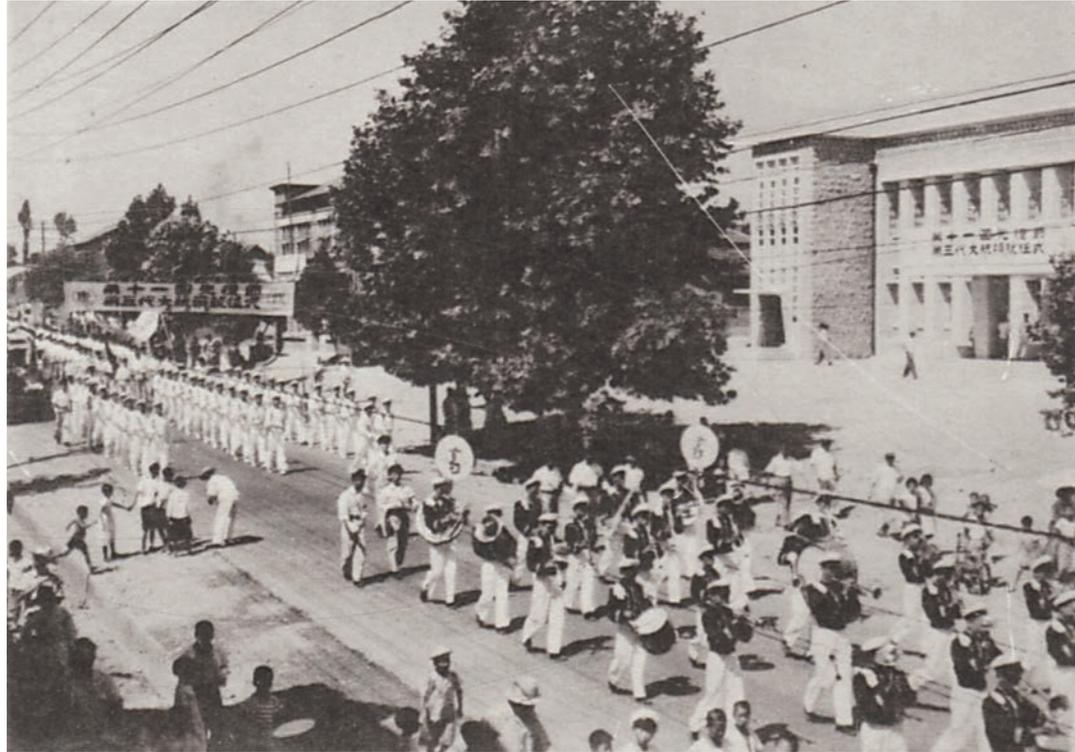
이영왜의 부모님은 팽나무고개의 '영왜네 가게' 말고도 수원중·고등학교 후문에서 학교 매점도 운영했다. 매점의 인기 있는 메뉴는 우동과 찌빵이었다. 새벽 4시부터 큰 가마솥에 멸치 국물을 내고 우동을 삶아서 일하는 아저씨 두 명이 학교 매점에 갖다 놓으면 냄비에 어묵과 멸치 국물을 부어 팔던 냄비우동이었다. 빵이며 우동이며 영왜네 가게는 항상 먹을 것이 있었다. 만드는 사람이며 먹는 사람이며 영왜네는 사람들로 항상 북적였다.

**이영왜** 그때는 애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은 뭐 햄버거도 있지만, 그때는 문 딱 닫으면 먹을 게 그것밖에 없는 거여. 애들이 농촌에서 졸업만 마치면 우리 집에 보내 무조건. 밥이나 먹여 달라고. 입 하나 던다고. 그러면 그냥 이름도 모르는 애가 많아. 그럼 애들이 가, 거기서 그러면 냄비우동 그릇, 먹고 놓잖아요. 그럼 그거 굵어다가 넣고 씻는 아줌마가 있는 거야. 그때는 수도가 없어요. 우물에서 그거 씻기가 바쁜 거야.

**연담자** 아버님이 오는 애들을 다 받아 주신 거예요?

**이영왜** 그럼요. 그때는 동탄면이나 태장면에서, "애 하나 가요." 그러면 "싫어요, 데려가세요." 그런 말을 못할 때예요. 왜냐면 울 아버지가 젊을 때 같이, 저기, 얼굴은 아는 사람들인데, 내가 배고파 봤으니까. 애 밥이나 먹여 주라고 갖다 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안 돼요 소리를 못해. 어느 날 보면 어떤 애가 있어. 어느 날 보면 또 와. 국민학교 졸업 말으면 네다섯 명이 와요.

이영왜는 부족한 것 없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학교를 다녔다. 그런데 못 해 본 것이 딱 하나 있었다. 수학여행이었다. 그때는 1박 2일 경주여행이 최고였다. 하지만 가게를 봐야 해서 갈 수가 없었다. 막내 남동생 분유를 챙겨 먹이는 것도 이영왜의 몫이었다. 누나로서 그건 꼭 제 손으로 하려고 했다. 수학여행을 못 간 것은 아쉬웠지만 가게를 본 덕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있었다.



기념일마다 실시하던 시가 행진(시사통신 수원지사, 『수원의 역정』, 1960)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6월마다 실시하던 6·25전쟁 기념행사가 두 사람을 이어 주는 다리가 되었다. 당시 6·25전쟁 기념행사는 북문에서 수원역까지 걸어서 간 후 해산을 하는 거리 행진이었다. 여고생이던 이영왜도 행진에 참여했다. 남문에서 수원역까지 행진을 하고 수원역에서 해산을 한 후 집에 돌아왔다. 전쟁기념일 휴일을 맞은 군인들이 영왜네 가게에 들렀는데 그것이 남편이 된 윤 병장과와 첫 만남이었다.

**이영왜** 우리 신랑이 공군이었어요. 10전투비행단 공군인데, 행진을 하고 내가 집에 와 있는데 군인들은 쉬잖아요. 전쟁기념날이니까. 나는 집에 있는데, 학교가 노니까. 그때 우리 집에 참외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 아저씨가 하얀 바지에 하얀 옷도리에 하얀 모자 쓰고, 군인 아저씨니까 그 당시에. 참외 몇 개 달래. 그러더니 우리 엄마한테 나 주라구.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돈을 안 받더라구. 나는 그냥 내버려두고. 그런데 다음 토요일에 또 와.

윤 병장은 제10전투비행단에서 탄약고로 파견된 13명의 군인 중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왔다갔다하면서 낮이 익게 되고 서로 인사도 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다가 제대를 앞두고 윤 병장한테서 편지가 왔다.

**이영왜** 제대를 할 때가 되니까 편지가 온 거예요. 글씨를 보니까 촌스러워. 그래서 내가 답장을 썼어요. 그때도 잘 썼어. 그 사람도 깜짝 놀랜거야. 아, 잘 썼다고. 그래서 인제 제대하고 가는 날 만나자고 하는 거야. 어디에서 만나냐고 하니가 수원역에서 기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진주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갔어 거기를. 호수다방인가, 다방을 갔었어. 둘이 앉았어. 선물을 주더라구요. 보니까, 그게 햇대보. 왜 양복 걸면 해는 거. 아마 그걸 내가 가지고 나간 것 같애. 그때는 양복 카바 있어요. 양복에 카바를 씌우는데 우리가 수를 봤어요. 근데 그걸 내가 놓은 거야.

이영왜의 선물은 옥양목에 십자수를 놓은 햇대보였고, 윤 병장의 선물은 손수건과 편지였다. 선물을 주고받은 것이 둘 사이의 인연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제대 후 고향 진주로 내려간 윤 병장은 자신의 동생을 통해 이영왜에게 보고 싶다는 연락을 했다.

**이영왜** 시동생 될 사람이, 형님이 아픈데 형님이 꼭 나를 보고 싶다 그런다구. 아버지가 갔다 오라 그랬어요. 윤 병장을 아니까. 윤 병장이 아프니까, 진주에 갔다만 와라. 울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 가서 만났어. 그래서 풀풀이 하이힐 신고 갔는데, 시골길이 다 자갈길이잖아요. 아이들이 막 날 쫓아댕기고 그러는 거야. 시댁 될 집에 인사를 하고. 그게 시작이 된 거야. 결혼을 해야겠다.

사실 이영왜의 아버지는 결혼까지는 반대였다. 하나 있는 딸을 아직도 여자들이 한복치마 입고 다니는 경남 진주까지 시집보내는 것은 귀양 보내는 것이라 여긴 것이다. 윤 병장도 군 생활 중에 어머니가 집에 있는 소를 팔아 용돈 쓰라고 보내 줄 정도로 귀하게 자란 아들이었다. 하지만 딸 가진 아버지의 눈에는 부족하게만 보였다. 진주를 다녀온 뒤에도 윤 병장의 동생으로부터 편지가 계속 왔다. 그러던 중에 윤 병장의 숙부가 수원경찰서장으로 발령을 받아 왔다. 이영왜는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윤 병장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 아내, 엄마, 며느리로 살기

결혼 후 남편은 양평에 있는 공장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 있던 중에 작은 아버지의 소개로 인천 대건고등학교 수학 교사로 가게 되었다. 관사에서 함께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큰딸을 낳았다. 학교 사정으로 1년 만에 다시 수원에 오게 되었고, 지인의 소개로 들어간 곳이 농촌진흥청이었다. 친정어머니가 계시는 곳 근처에서 전세로 살면서 다시 인계동 생활이 이어졌다.

**이영왜** 24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올 엄마 가게 다 처분하고, 올 엄마 근처로 내가 셋방을 들어왔지. 셋방에 들어와서 진흥청을 다녔지. 농촌진흥청에 근무를 해가지구. 우리 딸이 국민 학교 1학년 들어갈 때까지 했어요. 한 6~7년? 거기서 또 농어촌개발공사로 픽업한 거야. 똑똑 하니까. 이○○, 농수산부 장관하시던 분이 올라가면서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또 끌어올린 거야. 그래서 당수동에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지금도 거기 식품연구소라고 있을 거야. 신일전기 앞에. 그런데 이름이 식품연구소가 뭔가 바꿨더라고. 거기서 한 10여 년 근무했지요. 그러다가 안양 에, 인덕원에 발령 받아 갔어. 차장으로. 그러다가 부산에 가서 몇 년 했어요. 혼자 있었지. 주말 부부로. 그러다가 정년퇴직을 부산서 했어요. IMF 터지기 전에.

그렇게 인계동 814번지에서 10여 년을 살다가 향원아파트로 입주했고 2009년 파밀리에아 파트로 재건축이 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동안 이영왜는 보험회사를 다니며 아이들을 키웠다. 보험회사를 다니면서도 줄곧 실적이 좋았다. 시댁의 종교를 따라 불교로 개종을 하고 인계동에 있는 법흥사에 다니면서 총무도 여러 해 동안 맡아 하면서 부모와 며느리의 역할을 다했다. 어릴 때 소풍 다니던 법흥사여서 그런지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마침 아는 사 람을 만나 반갑게 맞아 주는 바람에 적응이 더 쉬웠다.

**이영왜** 보험회사 다녔어요. 37년.

**면담자** 어떤 보험회사?

**이영왜** 제일생명. 제일생명이 알리안츠로 변할 때까지, 독일로 넘어가기 전까지 근무했어 요. 장안동에서 오래했어요. 잘했어요. 구십 몇 년도에 1등 한 게 있어요. 그전에는 월급을 타면 거기에 항상 이름이 붙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회를 봤어요. 주인으로서. 그때 관광버스 13대 가 떠날 때 1호차에서 사회 보고 그랬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리더십이 많았잖아. 법흥사에 가서



이영왜가 분양받아 입주한 향원아파트(수원박물관 제공)

총무 20년 넘게 하면서 참 잘했지요.

**면담자** 법흥사 간 거는 무슨 …….

**이영왜** 아, 우리는 친정이 천주교인데, 우리 신랑네 집이 무교잖아요. 1년에 몇 번 절에 가 는 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힌트를 줘. 그런데 내가 신랑이 좋은 데 종교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좋다, 내가 절에 간다. 그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더 라고. 우리 시어머니는 몰라, 같이 가본 적도 없지만. 제가 절에 가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

아이들이 커 가면서 학부모 활동도 많아졌다. 학부모 모임에서는 회장을 맡아 ‘어머니 회 활동’을 했다. 당시의 어머니회 활동이라는 것은 학부모들에게 모금을 하고 찬조금을 받아 통장을 관리하면서 운동회나 소풍, 시험 등 학교 행사 때에 선생님들을 대접하는 일 이었다. 인계동에서 사는 동안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것이 이영왜의 생활이었다.

**이영왜** 첫째 딸은 인천에서 나고, 둘째 딸은 인계동에서 낳고, 아들도 인계동에서 낳고. 주



1970년대 학교 어머니회 활동(수원박물관 제공). 이영왜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부모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택에서 세 살고. 우리 아들이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집을 샀어요.

**면담자** 애들은 어떻게 키우셨어요?

**이영왜** 지금 엄마들 하는 것보다는 많이 못 했지요. 먹고 싶을 때 제대로 잘 못 해 줬지. 저축을 해야 하니까. 왜냐면 장남이다 보니까 시댁에 애·경사 때 보내는 게 있어요. 지금은 쉽지만. 대출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돈이 꼭 필요한 게 있으니까. “이거 사 줘.” 그러면 “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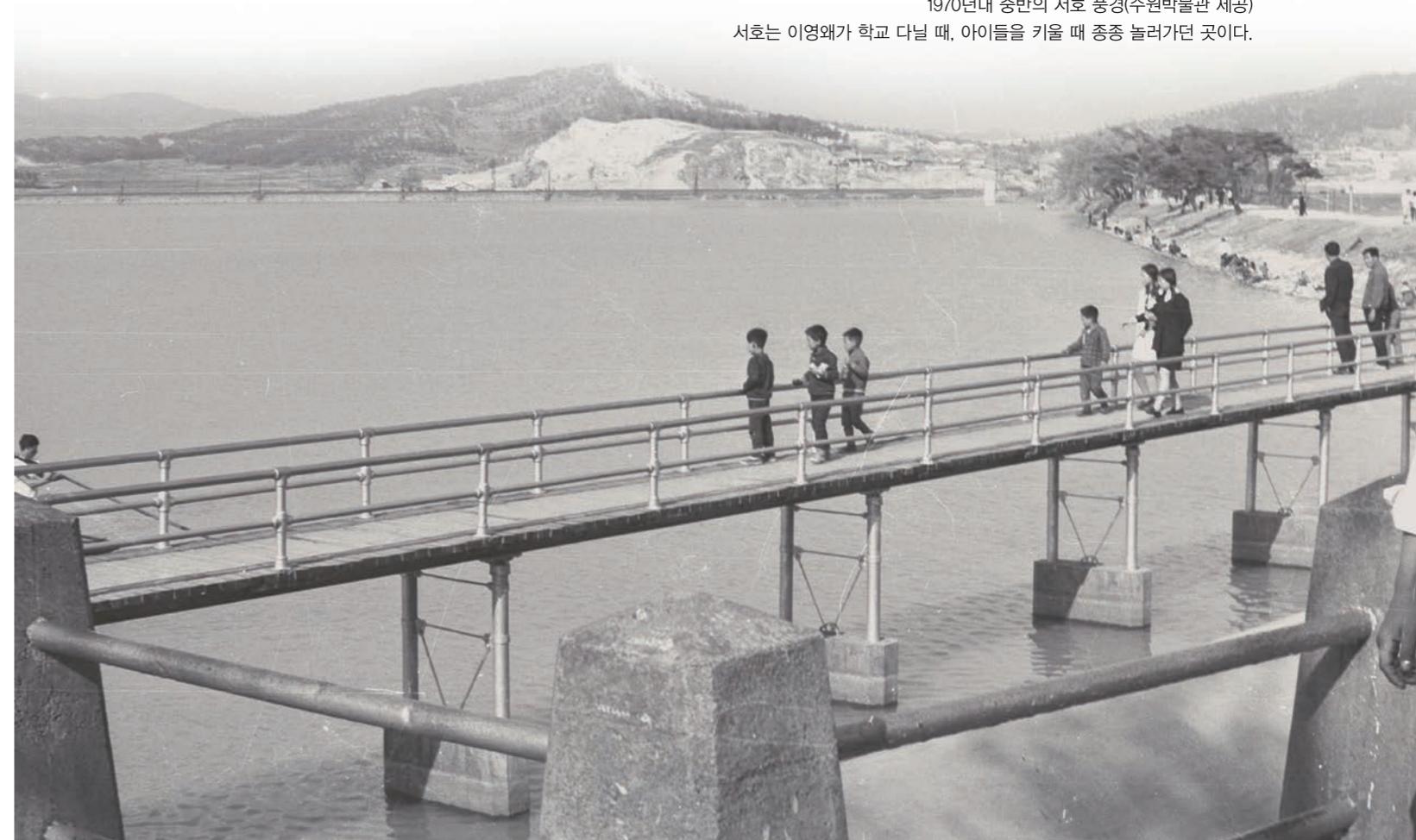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남편과 달리 애들 셋은 다 키가 작았다. 특히 큰딸이 키가 작고 막내아들이 왜소한 것이 잘 못 먹어서인 것 같아 늘 미안하다. 테니스 선수였던 큰딸은 키가 작아서 선수 되는 것을 포기하고 지인의 추천으로 동남보건전문대학 간호과를 졸업하였다. 학군단 출신으로, 중령으로 전역한 막내아들은 군복을 입으면 그 왜소함이 더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결혼 잘 하고 애들 잘 키워 대학교에 다니는 손주들이 둘이나 있다. 둘째 딸은 미생물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잘 못 먹어서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한 번도 속 썩이지 않고 잘 자라준 자식들이다.

## 추억과 기억 속의 인계동

이영왜는 인계동 향원아파트 앞에 있던 향원미용실의 30년 넘는 단골 고객이다. 인계 사진관 자리에 있던 백궁미장원이 문을 닫은 후로 향원미용실에서 머리를 했다. 인계동에서 거의 평생을 살아온 이영왜는 사라진 옛 인계동 풍경들이 여전히 그림다. 그 중에서 제일 그리운 것은 수려선이 다니던 매교의 철길이었다. ‘땡땡땡’ 하며 기차가 지나는 동안 울리던 건널목의 종소리와 다리의 수문이 그림다고 한다.

**이영왜**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 화성역 있었거든요. 지금 2001아울렛 그 뒤가 여주서 오는 수려선 열차가 하나 땡겼었어요. 근데 고게 매교다리, 철로가 있고, 물 흘루구. 인제 지금 매교다리 땡땡 하는 거, 그런 거 하나쯤이야 있었으면 …… 수원에 괜찮다라는 게 그게 젤 아쉽고. 그 다음에 인제 매교동성당 있지요? 성당에 길이 있는데 그전에 거기에 관문이 있었어요. 물 이렇게 해구, 언덕 있었어요. 고게 수원의 중심에서 보면 내가 그게 좀 아쉬워요. 화흥문이 있듯이

1970년대 중반의 서호 풍경(수원박물관 제공)  
서호는 이영왜가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종종 놀러가던 곳이다.



매교동에도 고개 있었으면 ..... 그때는 발전돼서 좋다고 그랬는데. 그 수려선 다리랑 그 수문 내리고 올리는 거. 나는 수원 살면서 주로 다닌 길이 그 길이잖아요.

수원여자고등학교 다닐 때 매교, 수원극장, 시청(현 팔달구보건소) 지나 세무서 뒤쪽으로 걸어 다니던 통학길, 사이렌 소리가 나면 놀다가도 학교로 뛰어가던 그때의 정취가 이영왜는 여전히 정겹고 그림다. 학교 때 소풍 가던 법흥사며 목장, 물고기 잡고 목욕하던 냇가, 기차가 지나다니던 철길 등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국민학교 때 소풍을 가면 1~2학년 때는 서호에 3~4학년 때는 화산목장으로 다녔다. 화산목장에 가면 손에 우유를 담아 주었는데 그것을 훑아먹고 나면 손바닥에 우유가 남아 있어서 끈적거렸다.

**이영왜** 법흥사는 옛날에 애들 데리고 소풍 많이 갔었어요. 그때, 나 어릴 때는 소풍 가면서 호로 갔어요. 서호가 가깝지, 걸어서. 그리고 화산목장이 있어요. 지금 저기 가구거리 있는 데, 그리로 소풍을 다녔죠. 지금도 아마 초지가 있을 거예요.

미장원과 다리 밑 빨래터 겸 목욕탕도 기억에 많이 남는 곳이다. 당시 매교 아래는 동네 사람들의 공동 목욕탕이었다.

**이영왜** 내가 인계동 살 때, 겨울이면 여기 (향원)미장원에서 나오면 행길 건너 길 있죠? 버스 정류소. 고기가 개천이었어요, 개천. 그르믄 물이 뜨듯해요. 빨래를 해믄, 애들을 그 불막 지키라고 먼저 보내. 어른들이 밥을 빨리 맥여서 거기 맡고 있으라구. 물이 뜨듯하니까. 그럼 어른들이 양은 다 라이에다 빨래해 가지고 가구. 매교동도 그랬어요. 샘물 나오는 데가 따뜻했어. 노강 물은 데 거기서 빨래들 하고, 지금 매교다리. 여름이면 위에 철로길이고, 여자들은 우에서 목욕하고 아저씨들은 다리 밑에서 목욕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차가 빈번하지 않으니까 차가 싹 지나가도 모르는 거야.

이영왜는 인계동을 무당 많고, 어려운 사람 많고, 논밭 많았던 곳으로 기억하고 있다. 인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팽나무고개에서 시내로 나가려면 인계동사무소를 지나 대성방앗간 쪽으로 넘어가는 길을 따라 돌아서 다녔다. 당시는 주변이 다 밭이고 논이었다. 현재 인계동 팽나무 맞은편의 대동내과 위쪽은 용씨네 호박밭, 아래쪽은 홍씨네 포도밭이었다.

이영왜의 기억 속에 남은 수려선 철교(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이영왜의 오랜 단골인 향원미용실은 그녀가 오다가다 종종 들르는 곳이다.

홍씨네는 단무지공장을 크게 하던 집이었다. 우동을 팔던 영왜네 가게도 홍씨네 단무지공장에서 단무지를 사다가 썼다.

**이영왜** 인계동은 옛날에 무당촌이었어요. 한 집 건너 무당이 있는 걸로 알고, 어렵고. 인계동이 어려운 동네라고 알아요. 아무개네 만신, 우리 앞집에도 두 집, 세 집이 있었어. 어려운 사람들이 많구. 집도 별로 좋은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 집하고 우리 오빠네 집이 함석집이에요. 팽나무고개에서 함석집 그러면 오빠네랑 우리 집밖에 없어.

요즘 이영왜의 생활은 수영장이 중심이다. 20년 넘게 동수원 뉴코아에 있는 수영장에 다니고 있다. 수영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과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쇼핑도 한다. 건강과 여유를 즐기는 비법이다.

**이영왜** 아침에 수영장 가면 늦게 와요. 왜냐면 오늘은 이 애가 밥을 사면, 방향이 다 달라요.

차 타고 멀리 나갈 때도 있고. 돌아가면서 니가 사고 내가 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나도 사야 하니까. 어떤 때는 저기 호매실 나가서 먹구, (용인)수지까지 가고 그래요. 먹고 또 쇼핑을 해요, 항상. 집에 가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쇼핑을 해, 주로. 아침에 학교 가듯이 수영장에 가요.

수영장 모임과 함께 중요한 모임이 여고 동창 모임이다. 이영왜는 수원여고 14회 졸업생이다. 14명의 동기들이 매달 14일에 만나는데 5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영왜** 시집간 후에, 주소로 연락을 해서 8명이 시작을 했어요. 수원여고 모임을. 지금까지 이어가죠. 지금은 스물 넷, 다섯 나와요. 그게 지금 50년을 넘었어요. 매달 모여요, 현재까지. 처음에는 그냥 편지 써서 우리 어디서 만날래? 그때는 빵집이에요. 이렇게 식당이 없어서. 빵집에서, 그때 블랙커피죠. 아직도 블랙커피 먹는 게 제일 고급스러웠어요. 커피 주문하는 게 무슨 큰 주문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어 막걸리 파는데 와인 이렇게 신청하듯, 그랬어요. 빵집에 커피 먹으면 맛있어요. 8명이 앉아서 우리가 제일 제압하고 먹는 것 같은 기분, 그랬어요.

50년 전, 다른 사람들은 쌍화차를 시켜 먹을 때 여고 동창들이 만나 빵과 함께 먹던 블랙커피는 지금 먹는 블랙커피와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모임 장소는 시청 위 신라빵집이었다. 나중에는 태연당에서 만나 커피에 빵을 찍어 먹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 후에는 수원갈비로 유명했던 화춘옥을 갔다. 그때는 화춘옥에 가서 갈비탕 먹는 것도 대단하게 생각했다.

화두는 주로 애들과 남편이었다. 시집살이로 시작했던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면서 남편 취직 얘기, 아이 돌잔치, 아이들 학교 진학 얘기로 바뀌었다.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유치원 이야기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돌로 지어졌다고 해서 '돌교회'라고 부르던 교동의 수원장로교회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사람들이 어깨에 힘주던 시절이 있었다. 이영왜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못해 그 이야기가 더 부러웠다. 유모차 끌고 다니는 것도 그렇게 부러웠었다. 그때 유모차는 지금 벤츠 몰고 다니는 것 못지않았다. 그렇게 애들 유치원 보낸 것, 초등학교 시험 본 얘기, 애들 결혼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며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다음 모임 때 여고 동창들의 이야기 주제는 또 무엇으로 바뀌어 있을까?



이 승 연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 ‘인계동 옥편’으로 불린 임익상, 사라지는 동네를 회고하다



사람들은 저마다 추억의 시간과 장소를 갖고 있다. 어린 시절 일상의 추억이 서려 있는 동네 골목, 유년기 뛰놀던 학교 운동장, 신혼여행으로 찾았던 경치 좋은 유원지, 노년기가 되어 방문한 해외 명소 등 각자에게 의미 있는 공간과 시간은 실로 다양하다. 수많은 기억의 장소 중 어린 시절 또래들과 어울렸던 공간은 특히 소중하고 아련한 기억으로 남곤 한다. 기계화와 자동화, 각종 개발사업의 거센 물살 속에서 옛 모습을 간직한 공간도, 삶을 조용히 반추하고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이다. 재개발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수원에서 동네의 옛 모습들은 사라지고 있다. 노후화된 시가지가 정비되고 환경이 개선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골목길, 가게, 목욕탕, 오래된 주택이 사라지면서 한 공간에서 수십 년 이상을 함께해 온 주민들의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다.

인계동에서 오랫동안 삶을 일궈 온 이들에게 사라지는 삶의 터전은 곧 인생의 추억과도 연결되기에 깊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재개발 이주민 중에서도 마지막에 해당될 만큼 오래 까지 동네에 남아 있던 임익상은 인계동의 상징적 존재라 할 수 있다. 조부부터 아버지, 본인, 자식 세대까지 4대가 한 동네에서 삶을 일구었으며 70대 중반인 현재까지 인계동의 온갖 정보에 정통한 소식통이다. 그의 가정은 인계동 일대에서 가장 넓은 집에 살면서 또

래 친구들에게는 놀이터를 제공했고, 이웃 주민들에게는 인심을 베풀었다. 동네일에 발 벗고 나서다 보니 일찍이 ‘인계동 옥편’, ‘인계동 사회자’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출생부터 지금까지 인계동에서 그려온 그의 삶을 통해 사라져 가는 마을의 흔적을 담아내고자 한다.

#### 4대가 거주한 인계동, 풍요의 공간 임익상의 집

1943년생인 임익상은 인계동 854번지에서 4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나주 임씨로, 수원 입향조(入鄕祖)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신흥동에 살던 그의 부친은 80여 년 전 인계동으로 들어와 장남 임익상을 얻었다. 조부 임여성은 목수였고, 아버지 임연수는 수원·오산·용인 등 여러 우시장을 다니며 소 매매를 하였다. 임연수는 방화수류정 옆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씨름대회에서 1등을 하여 부상으로 송아지를 탈 만큼 수원의 장사로 꼽혔다.

**임익상** 인계동 854번지에서, 거기서 내가 태어났다고. 아버님이 기운도 장사시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지금 화흥문 있는데, 바로 우측에 용두각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공설운동장도 있거든. 거기에서 씨름대회에서 1등을 해서 송아지도 타신 분이 아버님이야. 나보다 키가 크고 그런데, 이게 통뼈라 힘이 대단하셔. 옛날에 초가집에 용마름 있죠? 이거를 지붕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던지고 그랬는데, 80개씩 지붕으로 던졌다는 거야. 우시장에 가서 소도 사서 팔고, 중매도 하고, 인저 그런 거를 하셨다고. 우시장이 수원장, 오산장, 용인장이 이렇게 있거든, 그제. 장마다 아버지가 아침 일찍이 나가셔가지고 다니셨기 때문에. 수원장은 4일장, 오산장은 3일, 용인장은 5일장이었는데 그렇게 장을 다니셨어요.

인계동의 노인들은 토박이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를 ‘인계본동’이라고 부른다. 정식 행정 명칭은 아니고 주민들끼리 부르던 이름이지만,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은 인계본동 출신이라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인계본동이라 불리는 곳은 인계동에서 상대적으로 잘 살고 인구도 많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임익상의 집은 인계본동 일대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으며, 윗집 360평, 아랫집 177평에 달하는 넓은 주택 2곳에 가족이 나눠 살았다. 그는 지금도 안마당, 바깥마당, 안채, 헛간, 외양간, 창고 등 집 구석구석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기억한다. 마당에는 감나무, 대추나무, 앵두나무가 있어 계절의 변화를 느



1950년대 수원우시장(수원박물관 제공)

끼며 익어 가는 과일들을 이웃과 나눌 수 있었다.

**임익상** 옛날에 우리 집에 외양간이 2개가 있었고, 안에 하나, 집 안에 하나, 바깥에 하나. 우리 집이, 여기 또 이렇게 앞마당이고, 앞마당 있는데 외양간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 대문, 여기가 외양간, 여기 헛간, 여기 뒤에 헛간, 여기가 인제 안채, 안채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감나무가 2개가 있었고, 여기가 대추나무가 있었고, 여기 우물가에 앵두나무도 있었고. (중략) 지금 인계동 집에 산업도로 나갔는데, 그 옆에 지금 방송 송신소 옆에, 뭐, 저기 전부, 인계동 주변으로 이렇게 전부 땅이 있었어. 그래 그것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으면 지금 몇백 억, 몇천 억 될 거다.

1940~1950년대 국민 모두가 어렵던 시절, 인계동은 수원에서 그리 넉넉지 않은 동네에 속하였다. 주민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고, 광교산에 가서 지게에 나무를 지고 와 땀감으로 이용했다. 임익상의 집은 부농으로 인계동에서 머슴을 둔 유일한 집이었다. 동네 아낙들은 그의 집에서 농사일을 도와주고 밥을 얻어다 가족들 끼니를 챙겼다. 궁핍하던 시

절, 임익상의 집에 모인 마을 주민들은 죽을 얻어서 고비를 넘겼고, 아이들은 넓은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 놀았다. 가을이면 타작을 해서 근방에 떡을 돌리기도 했다. 인계본동 출신 노인들은 임익상의 집을 풍요로운 공간이자 추억의 장소로 기억하고 있다.

**임익상** 우리 주위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밥을 굶다시피 하고 그래서, 우리집에 데리고 와서 내가 밥도 많이 먹이고. 또 우리가 그 타작을 하면은 우리 마당에다가 2대씩 놓고, 이틀, 삼일을 타작을 했어. 이틀, 삼일. 그러니까 부농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배고프다 그런 거는 몰랐지. 그렇게 타작을 하고 그러면, 주위에 아주머니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우리집에 와서 밥 잡수고, 또 자기 식구들 거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인제 그런 거를.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던 조부모와 부모의 노력 덕분에 임익상은 동네 또래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힘이 장사였던 아버지는 몸을 아끼지 않고 일했지만 장남에게만큼은 굶은일을 시키지 않았다. 동년배 소년소녀들은 일찍이 농사일이며 배달 일을 하느라 손에 굳은살이 박였지만, 임익상은 지금까지도 곱고 깨끗한 손을 자랑할 만큼 곱게 자란 부잣집 도련님이었다.

## 전쟁의 상흔

1940~1950년대 출생한 인계동 아이들은 주로 세류초등학교에 다녔다. 초등학교 2학년 때 6·25전쟁이 발발하자 임익상의 가족은 어머니의 고향인 용인으로 다 같이 피난을 갔다. 1951년 1월 7일 중공군에 의해 수원이 함락되었다. 수원은 비행장이 있어 전략적 요충지였는데, 화성 성곽 일대가 폭격으로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인계동에 들어온 인민군들은 넓은 마당에 소죽 쑤는 가마솥도 있던 임익상의 집을 식당으로 사용하였다. 집을 새로 지으려고 창고에 쌓아 뒀던 목재도 인민군들이 장작으로 사용하였다. 조용하고 고즈넉한 동네에서 소년들이 뛰어놀던 그의 집은 하루아침에 전쟁의 각축장이자 현대사의 상흔이 남아 있는 공간이 되었다.

**임익상** 갔다 와서 보니까 쌀을 다 누가 파 먹었고, 우리집이 소도 길렀기 때문에, 소죽 쑤는 가마솥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전에 인민군이 우리집에, 그 식당 사용했다. 내가 할머니들한테



전쟁의 피해를 입은 수원역(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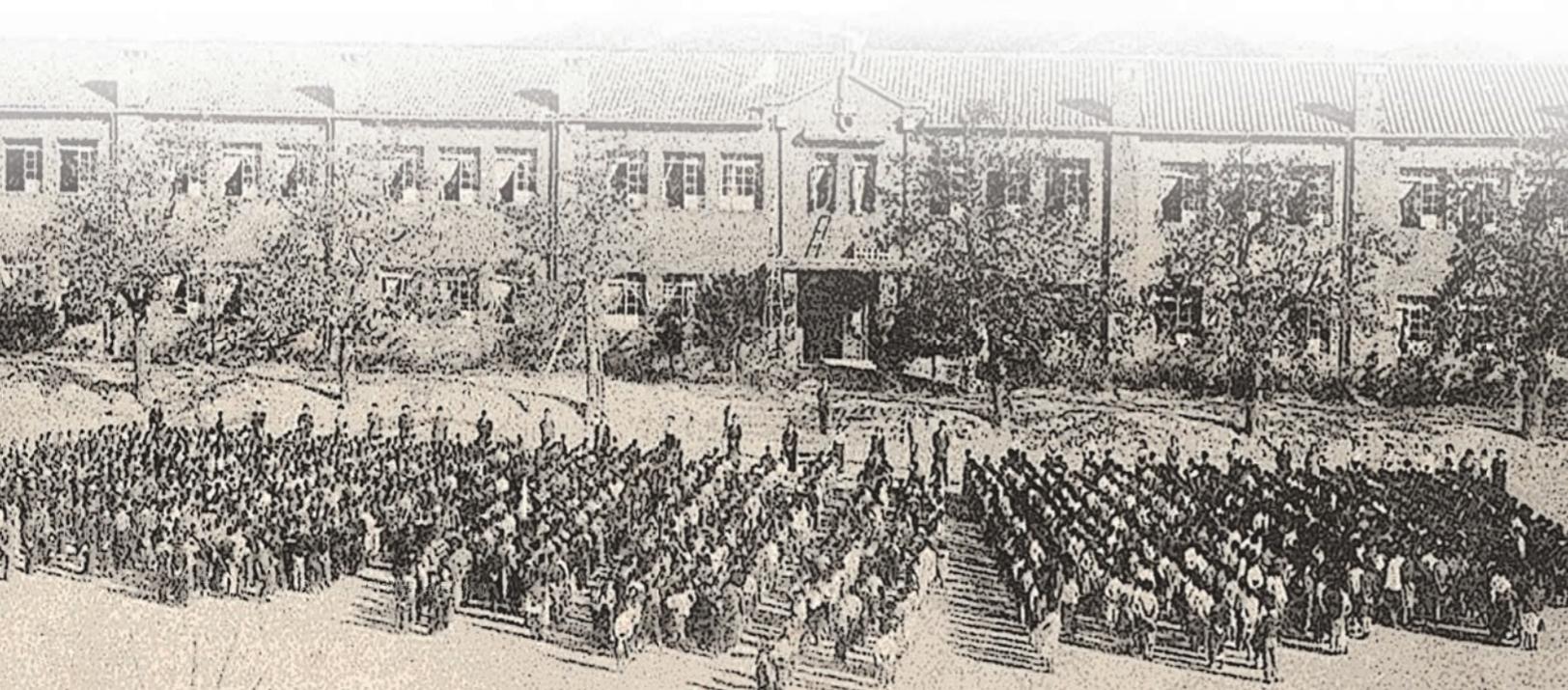
전쟁 중에 부서진 장안문(1950년대, 수원박물관 제공)

들으면, 인민군이 내려와서, 우리 집이 크고 소도 있고 부농이라, 우리 집에 마차다 뭐다 무슨 이런 게 농사짓는 집이니까 많았거든. 그리고 마당도 넓고, 안마당도 있고, 바깥마당이 있고. 집을 새로 지으려고 뒤에, 아까 저기 창고가 있다고 그랬지? 거기다 목재를 가득 해놨는데, 이거를 전부 다 파서 밥하는 데 사용을 했고.

1년 넘게 피난을 갔다 돌아와서 다시 세류초등학교에 다녔다. 임익상은 자신보다 4~5세씩 나이 많은 학우들과 한 반이 되었으나 자연스레 어울렸다. 전쟁 시기 북한 피난민들이 수원으로 많이 모여들었다. 세류초등학교 가는 길 산 아래자락에서 전쟁 피난민들이 생활했는데, 아이들을 잡아간다는 헛소문이 돌아 무서움에 떨며 몇 명씩 모여서 등·하교를 했다. 전쟁 후 인계동은 다소 흥흥했지만 임익상과 인계동 아이들은 금세 새로운 세상에 적응했다.

**임익상** 피난 갔다 오니까, 세류초등학교 가서, 다시 와서 이려고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나이가 우리하고 땃살씩 먹은, 차이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랬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세류초등학교, 매산학교, 신평학교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걸어 땡기는데 철로 길을 따라서. 그 안에 보면, 산 밑창에 굴을 뚫어 놓고 피난민들이 거기서 생활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 피난민들이 문둥이다 이래가지고, 애들 잡아가지고 간을 꺼내 먹는다 이래가지고, 아주 우리 그 친구들과하고 모여서 이렇게 다니고 그랬어.

1950년대 중반의 세류초등학교(세류초등학교 15회 졸업앨범)



## 인계동 주민들과 함께한 여가와 놀이

시절이 수상해도, 생활이 어려워도, 임익상을 비롯한 인계동 아이들에게는 그들만의 삶이 펼쳐졌다. 인계파밀리에아파트 자리는 원래 청송 심씨 종중산이 있고, 시제를 지내던 곳이었다. 1979년 향원아파트가 들어섰다가, 파밀리에아파트로 재건축되어 2009년 주민들이 입주하였다. 인계동 아이들은 심씨네 종중산에서 시향이 있을 때면 멀리서 지켜보며 기다리다가 시향이 끝나면 나눠 주는 제사음식을 먹었다. 달이 환한 여름밤이면 이 산에서 늦게까지 공을 차고 운동을 했으며 겨울에는 모여서 연을 날렸다. 지금 20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파밀리에아파트 자리는 과거 인계동의 공식 놀이터였던 셈이다.

**임익상** 심씨네 종중산으로 매년 시향을 지내가지고, 우리가 죽 이렇게 서서 모가지 노뉘 주면 그걸 먹고 그랬어. 그 망부석에서 공도 차고. 공도 차고 운동도 하고. 우리 달밤, 여름이면은 시원할 때, 동네 애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놀고, 연도 날리고, 뭐 이래고 그랬다고.

새마을금고 팔달 인계지점 자리는 예전에 소를 도살하는 도축장이었다. 나이 어린 학생들은 살육이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것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혼자서 그 앞을 다니지 못하고 여러 명이 모여 다녔다고 한다.

**임익상** 도축장은 나 어렸을 때, 내가 여섯, 다섯 살에 있을 때, 지금 마을금고 자리가 옛날에 동사무소였어. 그래 동사무소 하기 전에, 거기 도축장이 그것이 동탄인가 어디로 옮기기 전에, 거기에 소 도축장 했었지. 어렸을 때 생각이, 소 도살장, 소를 잡는 데라고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서 혼자도 그걸 이렇게 못 내려왔어.

유년 시절 마을에 대한 기억, 가장 즐거웠던 추억은 무엇일까? 아이들은 동네에서 재배하던 땅콩, 참외, 옥수수 등을 서리하여 임익상의 집에 모여 쇠죽 쑤던 솔단지에 넣고 찌 먹었다. 지금이야 농작물 서리를 범죄로 취급하지만, 50~60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조금씩 서리를 하여 나눠 먹는 것은 관행이고 풍습에 해당하였다. 인계동은 수려선이 통과하였고 인계본동에는 화성역이 있었다. 수원과 용인, 이천, 여주를 오가던 수려선은 협궤열차였다. 인계동 아이들은 달리는 협궤열차에 몰래 올라타 1~2km를 간 후 원천유원지에서 내리곤 했다. 인계동을 지날 때면 속도가 느려졌기에 기차에 올라타고 내리는 것이



1980년대 마을 척사대회(수원시청 제공)

장난꾸러기 아이들에겐 별일 아니었다.

**임익상** 망두산 근처에, 땅콩밭도 있고 참외밭도 있고 과수원 있는데, 거기 옥수수밭도 있어서 그거 서리해다가 먹고 이런, 이런 기억. 우리집이 소죽을 썼으니까, 우리집에 와서 전부 그거 찌먹고 그랬어. 지금 얘기하면 나쁜 얘기지만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눈을 피해 가며 소소한 장난과 말썽을 피우며 또래들만의 놀이를 이어갈 무렵 인계동 어른들에게도 주민들 간의 돈독한 모임과 놀이가 있었다. 정월 보름날 임익상의 집에 있던 우물에서 가족들은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건강과 안녕을 비는 우물고사를 지냈다. 인근 농민들은 마을 부잣집인 임익상의 집에 찾아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깃발을 마당에 꽂았다. 그의 아버지는 찾아오는 이들에게 곡식을 나눠줬다. 별다른 오락거리가 없던 시절,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동민체육대회나 윗놀이대회는 어른들의 즐거움이었다. 예전에는 동네 주민들이 다 같이 대회에 참가해 어울렸는데, 요즘은 이장, 통·반장 등 지역에서 직책을 맡은 이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쉽다.

**임익상** 그전에는, 옛날에 어렸을 때, 동사무소에서 동민체육대회를 하고 윗놀이대회 그거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없어. 지금도 동사무소에서 통·반장들이나 척사대회 하고 그래. (중략) 그런 데 우리는 안 가지.

## 인계동 옥편, 삶의 굴곡을 견디다

임익상은 세류초등학교 13회, 수원중학교 8회, 수원농림고등학교를 21회로 졸업하였다. 당시 수원에서 공부를 잘하는 남학생들은 수원고등학교로 많이 진학했고, 수원농림고등학교도 인기 있는 학교 중 하나였다. 임익상은 집안의 농지를 물려받아 농사를 짓겠다는 생각에서 농과, 토목과, 축산과 중 농과로 진학하였다. 인계동에서는 형편상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도 제법 있었고, 상업고등학교 야간부에 다니며 주경야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임익상은 한창 멋을 내며 인계동 멋쟁이로 꼽혔다. 성격이 활달하고 언변이 좋아 이웃과 동창들의 결혼식 사회를 도맡았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드문 동네에서 한자를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었던 그는 동네 경조사 때마다 꼭 필요한 존재였다. 그래서 20대부터 ‘인계동 옥편’이라고 불렸다.

**임익상** 20대였어요. 친구들한테 무슨 일, 굿은 일, 좋은 일이든 내가 다 가서 봐주고. 친구들 장가들고 약혼하면 예식 사회까지 다 봐주고. 동네 어른들 돌아가면 일도 많이 봐주고. 호상도 많이 봐줬어요. (중략) 누구네 초상이 났다,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네 집은 누구누구 어른신 이름 함자를 내가 다 알아서 써 줬어요.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써 달라 그랬어요. 고등학교라도 다닌 사람은 그 근처에 나밖에 없었어요.

임익상은 28세에 7세 연하의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부잣집 아들로 큰 고생 없이 자란 그는 성공에 대한 꿈을 품고 인계동을 떠나 서울에서 몇 년간 머물렀다. (주)한국전력에 임시직으로 취업하여 계량기 검침을 담당하기도 했고, 4~5년간 사업을 하기도 했다. 사업 경험도 부족하고 운도 따르지 않아, 실패를 거듭하며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장남으로서 연로해지는 부모에 대해 책임감도 갖고 있던 그는 인계동으로 다시 돌아왔다. ‘모찌꼬미(持ち込み: もちこみ)’라고 하던 지입택시를 갖고 운수회사에 들어가 2년간



화성역 철길 위에 선 20대 청년 임익상(1967년, 임익상 제공). 왼쪽 뒤로 보이는 것이 철도국 관사이다.

기사로 일을 하면서 수원 구석구석을 다니기도 하였다. 정치에 관심이 있어 수원에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의 유세를 도우며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했다.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은 이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던 시대였지만 그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 과거 정치 유세를 따라다닌 덕에 임익상은 여든을 바라보는 지금도 인계동에 대한 각종 통계수치를 줄줄이 외우고 있다. 선거 공약이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는 본인이 살고 있는 인계동, 팔달구, 나아가 수원시에 대해 더욱 해박해졌고,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에 이르렀다.

임익상은 일찍이 생모와 헤어지고 계모와 생활했다. 아버지와 계모의 노후를 돌보고, 두 사람의 임종을 지켰으며 현재 제사를 모시고 있다. 그런데 임익상의 아버지가 임종 전 계모에게 살던 집의 명의를 물려줬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거주했던 집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계모의 친아들이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몇 년에 한 번씩 연락하던 계모의 조카가 유산 상속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관련 부처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소용없었다.

부농의 장남으로 태어나 누구보다 풍족한 성장기를 보냈지만, 삶에는 예기치 못한 굴곡



인계초등학교에서 열린 선거 유세(1981년, 수원박물관 제공). 임익상은 젊은 시절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도 했다.

이 따른다. 젊은 시절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인계동 일대의 많던 땅과 재산을 보존하지 못한 것, 그래서 정든 인계동에서 내쫓기듯 다른 동네로 가면서 제대로 된 거처를 마련하기 힘든 것이 임익상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건강이 좋지 못한 아들까지 부양하느라 경제적으로 빠듯한 임익상에게 낯선 동네에서 새롭게 터전을 일구는 것은 쉽지 않다.

**임익상** 인계동에 그 고전적인, 예부터 내려오는 그런 데가 없어진다고 하니, 또 시대가 변하면서 어쩔 수 없는 걸로 받아들여야지 뭐 어떡해. 예를 들어서, 뭐야 그게, 그 옛 것도 좋지만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빨리 우리 후손들이 다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세상이 돼야지. (중략)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남아 있지. 그러니까 영세민만 남아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나서 여태까지 자라왔는데, 재개발로 해서 그러한 옛날에 그 전해 내려오는 인계동이 사라지고 새로운 아파트촌이 된다 하니까 뭐라고 그럴까, 이거를 추억으로 받아들여야지 뭐.

## 추억으로 사라지는 동네, 마지막을 지켜보다

인계본동은 수원에서 낙후된 동네이고 아직까지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다. 그래서 팔달10구역 재개발 지역에 선정되었으며, 불과 몇 년 후면 25층짜리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한다. 원주민들은 타의에 의해 집을 비워 주고 이주를 해야 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들은 집과 땅을 팔아 주변의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떠나지 않고 늦게까지 남아 있는 이들은 인계동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기에 충분치 못한 이들이다.

4대가 살았던 정든 인계동에서 되도록 오래 남고자 했던 임익상은 곧 서둔동의 한 연립주택으로 이주할 예정이다. 2019년 5월까지 집을 비워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인계본동경로당의 총무를 맡아 매일 아침저녁으로 경로당 문을 열고 닫으며 관리하였지만, 인계동을 떠나면 주소지가 바뀌어 인계본동경로당에 대한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총무를 그만두어야 한다.

재개발을 앞두고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한산해진 인계본동의 모습



**임익상** 경로당이 초창기에는 인계동 사람만 회원으로 가입 가능했는데, 요즘은 범위가 넓어서 수원에 사는 사람은 다 경로당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이 없어요. 운영규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서둔동으로 거주지를 바꿔서,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이 없어요. 회장, 부회장, 총무를 다 할 수 없어요.

세월의 흐름과 개발로 인계동은 예전 모습이 사라져 가고 있다. 불과 몇 년 후면 과거의 인계동을 떠올리지 못할 만큼 새로운 모습의 마을이 탄생한다. “재개발이 안 됐으면 죽을 때까지 살았을”, “다른 데 가서는 못 사는 마음”이었던 임익상은 이제 새로운 동네에 적응해야 한다. 동네를 뛰어다니며 공을 차고, 또래들과 어울려 서리를 하던 개구쟁이 소년이 팔순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어 마을을 떠난다. 인계동에서 한평생 부대끼며 온갖 희로애락을 겪은 그의 바람은 무엇일까?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하고 경로당 총무를 맡아 보면서 그는 인계동 주민들의 생활과 사정과 애환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그는 복권에 당첨되어, 본인의 노후도 보다 풍족해지고 병원비 걱정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인계동 노인들도 도와주고 싶다고 한다. 오래된 주택과 토박이들의 끈끈한 정서와 옛 모습은 이제 아련한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인계본동경로당 내부. 임익상은 인계본동경로당 총무로서 경로당 관리를 맡고 있다.

**임익상** 바라는 거 뭐 있어? 그러고 뭐, 저거지만, 나는 그래도 봉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중략) 지금도 경로당에 돈이 없어서 수술 못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래 내가 막말로 복권은 사는데, 복권이라도 맞으면 저 사람을 내가 의료비를 좀 지원해 줘야겠다 그래.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더불어 함께, 건강하게. 좀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홍  
영  
식



정수자

서인

## 인계동의 참다운 토박이



홍영식(가명)은 인계동 토박이다. 1957년 2월 12일 생이라 또래보다 한 살 빠른 일곱 살에 초등학교 입학했다. 인계초등학교를 마치고, 수원중학교와 수원공업고등학교를 마쳤다. 태어나서 초·중·고 과정을 마치기까지 인계동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홍영식은 아들 삼형제 중의 둘째 아들이다. 형과 동생 사이에서 낀 가운데 아들이지만 큰 탈 없이 평범하게 자랐다. 당시 형제가 많던 다른 집들에 비하면 단출한 편이라 그랬는지 사이좋게 자란 것으로 기억한다. 학교 다닐 때도 특별히 내세울 것 없이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한다.

### 단무지공장과 과수원 집

아버지는 6·25전쟁 후 서울 답십리에서 내려와 인계동에 정착한 경우로 생활력이 강한 분이였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단무지공장 등 일을 같이 하며 삼형제를 키우셨다. 아버지는 1996년에 작고하셨고 아흔을 넘기신 어머니는 인계동에서 홍영식과 함께 지내신다.

홍영식의 어린 시절 동네에 대한 기억은 여느 시골 같은 모습이었다. 1985년 인계동 동

쪽의 택지개발(신매탄아파트 단지)에 따른 인계동의 대대적 개발 이전의 모습은 그냥 도심 외곽의 논밭 많은 시골이었던 것이다. 그런 인계동에서도 팽나무고개를 사이에 두고 가르면 홍영식 집 쪽은 밭이 많았던 곳이다. 상대적으로 인계초등학교 너머 건너편 지역에는 논이 훨씬 많았다고 한다.

팽나무는 도로에서 보이는 현재의 위치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마을의 길목에 있었다. 마치 인계동의 수호신처럼 마을 사람들과 같이 살아온 팽나무 덕에 지명도 ‘팽나무고개’이다. 팽나무는 김용서 전 수원시장 재임 시절 현재의 자리로 옮겨 왔다. 그때 한 그루를 더 심어 지금은 두 그루의 팽나무가 인계동 입구를 지키며 오가는 차와 사람들을 점호하고 있다. 인계동에서 매교동으로 넘어오는 조금 높은 고개 지점에 자리하고 있어서 위치의 가치도 훨씬 돋보인다고 할까. 홍영식 집은 그 팽나무 근처 조금 높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홍영식이 태어나서 자란 집은 130평쯤 되는 넓은 터였으니 당시로서도 규모가 큰 집이었다. 그런 까닭에 안마당이 넓어서 넓은 마당을 이용해 돼지도 기를 수 있었다고 한다. 홍영식 집에서 가장 인상적인 일은 가업처럼 했던 단무지공장이다. 단무지공장은 1965년부터 시작해서 십 년 동안 계속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단무지공장을 그만쯤 운영했으면 식구 외에 사람을 더 두었을 법한데 별도로 직원을 두었던 기억이 없다니 요즘 말로 가족 경영을 한 셈이다.

홍영식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한 집안의 단무지공장 일을 도와서 같이 했다. 어려서부터 체력이 좋은 편이었던 그가 주로 맡은 역할은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배달을 가는 일이었다. 수원화성 안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 살던 시절이라 배달은 중앙시장(현 미나리광 시장 부근에 있던 시장)으로 많이 다녔다. 자전거에 단무지를 실으면 한 50~60관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쌀로 치면 두 가마 무게가 족히 되었다니 지금의 체격만큼 그때도 몸집이 좋았던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단무지 사업은 좋은 무 확보가 관건이었다. 한 40평쯤 되는 인근의 밭에서 무를 사곤 했는데, 대부분 밭떼기로 사들이며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단무지를 만드는 방식은 지금도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 일단 무를 씻어서 ‘당꼬’로 부르던 큰 항아리에 쟁여 넣어 절이기부터 했다. 무를 소금에 절여 보름 동안 두었다가 다시 씻어 옮겼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마 맛내기를 더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싶다. 단무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단맛과 짭조름한 간이 무의 속살까지 파고들어 골고루 배어 나와야 상품 가치도 높아지니 말이다. 이때 단무지라면 떠오르는 노란 색깔을 내는 물감이 들어간다. 물론



인계동 팽나무고개의 팽나무. 마을 안쪽에 있던 것을 도로변으로 이전하였다.



인계동에 있던 과수원(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유입 인구가 늘면서 과수원을 비롯한 농경지는 주택가로 바뀌었다.

단맛을 내야 하는 단무지라는 특성상 사카린도 넣어야 했다. 그렇게 커다란 누름돌로 눌러 놓은 당꼬는 집 안에 늘 가득히 자리 잡고 있었다. 큰 당꼬를 열어 단무지를 실으면 대략 두세 차 정도의 분량이 나왔더니 무척 큰 향아리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단무지 사업이 실통치 않을 때에는 부업처럼 풋고추 삭힘도 한쪽에서 병행했다. 단무지나 고추 삭힘이나 일정한 정도의 절임이라는 방식은 비슷하니 별다른 준비 없이도 병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에 단무지 사업을 접게 되는데, 식품위생법 등이 생기면서 한 층 까다로워진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워진 탓이었다.

단무지 사업을 하던 중에 1970년쯤부터는 과수원을 병행했다. 밭이 많은 지역이라 과수원을 하기에 적합했다고 한다. 과수원은 포도나무를 먼저 심어두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1,000평쯤 되는 규모로 기억한다. 나무를 심고 나서 몇 년 뒤에야 수확할 수 있는 과실수의 특성 때문에 미리 심어 둔 것이다. 포도나무 아래는 딸기를 심어 초여름에 딸기를 먼저 수확하고 초가을에 포도를 거두는 식이었다.

딸기는 6월쯤 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는 비닐하우스가 일반화되지 않아 거의 다 노지에서 기르고 거두는 딸기였으니 시기가 매우 중요했다. 딸기는 주로 낮은 궤짝에 담

아서 팔러 나가곤 했다. 딸기도 단무지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중앙시장으로 내다 팔았다. 딸기가 끝나고 좀 지나면 포도 철이 되었다. 포도 역시 따는 대로 사과 궤짝에 담아 중앙시장으로 가서 팔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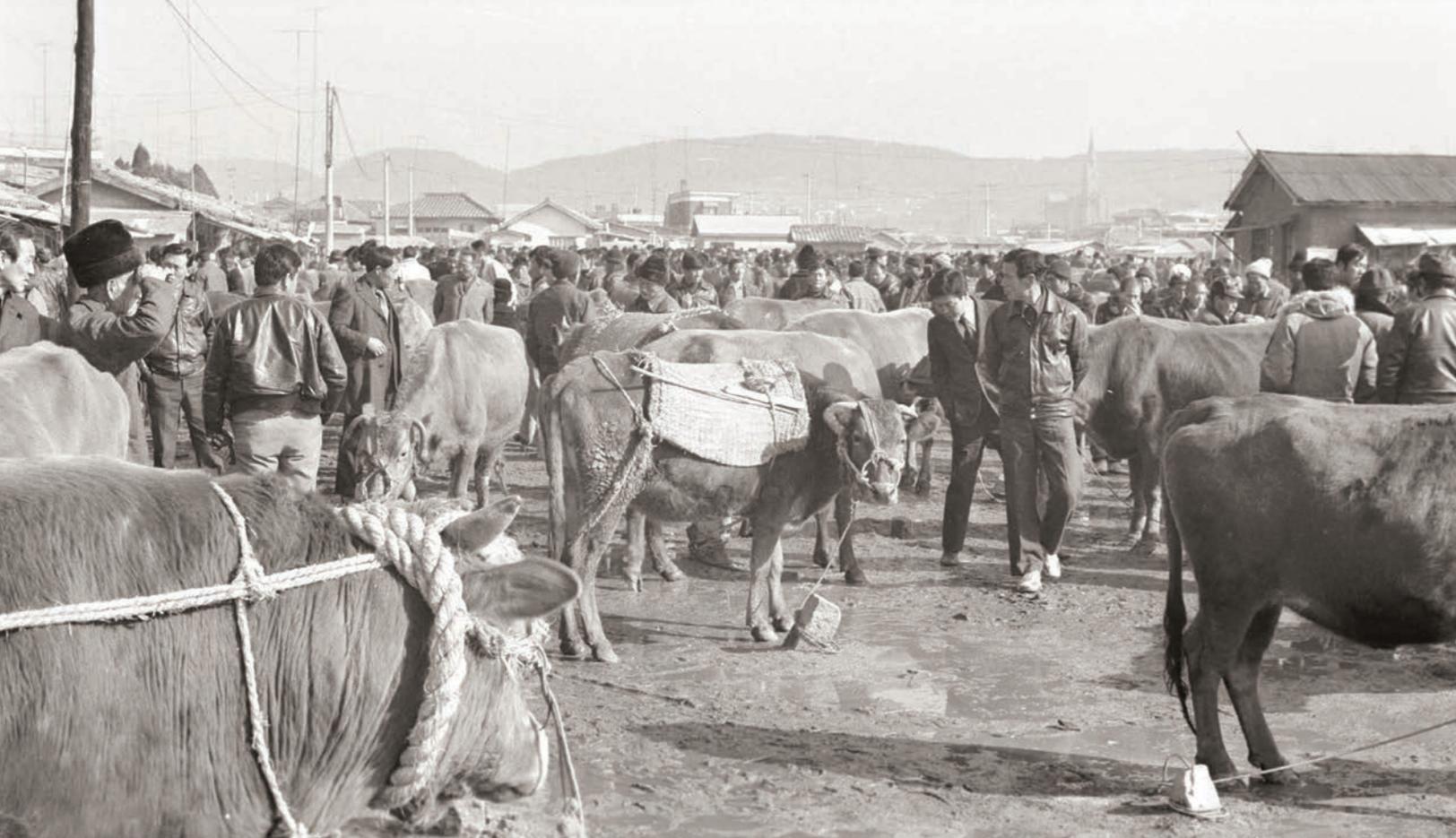
과수원은 오래 가지 않아서 그만두었다. 손실이 너무 많이 생겨 계속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손실은 어이없게도 ‘서리’라고 하는 일종의 전통적 놀이 같은 도둑질(?)이 일으켰다. 서리는 남의 밭에서 과일이나 채소 같은 작물을 주인 몰래 따먹는 것으로 농촌에서는 흠친다는 의식 없이 즐긴 문화인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먹을거리가 풍부한 농촌에서 햇과일이나 햇곡 등의 좀도둑질은 관용적으로 봐주던 인심 속에서 이어지던 풍습이었다.

그런 전통 때문에 농촌에서는 서리가 자주 일어났고, 놀이처럼 재미 삼아 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당시 인계동에서도 서리같은 일이 일상처럼 일어났던 것이다. 그런 시절이다 보니 인심 사납게 서리꾼을 잡을 수도 없었지만, 일일이 쫓아다니고 잡기에도 힘든 지경이었다. 소소하게 주변 사람들의 손을 타는 것이었지만 과수원으로서 손실이 커졌다. 큰 벌이도 안 되는데 손실은 자꾸 생겼으므로 결국은 과수원도 계속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1970년부터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으로 치면 1975년까지 하고 접었으니 5년 정도 한 셈이다.

## 우시장 가는 길목의 왓자한 풍경

홍영식이 어릴 때 마을에서 보고 겪은 일 중에서 잊지 못할 기억은 우시장 가는 길의 장면들이다. 홍영식의 집 대문 밖의 길이 우시장으로 가는 길목이었던 것이다. 수원우시장은 인근에서도 큰 시장이었으니 장이 서는 날이면 이 길목을 지나가는 행렬로 왓자지껄 붐볐다고 한다. 이곳은 우시장을 가기 위해 ‘태장면고개’ 너머 오산 쪽에서 오는 사람까지 통과해야 하는 길목이다.

길은 소 두 마리가 몸을 비비며 겨우 지나갈 정도의 폭을 가진 조붓한 흙길이었다. 마차까지는 다닐 수 없는 정도의 길이였지만 우시장 가는 길목이라 주막까지 있었다. 우시장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 바로 주막 같은 곳이 아닌가. 소를 사고파는 등 시장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면 주머니가 두둑한 사람이 많았을 것이고,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주막을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었다. 그런 길목에 주막까지 있었으



1970년대 영화동 수원우시장의 장날 풍경(수원박물관 제공)

니 ‘텃세’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렸다. 주막에 바친 술값 등속을 일종의 ‘텃세’로 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길목에 세를 내고서야 집으로 갔을 법하다. 때로는 대농고 텃세를 내고 지나가게 한 것 같기도 하다.

우시장이 서는 날이면 사람들 소리와 소 지나는 소리 등이 번잡하게 길에 넘치곤 했다. 소가 지나가는 길이면 으레 투레질이나 소똥이 있고 그 냄새가 나게 마련이라 좁은 길이 이런저런 소리와 냄새들로 왁자해지는 것이었다. 어린 마음에 뛰어나와서 소들이나 소 몰고 가는 사람들 구경만 해도 흥미진진한 모습이었다.

### 학창시절, 인계동과 남문에서 놀다

홍영식이 어린 시절 놀이를 돌아보면 먼저 자치기가 떠오른다. 그 시절은 특별한 놀이



1970년대 초반 남문 중앙극장 주변(수원박물관 제공)

랄 게 없었으므로 추수 마친 논밭이나 길에서 자치기를 하며 놀고는 했다. 밥 흠쳐 먹기도 한참 동안 즐긴 놀이 중의 하나다. 정월 대보름 전날 저녁 오곡밥을 지어 먹고 나서 동네 돌며 밥 흠쳐 먹는 놀이가 있었다. 어린 시절에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많이 즐겼다고 한다. 밥을 얻어도 되지만 얻는 것보다 흠치는 데서 맛보는 떨림이나 공모(共謀)에서 나누는 색다른 스릴이 겹쳐 잊을 수 없는 놀이로 기억된다.

정월 대보름달이 뜨는 저녁이면 깡통에 불을 담아 돌리던 ‘망우리’가 신나는 놀이였다. 쥐불놀이며 달집태우기를 하거나 불을 일부러 놓아 그 불씨를 빈 깡통에 담아 돌리는 놀이는 남자아이들이 하던 놀이다. 누가 불을 안 꺼트리고 그림같이 잘 돌리느냐에 따라 장관이 연출되었다.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의 하나로 농사를 짓던 마을이면 어디서나 하던 추억의 놀이를 인계동에서도 했던 것이다.

홍영식은 학창시절을 평범하게 보냈는데 술에 대한 기억은 풍부한 편이다. 중학생 시절부터 술을 즐겨 마시며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시간이 잦았다. 당시는 중학생이라도 남학생들은 술 마시는 것쯤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가끔 여학생들과도 술을 마시면서 어울렸다고 한다. 만두집에서 만두나 단무지 하나 놓고 ‘배갈’을 ‘도꾸리(とくり, 목이 긴 조막병을 뜻하는 일본어)’로 마신 기억이 많다.

모임 이름도 재미있게 지어서 놀았다. 홍영식이 다니던 수원중학교 학생들 모임은 '위커 클럽'이었고, 수원여자중학교 모임은 '세븐클럽'이나 '파스클럽'이었다고 한다. 친구들이 모여서 놀았던 곳은 주로 남문 근처였는데, 그 위 지역인 북문 쪽으로는 진출을 할 수도 없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북문파'가 너무 썩기 때문이었다. 남문을 중심으로 놀던 '남문파'는 자신들의 구역에 들어 있어 괜찮았지만, 북문을 중심으로 놀던 '북문파'는 드센 데다 남의 구역이니 남문 이상의 북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삼갔던 것이다.

영화도 수원극장이나 중앙극장에서 보곤 했다. 외국 영화 개봉관으로 일찍 자리 잡은 중앙극장에서 주로 영화를 봤다고 한다. 중앙극장 지하에는 중앙다방이 있어서 거기를 갔던 기억도 꽤 있다. 음악다방이라는 이름을 많이 내걸고 멋을 한껏 부린 '디제이'가 가요나 외국 팝송 같은 신청곡을 받아 틀어주던 시절의 다방 나들이였다.

## 인계동을 안 떠난 수원 토박이

홍영식은 수원공업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실습을 나가 그곳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삼성전자 근처에 있는 중소기업 '동산토건'으로 실습을 나갔는데, 그대로 첫 직장이 되어 동산토건에서 근무를 하게 된 것이다. 그즈음 공업고등학교 3학년생들은 2학기만 되면 거의 다 현장으로 실습을 나갔다. 산업화 가속도가 붙은 때라 젊은이들의 실습이 급했고, 실습이 곧 취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시절이다. 홍영식의 경우도 그러했다.

1975년이 되자 다른 직장을 잡기로 했다. 선경직물주식회사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으니 인생의 청년기를 다 보낸 셈이다. 선경직물은 실습이 취직으로 이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보면 홍영식의 첫 직장이 된다. 당시 섬유회사나 방직공장들은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맞교대 근무를 했다. 기계를 세울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인데 일도 그만큼 많았던 많은 회사들이 맞교대를 하던 시절이라 장시간 노동이라는 개념도 없이 자연스럽게 규정에 따랐다고 한다.

처음 근무에는 8시간을 기준 잡아 790원의 일당이 책정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기에 맞교대의 특성상 초과 근무 수당이 붙게 되는데, 이것을 합쳐서 월급으로 3만 5,000원 받았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의 월급으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일요일도 24시간 근무가 예사인 직장이었으니 놀 수 있는 여유 시간은 늘 부족한 편



선경직물 수원공장 직장민방위대 발대식(1975년, 수원박물관 제공)

이었다.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맞교대 근무라는 구조에 적응해 살다 보면 돈을 쓸 일도 별로 없게 된다. 당시 사회 분위기도 레저니 취미니 하는 여가 생활을 즐기기보다는 근대화며 경제개발 등을 강조하던 터라 산업 역군 같은 역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했던 것 같다. 홍영식은 회사와 집을 바쁘게 오가는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보냈다.

1982년은 결혼으로 홍영식 인생에 큰 전환점을 이루는 해다. 26세가 되던 해에 결혼을 한 것인데, 부인과는 중매로 만났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처음 떠나는 것은 이때 분가를 하면서다. 신혼살림은 500만 원 전세로 태장면고개에 있는 집에 차렸다. 방 2개에 부엌이 있는 셋방이지만, 2층 전체를 사용했으니 독채 전세나 다름없었다.

결혼 후 아들과 딸을 낳아 무탈하게 잘 키웠다. 아들은 이즈음의 만혼들에 비하면 제 때 결혼을 했으니 홍영식은 다복한 셈이다. 전세에서 내 집 마련까지는 대부분 큰 고비가 되는데 홍영식은 그런 집 장만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인계동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살게 된 것이다. 1996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은 어머니만 모시고 산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당시만 해도 어느 집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모여서 서로 돕는 상부상조가 마을의 전통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홍영식은 자가용 구입이 무슨 유행처럼 전국을 휩쓸 때도 별로 개의치 않아서 차를 조금 늦게 구입했다. 1998년에 승용차를 살 정도였으니 여유 있는 생활에 비하면 퍽 늦은

편이다. 이유는 인계동이라는 곳에 살면 웬만한 볼일을 걸어 다니며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문이 '수원의 1번지'이던 시절이라 자신의 구역처럼 자란 남문 쪽으로 나가는 게 다반사였는데 걸어도 금방 닿을 거리였으니 굳이 승용차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자가용 승용차가 더 필요한 여행 같은 취미도 딱히 가진 것이 아니어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던 듯하다. 당시는 회사 다니기 바빠서 여가를 즐길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도 이유겠다. 초·중·고교를 모두 걸어서 다닐 정도의 가까운 거리로만 다녔으니 멀리 나가는 일이 본인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도 않았던 게다. 그런 성장과정에 비추어 보면 홍영식은 인계동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자신이 살아온 마을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인계동 토박이답게 살아온 사람이다.

1988년 선경직물에서 명예퇴직을 한 후, 홍영식은 세차장을 열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도로가 나면서 세차장이 수용되는 바람에 접을 수밖에 없었다. 마침 아버지가 아프셔서 일을 하기에 힘들어졌으니 사업을 접을 사정이 겹친 것이다. 그 후로는 상가를 지어 임대업을 하며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 온 편이다. 파출소나 동 주민센터 같은 데서 마을에 대한 봉사를 하거나 책임자의 자리에서 일을 보며 여전히 인계동 주민의 생활을 하고 있다. 요즘 가장 즐겁게 다니는 곳은 산악회다. 회장을 맡기도 했던 모임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산을 찾는데, 한 40명 정도 고정적으로 나오는 회원들과 산행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감나무집 홍시에 비친 인계동의 노을

홍영식의 집은 1977년에 지은 2층 양옥으로 주변에서 흔히 보는 1970년대식 가옥 형태를 띠고 있다. 2003년에 집을 고치긴 했지만 한 집에서 40년 이상을 살았으니 단독주택의 힘을 잘 보여 준다. 아파트라면 40년 이상을 한 집에서 살기가 쉽지 않으니 말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집은 이제 헐리게 된다.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아파트 단지로 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홍영식의 아담한 이층집은 일명 '감나무집'으로 불려 왔다. 한 20년 전쯤 대문 옆 뜰에 심은 감나무가 같이 살아왔기 때문이다. 해마다 감이 제법 많이 열려서 집안 식구는 물론 동네 사람들과도 나눠 먹기 좋았다고 한다. 웬만큼 감이 열린 해면 한 500~600개 정도는 좋이 땀다고 한다. 그렇게 땀 감은 동네 사람과도 나눠 먹었다니 후덕한 감나무집 인심을 이어오는 데 감나무 한 그루가 꽤 큰 역할을 한 셈이다. 감의 좋은 '대봉'으로 홍시로



감나무집 전경

익히거나 향아리 같은 데 넣어 두고 먹기에 좋은 감이다. 홍시는 홍시대로 식구들이 먹고, 남은 감은 다시 꽃감을 만들어 먹었다. 인상적으로 남은 일은 동네잔치가 있을 때 감나무집에서 감을 내어놓아서 다 같이 나눠 먹었다는 사실이다. 더 아름다운 일로 남겨야 할 것은 꽃감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가 제사 지내는 집이 있으면 갖다 주었다는 것이다. 예(禮)를 아는 마을의 전통이자 예 중에서도 제(祭)에 대한 예를 아무렇지도 않게 실천해 온 것으로 오래 기억될 인계동 감나무집의 훈훈한 모습이다.

올해는 인계동 재개발의 영향인지 모르지만 소출이 많이 줄어 200개 정도를 땀다고 한다. 나무도 사람들의 온기와 살림의 훈기가 있어야 더불어 잘사는 식구 같은 생명임을 다시 보여 주는 예라 하겠다. 감나무는 주로 울타리 안쪽에 심어놓고 같이 살아온 역사를 지닌 식구 같은 나무다. 그런 감나무들은 주인이 떠나고 나서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몇 년 안에 말라죽는다. 홍영식네 감나무 역시 그런 전철을 밟을 듯해서 저녁노을을 받고 있는 감나무가 보는 사람 마음도 덩달아 짙해지게 한다.

전통을 죽 지켜온 감나무집의 마지막 노을. 아직 따지 못 한 감이 발강게 익은 채 늦가을의 노을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2층 처마에는 소임이 더 남았다는 듯, 꽃감이 발강게 저의 단맛을 높이고 있었다. 곧 헐릴 집이지만 아직은 살아 있는 감나무집의 정겨운 모습이 다.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는 전통을 아는 그 감나무집의 마지막 가을 풍경이다.

두리

인계동은  
고향이나 마찬가지로



김  
동  
영



김 미 엽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사업적 안목과 넉넉함을 갖춘 인계경로당 회장님 김동영



### 헌병이 된 하우스보이

김동영은 1934년생으로, 고향은 경기도 용인 구성면이다. 김동영의 증조부는 충청남도 당진에 계셨지만 조부 대부터 구성면으로 옮겨 왔고, 부모님도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셨다. 어머니는 10남매를 낳으셨는데 어릴 때 많이 잃었고 김동영을 포함해 3남매가 자라났다. 그가 8세 되던 해인 1942년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춘천에 살던 큰아버지 덕으로 이사를 갔다. 춘천에서 서당에 다니다가 춘천국민학교에 입학했다. 중학교에 다니다가 해방이 되자 김동영의 가족은 다시 용인으로 돌아왔다.

김동영 당시 국민학교는 왜정시대라, 일본인이나 공부 잘하는 아이만 들어갔지. 나중에 들으니 큰아버지가 학교에 쌀 한가마니를 주고 나를 학교에 넣었다고 …….

1950년 6·25전쟁이 발발했다. 당시 형님은 군대에 있었고 누님은 결혼한 상태였다. 바로 피난을 가지 못하고 있다가 1·4후퇴 때 어머니를 모시고 용인 백암으로 가서 청주를 거쳐 금강 근처까지 피난을 갔다. 김동영은 호적 나이가 실제보다 1살 어린 16세였기 때문에



미군 하우스보이(1950년대, 수원박물관 제공)

학도병으로 나가지 않았다. 한 달여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기흥의 지곡리에서 목격한 폭격의 참상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 전쟁의 기억이다.

6·25전쟁이 끝나고 김동영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친구들과 의기투합해서 서울행을 단행하였다. 서울에 올라가서 찾아간 곳이 삼각지에 있는 미8군 본부였던 것 같다. 그곳에서 '하우스보이'라고 부르던 미군 군속(軍屬) 모집에 응시하였다. 다행히 군속으로 선발된 김동영은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 부근에 있던 제9군단 휴양소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나 제대로 된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었고, 청소나 잡무를 담당하고 받는 팁(tip)으로 생활하였다.

생활력이 강했던 김동영은 팁을 모아 장사를 시작하였다.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미군 PX에서 비누나 치약 같은 물건을 구입해서 가지고 나와 일반인들에게 팔았다. 카메라를 팔기도 하였다. 6·25전쟁으로 물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미군이 사용하는 물건은 일반인들에게는 신문명이었다. 당시는 치약이 박하사탕인 줄 알고 빨아먹는 노인이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하우스보이로 4년간 생활하다가 김동영은 군 입대를 결심하였다. 마침 민간 직업하사관

2기를 선발하는 시험이 있어 지원하여 10:1의 경쟁을 뚫고 합격하였다. 합격자 1/2 이상이 지원한 헌병에 지원해서 대구 헌병학교에 입학, 헌병 제60기로 졸업 후 직업군인이 되었다.

김동영 하우스보이로 생활하다 보니 군대 가는 걸 미루게 되는 거야. 그 당시에는 군대를 안 가는 길도 많았거든. 그러다 보니 괜히 병역기피자라는 생각도 들고 …….

그러나 3년 만에 안정적인고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군인을 그만두었다. 전쟁 직후이고 국비로 교육까지 받아 쉽게 전역할 수 없는, 혹은 '아예 전역이 불가능한' 직업 헌병에서 전역한 것이다. 헌병이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동영 당시, 운이 좋아서 육군본부 헌병대에 파견돼서 근무했지. 자유당 때는 다 그랬는데, 헌병이라는 게 군인들에게 법을 집행하는 건데(중략) 근무하고 들어오면 일정액을 상납해야 되는 거야. 돌아가는 걸 살펴보니, 이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사과에 있는 동기에게 청을 넣어가지고 나왔지.

## 1962년 인계동에 터를 잡다

1960년 27세의 김동영은 '중사에서 병장으로 강등'이라는 제대특명을 받고 제대하였다. 그리고 장사를 시작하였다. 군대를 가기 전에, 전쟁 때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누님과 수원 영동시장에서 포목점을 운영하였다. 밑천은 하우스보이 시절 모아 둔 돈이었다. 하지만 첫 장사는 실패를 했고, 이후에 멸치·오징어·조기 같은 수산물을 받아다가 파는 장사를 했다. 그때 경험이 제대 후에 장사하는 데 기반이 되었다.

김동영은 전역 후에 건어물 장사를 시작하였다. 수인선을 타고 군자역 근처 잿머리에서 새우를 구입하여 수원에 와서 판매하였다. 당시는 수화물에도 요금을 부과하였다. 그래서 열차가 수원역 구내에 들어오기 전에 커다란 새우뭉치를 굴러서 떨어뜨린 다음 표를 내고 나와서 찾으러 갔다. 본격적으로 건어물 장사에 나서면서 전국의 장(場)을 돌아다니며 판매하기도 했다.

군지역에서 수인선을 기다리는 행상들(1970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제공)



김동영 수인선을 타고 가다 보면 군자라는 역이 있어. 지금도 군자라고 있더라구. 거기서 왼쪽으로 돌아가면 잿머리라는 데서 새우를 팔리는 곳이 있어. 이게 보리새우지. 당시 사람들은 그걸 가져다 팔 줄을 모르더라구. 다만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 오면 그 자리에서만 팔고. 그래서 내가 그걸 사다가 수원에 가져와서 팔았어. 지금으로 치면 250원에서 사서 500원에 팔았지. 곱 장사였어. 그게 아주 가벼워. 그래서 내가 자루를 마련해 가서 대여섯 개에 넣어 오다가 수원역에 도착하기 직전 그걸 굴러서 떨어놓고는 차표를 내고 나와 포대를 찾아서 팔았지. 나중에는 잿머리에 마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길마라고, 소에다 물건을 쌓아서 옮겨 왔어. 수원 건어물 상회에 다 위탁 판매를 했었지.

김동영은 1961년 1월에 친척의 소개로 결혼을 하였다. 용인 포곡면에 있는 처갓집까지 건어물 장사용으로 사용하던 트럭을 타고 가서 혼례를 치르고 왔다. 부인이 혼수로 해 온 장롱은 형님 댁에 두고 수원으로 나와서 매향동에 월세로 신혼집을 마련하였다. 나올 때 장리쌀 한 가마를 얻어 가지고 왔다. 매향동에서 교동으로 이사하였고 이후에도 이사는 계속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여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마련하였다. 돈을 모으고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아내도 일을 했다.

1962년 인계동으로 이사하였다. 인계동에 살면서 결혼한 지 6년 만에, 8번의 이사 끝에 집을 마련하였다. 지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한약방 집이었다. 당시만 해도 김동영의 집은 '수원 맨 끝자락'이었다. 1960년대 수원의 중심지는 팔달문과 수원역 일대로 인계동은 도시 외곽이었다. 인계동은 수려선 화성역 근처의 인계본동에 상가와 주택이 모여 있었다. 김동영이 매입한 집은 인계본동에서 가장 안쪽인 망두산 근처였으니 수원의 맨 끝자락이라고 할 만 했다. 현재 패밀리에아파트가 들어선 망두산은 심씨네 종산이었는데, 분노를 각자 알아서 처리하던 시절에는 동네 사람들이 집안의 분노를 망두산 주변에 땅을 파서 묻기도 했다.



공장과 살림집을 겸한 김동영의 3층 양옥(1980년대, 김동영 제공)

김동영 인계동에 들어올 땐, 수원의 맨 끝자락이었지. 온통 밭이었다구. 여기, 사람들이 살지 않아서 수원의 뚱오줌을 갖다 버리는 곳이었어. 그리고 1978년에는 향원아파트가 들어섰지. 그 향원아파트는 지금 파밀리에아파트가 된 거지.

## ‘수성우비’ 사장님

김동영은 1980년에 단층집을 허물고 3층 양옥을 신축하였다. 반지하식 1층과 지상 2층으로 된 건물이었는데 1층은 공장으로, 2층은 살림집으로, 3층은 원단과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 사업을 정리한 후에는 1층은 상가를 만들어 세를 주었고, 3층도 세를 놓았다.

1980년대 들어서 김동영은 건어물 장사를 그만두고 의류 봉제업을 시작하였다. 처음에

는 재단하고 남은 천을 가져다가 팬티나 덧버선을 만드는 ‘쫓가리 장사’를 하다가, 요꼬 편직기계 20대를 두고 1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스웨터와 바지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수출도 하였다. 이후 김동영은 우비 제작에 들어갔다. 색색의 신축성 있는 비닐이 처음 출시된 것을 보고 영동시장에서 비닐 소재를 사다가 재봉틀로 박아 아동용 우비를 제작해서 판매했다. 반지하식 1층이 공장으로 활용되었다.

김동영은 우비를 제작하면서 직접 재단을 하였다. 또한 판매를 하면서 제품의 문제가 무엇인가도 세심하게 살폈다. 재단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어 재단 방식을 바꾸어 보았고, 이후 소재에도 변화를 주었다. 그러다가 비닐만 사용하는 일반적 우비 대신, 옷을 제작하고 그 위에 방수 코팅을 하는 군대용 판초(poncho)에 주목하였다. 그는 코팅 업체를 찾아가서 코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원단을 자신에게 넘겨주도록 영업을 하였다. 그건 6·25전쟁을 겪고 하우스보이를 하면서 얻은 사회적 이력도 작용하였지만, 제대 이후 장사를 통해 축적한 그만의 사업적 노하우였다. 제품이 잘 팔려서 직원을 15명까지 늘리기도 했다. 나중에는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회사명을 ‘수성우비’라고 하였다. 어부들이 조업할 때 입는 방수바지는 당시 김동영이 처음 선보인 것이라고 한다. ‘수성우비’의 제품들은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지게 되었고, 지방에서는 미리 대금을 지불하고 다음해 봄에 물건을 가져갔다. 일은 바쁘고 힘은 들었지만 돈도 들어왔다.

김동영 집사람은 물론이고, 바쁠 때는 아이들도 학교 가기 전이나 학교 갔다 와서 단춧구멍 기계를 돌렸어.

김동영은 사업을 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하지만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돈을 받을 때도, 돈을 줄 때도 상대방에게 넉넉하게 술을 샀다고 한다. 인간관계에 공을 들이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김동영의 사업적 안목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우비를 재단할 때 우비에서 가장 먼저 손상되어 결국 버리게 되는 곳을 발견하여 재단 방법을 달리 한 것이나 우비의 원단을 좋은 것으로 선점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한 걸 보면 그렇다.

그 당시 김동영은 꽤 많은 자산을 축적하였다.

김동영 당시 고등학교 다니던 막내가 운동 선수였는데 갑자기 아파서 대학 병원에 입원해서 1년 동안 치료를 받았어. 의료보험도 없던 시절이라 한 번에 병원비로 1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도 돈이 모자라지 않았지. 안사람도 고려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고 치료



문 닫은 수성우비. 김동영은 공장을 그만둔 후 1층은 점포로 임대하였다.

받을 만큼 돈은 벌었나 봐.

성장가도를 달리던 사업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힘들어졌다. 그의 나이도 60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슬하의 5남매도 학교 공부를 마치고 자리를 잡기 시작했으며, 달려오던 그의 생활도 숨을 고르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1992년 8월 중국과 정식 수교가 이루어지자,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한 중국산 제품이 대량으로 수입되었다. 김동영이 제작하고 있던 우비의 경우 대부분 값싼 인건비로 인해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그에게도 인건비를 포함한 생산비가 문제되었다. 중국에 공장을 건설할 테니 우비 제작 기술을 제공하라는 투자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하였다. 가볍게 해외에 투자하기에는 여러 위험이 있었음을 알고 있기에 결국 가족들과 의논 끝에 공장 경영을 그만하고 값비싼 기계는 매도하기로 했다.

### 경로당 봉사와 종친회에 매진하다

사업을 정리하기 전 김동영은 우연하게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게 되었다. 연안 김씨인 그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춘천으로 이주했다. 해방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곧 6·25전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고, 형님도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먹고살기가 바빠서' 자신의 뿌리를 찾을 생각도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결혼식 때 처갓집 친척이 김동영의 집안에 대해 물었을 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일을 겪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 나의 집안을 찾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의류 봉제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 하청을 받아 일하던 아주머니의 남편이 부인 대신 납품하러 왔다가 김동영의 집 문패를 보면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서성거리는 이유를 물어보니, 이름의 '영'자에 삼수변[巛]을 쓰는 게 자신의 집안과 비슷하다며 혹시 연안 김씨가 아닌지 물었다. 그 사람을 통해 서울에 있는 연안 김씨 종친회를 찾아갔고, 족보에서 아버지의 함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름을 지을 때 돌림자를 쓰기 때문에 비슷한 이름이 많아 처음에는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할머니가 드문 성씨인 곡부 공씨였기에 찾을 수 있었고, 족보에는 김동영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의 이름자가 기록되어 있었다.

연안 김씨 종친회에서 사무를 보던 김동영의 사종(四從)형님이 그동안 김동영네를 수소문하고 있었다고 했다. 김동영이 종친회를 찾아간 날 지방에 갔던 사종형님은 소식을



인계동경로당 회원들(2010년대, 김동영 제공)

듣고서 다음 날 인계동 집으로 찾아왔다. 두 사람은 서로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 이후 김동영은 시간이 되는 대로 종친회 일을 하였다. 당시 사업도 정상궤도에 있었기에 사심 없이 자신의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종친회 일을 도왔다.

1992년 사업체를 정리한 김동영은 그동안 일에 몰두한 것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전국의 섬을 찾아 낚시여행을 다녔다. 그리고 인계동경로당의 일을 맡았다.

김동영 환갑이 갓 넘어 경로당에 들어갔더니 내가 제일 젊어. 경로당에 모두 친구 아버지들이 계셨지. 그래서 내가 총무가 된 거야.

인계동에 들어왔을 때 30세가 채 안 되었고, 경로당 일을 보기 시작한 것이 60세 때였으니, 경로당에 동네 친구 아버지들이 계신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김동영은 경로당 총무가 되자 인계동의 유희지를 빌려 텃밭 농사를 지었다. 파밀리에 아파트 정문 맞은편에 있는 마트 아래쪽이 경로당 노인들의 텃밭이었다. 경로당의 부식

재료는 대부분 텃밭에서 키워 먹었다고 한다. 김동영의 부지런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총무부터 시작한 김동영은 이후 부회장과 회장을 맡아 2014년까지 봉사하였다. 60세부터 경로당에서 활동하였는데, 2018년이면 24년째이다. 팔달10구역 재개발로 인해 김동영은 현재 권선동으로 이주해서 살면서도 1주에 2~3번 인계동경로당으로 나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인계동경로당은 인계동에서 가장 먼저 생긴 경로당이다. 현재 팔달새마을금고 인계1지점 옆 자리가 마을 재산이었는데 그걸 팔고 주민들의 기부를 받아 1981년에 2층 양옥으로 경로당을 지었다. 40년 가까이 한 자리에 서 있던 인계동경로당도 재개발로 인해 인계초등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다. 보상금으로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했다.

김동영에게 인계동은 제2의 고향이다. 지금까지 57년을 인계동에서 살았다. 인계동 들어와서 시작한 사업이 잘 되어 자리를 잡았고, 어머님도 85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인계동에서 사셨다. 자녀들도 모두 인계초등학교를 다녔다. 인계동에 사는 동안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결국 자수성가하였고 어느덧 11명의 손주를 둔 할아버지가 되었다.

김동영은 고난에 대한 반대급부로 재산에 집착하지 않으려 했다. 배움이 짧았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사업이 잘 되었다고 내세우려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사업도, 종친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이제는 담담하게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뿐이다.

김동영 이제 내 나이 85세인데. 무얼 더 욕심을 내 …….

김  
창  
현



김 미 엽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추억의 주크박스, 인계동 탱자나무집 외아들 김창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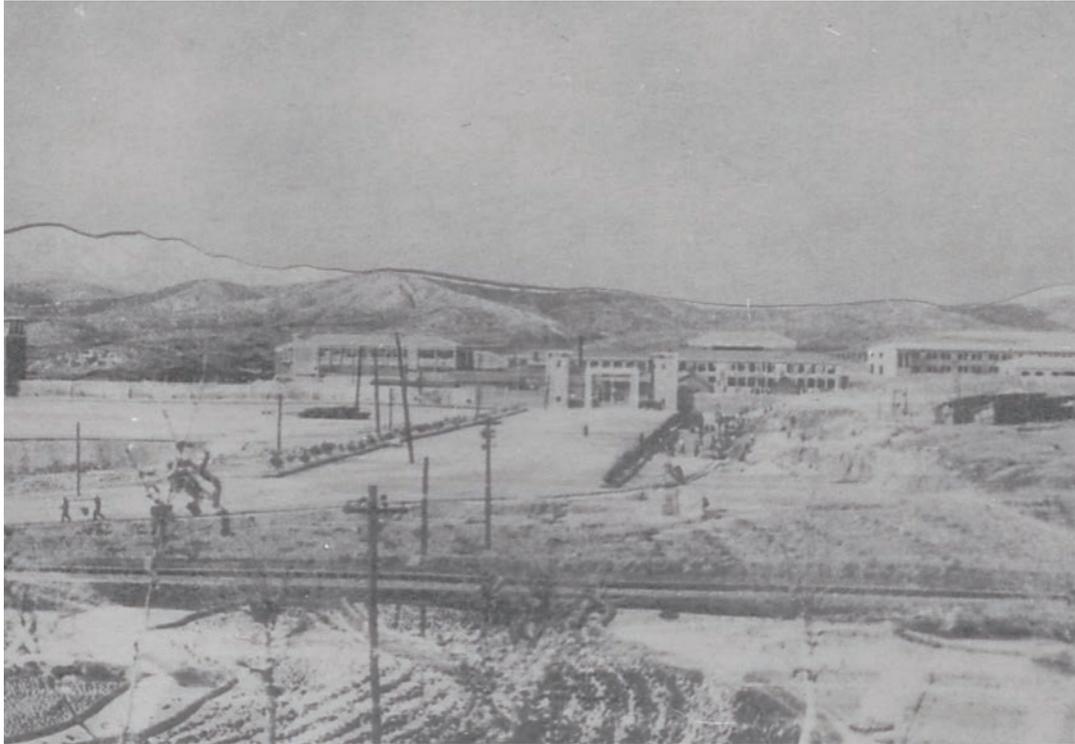


만약 우리가 한 마을에서 50년을 살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 마을은 50년 동안 변천에 변천을 거듭하여 옛 모습을 찾을 수 없다.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기차길은 이제 흔적조차 없고, 좁은 골목길은 신작로가 되었으며, 논밭이었던 곳은 주택들이 가득 들어섰다. 이런 경우 우리는 한 시대 혹은 학교를 다니던 때 -한 예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큰 길과 상점 등을 중심으로 동네 지도를 그릴 수 있을까. 인계동에서 60년을 넘게 산 김창현은 수려선이 다니던 그 시절 화성역 일대와 인계본동의 마을지도를 지금도 그릴 수 있다.

### 1950년 1월 우만동에서 태어났어요

김창현은 1950년 1월에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서울 서대문 영천 출신이고 어머니는 경기도 고양 출신이다. 아버지는 교도소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대한검도협회 창설에 참여하였다. 김창현이 태어난 곳은 당시 수원교도소 관사로 현재 우만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가 있는 곳이다.

아버지가 수원교도소에서 근무 중이었고, 김창현이 태어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1950년대 후반 수원교도소 전경(시사통신 수원지사, 『수원의 역정』, 1960). 김창현은 교도소 관사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냈다.

6·25전쟁이 나자 어머니는 산후조리도 잘 못한 채 갓난아이를 데리고 피난 갈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전쟁 휴전 후 아버지는 다시 일에 복귀하였고, 덕분에 교도소 관사에 살았던 김창현은 교도소 수감자들과 놀면서 자라났다고 한다.

**김창현**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점호를 받을 때 나도 같이 서서 점호를 받았어. 당시 3살 정도 되었지 아마. 어린아이이기에 비록 죄수라도 두고 온 자식 생각을 해서인지 모두 귀여워 해주었어.

5살 무렵 서울 필동에 사는 이모 댁에 갔다가 아이들끼리 남대문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도중에 길을 몰라서 헤매다가 김창현이 대표로 지나가는 경찰에게 집을 찾아 달라고 부탁을 했다. 제복을 입은 아버지와 교도관들을 매일 보아서 그린지 타고난 기질 탓인지 김창현은 경찰이 두렵지 않았다고 한다.

김창현은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전형적인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5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아주 어렵게 낳은 독자였기 때문에 형제가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다. 더욱이 친구들과 골목에서 놀다가 사소한 문제로 싸우게 되었을 때, 어느 새인가 친구들의 누나나 형이 나타나 편을 들어주는 모습은 부러움을 넘어 선망의 대상이었다. 이에 그는 외동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친구들이 내편이 되도록 노력했다. 그것이 어느새 김창현에게는 사회생활의 규칙이 되었다.

김창현은 1959년 지동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9세 때였다.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호적에는 195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일로 바쁘시고 어머니는 글을 모르셨고, 더구나 6·25전쟁이 발발한 상태에서 아이의 출생신고가 안중에 들어올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1960년대 이후에도 출생신고를 늦게 한 경우가 다반사이니, 1950년대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9세에 학교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김창현에게는 성숙함과 약간의 강박을 주었다. 나이와 서열이 아직도 강조되는 한국 사회에서, 유복한 어린 시절과 늦은 입학은 어쩌면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그에게 부여해 주었는지도 모른다.

1964년 인계초등학교가 개교를 하자 친구들의 대부분이 인계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1960년대 이후 수원의 도심 인구가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에 인계초등학교를 개교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지동초등학교 분교로 시작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인계초등학교로 승격하였다. 당시 수려선 철길을 기준으로 하여, 철길의 북쪽에 거주하는 자신을 포함한 3명만 그대로 지동초등학교를 다니고, 철길 남쪽 거주자는 모두 인계초등학교로 배정되어서, 친구 대부분은 인계초등학교를 졸업했다. 현재 봄빛요양센터가 서 있는 곳이 김창현의 집터이다.

**김창현** 처음 인계국민학교가 개교하였지만, 위치는 지동국민학교 내에 별도로 있던 교실에서 공부를 했지. 그러니까 1년 공부하고 나중에 졸업만 인계국민학교에서 하고 …… 나는 친구 2명과 지동국민학교에 있었어. 처음엔 인계국민학교를 왜 개교하였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서 그런 거였더라구.

## 학창 시절과 수려선에 대한 추억

김창현에게는 수려선에 관한 추억이 많다. 수려선이 1972년에 폐선되었으니 그의 어린 시절을 포함하여 그의 나이 23세 때까지 수려선의 화성역은 늘 함께하였다.

**김창현** 수려선 화성역 철도가 문제가 많았지. 하루에 3~4번 밖에 다니지 않으니, 여름에 어르신들이 철로를 베고 주무시다가 사고가 난 적도 많았고. 한번은 화성역장님이 어린아이를 구하고 순직한 일도 있었어요. 우리 집이 화성역 사택 옆이기에 역장님 식구들과 가깝게 지냈지.

남자아이들은 수려선 기차가 운행할 때 장난을 치기도 하였다. 기차가 화성역을 지나 원천역으로 가는 길은 언덕을 낮추느라 깎았기에 양쪽이 둔덕을 이루고 좁은 골목을 지나듯 언덕을 오르면 오른쪽으로 수원공업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이제부터는 내리막길이였다. 김창현은 친구들과 기차가 언덕을 오를 때쯤 미리 긴 끈을 철로를 가로질러 기차 높

인계동을 지나는 수려선 철길(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철길 양쪽이 깎아지른 듯한 언덕이다.



이보다 높게 두었다. 기차가 천천히 오르면서 가로질러 놓은 끈에 화물칸에 쌓여 있던 석탄이 걸려서 떨어지면 친구들과 나누어가졌다. 기차 철로 위에 못 같은 것을 올려놓았다가 기차가 지나간 뒤 납작해진 것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놀기도 했다.

김창현은 1965년 수원남중학교에 입학하였다. 수원남중학교는 나중에 삼일중학교로 교명이 바뀌었다. 그리고 1968년 삼일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김창현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인계동은 팔달문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길(현 국도 42호선)과 신작로(현 국도 1호선)라고 불리는 성빈센트병원 쪽 길만 있었고, 대부분 골목이었다. 집들은 길을 따라 모여 있었고, 인계본동 쪽 이외에는 드문드문 집이 있을 뿐 대부분 논밭이었다.



어머니, 딸과 인계동 법흥사에서 찍은 사진이다.  
(1983년, 김창현 제공)

**김창현** 당시 인계동 부근에 학교가 몇 개 없었어. 수원중학교, 수원고등학교, 수원공고, 수원여고 ..... 수원중학교와 고등학교 넘어가는 길이 다 논이었고, 개천도 있어서 여름이면 그곳에서 놀았지.

김창현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일을 하였다. 처음에는 잡화를 취급하는 '신흥상회'를 운영하였고, 이후 '동일옥'이라는 음식점을 1975년까지 운영하였다. 동일옥은 국도 42호선 도로변 지동시장 쪽에 있었다. 1972년 수려선이 폐선되고 화성역이 없어진 후 그 자리에 청과물시장이 들어왔다. 화성역 근처였던 지금의 아울렛 자리는 화물차 주차장이 되었다. 수원의 모든 화물이 집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물차가 많이 드나들었다. 마차와 우마차도 짐을 실어 날랐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통근버스들이 정차해서 사람들을 태우고 내렸다. 인계동의 전성시대였다.

김창현 화춘옥이라는 식당에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하셔서 유명해졌지. 우리 집은 동일옥, 국밥을 잘했어. 한때 장사가 잘될 땐 경찰이 와서 교통정리를 해 주었지. 또 한 번은 불이 났어. 그런데 주방이 안과 밖에 있다 보니 한쪽에서는 불을 끄고, 한쪽에서는 음식을 만들었지. 그 정도로 가게가 바빴다는 게지.

김창현은 학교를 다니면서 틈틈이 어머니의 일을 도왔다. 어머니는 동일옥에서 순댓국을 포함한 여러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였지만, 그 중 기억나는 것은 수원비행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판매한 것이다. 동일옥 앞이 바로 공군 버스정류장이었고 당시 인계동 주변에 공군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아침에 도시락을 만들어 쌓아 놓으면 비행장으로 출근하는 군인들이 차례차례 가져갔다고 한다. 퇴근길에는 빈 도시락을 식당에 갖다 주었다. 힘은 들었지만 그만큼 돈도 잘 벌렸다.

김창현은 친구들과 잘 어울렸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1960년대 후반부터 수원이 한창 산업화에 들어서면서 여기저기 공장들이 생겨났다. 부모님이 신발 공장을 하는 친구에게서는 신발을 얻어 신기도 하였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교복을 새로 맞추어 입기도 했다. 그 때 수원의 학생들은 남문에 있는 빵집으로 몰려다니곤 했다. '평창제과'와 '뉴욕제과'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던 빵집이었다. 김창현은 지금도 당시에 있었던 동네 상점의 위치와 친구들의 소소한 행적까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동전을 넣으면 지정된 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주크박스처럼 인계동이라는 단추를 누르면 마을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낼 수도 있다.

## 직업군인, 그리고 결혼

김창현은 삼일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였다. 육군3사관학교는 입학식을 앞두고 2주간 훈련을 받는 규정이 있었다. 첫 훈련을 받고 귀가를 앞둔 시점, 교관이 이유 없이 단체로 기합을 주었고 혈기왕성하던 김창현은 부당한 체벌에 대해 항의하였다. 결국 그는 이 일로 합격이 취소되어 군에 입대해야 했다. 다행히 얼마 후에 공군 선발시험이 있어서 응시했고 합격을 하였다.

김창현 귀가는 해야 하고 그렇다고 집에 가야 식구들이 놀랄 것이고, 마침 군대를 가기 전인



공군 복무 시절(1976년, 김창현 제공)



김창현 부부의 원천유원지 데이트(1977년, 김창현 제공)



탱자나무집 앞 골목에서 노는 김창현의 자녀들(1982년, 김창현 제공). 이 골목길은 수려선 철길이 지나던 곳이다.

데 공군에서 시험이 있었어. 그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바로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서 당시 서울에 사시는 이모님 댁에 가서 지내다가 군대에 갔지. 얼마 후 군대에서 면회를 오라는 통지를 하니, 사관학교 갔다고 생각한 부모님이 많이 놀라셨지.

김창현은 규율을 준수하는 직업이 기질에 맞았던 것 같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도 규율부장을 맡아 교문 앞에서 학생들의 복장 및 행동을 점검하였다. 비록 희망했던 육군3사관학교에는 진학하지 못했지만, 바로 공군에 입대할 수 있었다. 공군 입대 후에 경호요원을 선발한다고 해서 운동을 좀 하고 지원했는데 그게 이어져서 직업군인의 길로 들어섰으니 말이다. 김창현은 1980년 초반에 공군 중사로 예편을 하였고, 1995년까지 예비군 부중대장으로 활동하였다.

김창현은 1975년에 아버지 지인의 중매로 결혼을 하였고 1남 1녀를 두었다. 결혼 후에

김창현은 직업군인 생활을 이어 갔고 부인은 어머니와 함께 동일옥을 운영하였다. 또한 방을 세 놓아 수익을 높였다.

김창현이 살았던 인계동 집은 1954년에 아버지가 지은 것으로 대지 100평이었다. 집을 지을 때 탱자나무를 심어서 김창현은 ‘탱자나무집 아들’이라고 불렸다. 마당이 넓다 보니 마당 한쪽에 사육장을 만들어서 가축을 먹였다. 1958년부터 1961년까지 닭 300마리, 돼지 6마리, 거위와 염소 한쌍을 키웠다. 닭을 키울 때는 계분을 모아 비료로 팔기도 하였다.

1966년쯤부터 가축을 키우던 건물에 12개의 방을 만들어서 세를 놓았다. 집 주변에 청과물 시장이 들어서고 화물차의 주차장이 생기면서 셋방의 수요가 많아졌다. 특히 화물차 주인이 조수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관행이었기에, 인계본동에서 월세 방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고 주변에 여관들도 많이 생겨났다.

**김창현** 그리고 세를 놓다 보니 여러 사람이 모이더군. 재미있는 건 유유상종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우리 집에 월세 들어오는 사람이 공장을 다니면 친구들을 불러 들어서 결국 월세에 공장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운전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다 운전하는 사람들로 월세가 찼어. 재미있지. 그렇게 서로 정보를 주고 연결해서 들어오더라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인계동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났던 것 같다.

**김창현** 지금은 수원공고 올라가는 길이 큰 길이지만, 당시에는 다 골목길이고 나무가 울창했지. 헌데 어느 날 아침 어느 처자가 나무에 목을 매어 죽었어. 동네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했지. 그런데 그 이후로 밤바다 어디선가 곡소리가 나는 게야. 당시 동네에 사람도 많이 살지 않았는데 울음소리까지 나니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했어. 결국 동네에서 굿을 하고 나니 그 다음부터 조용해졌어.

현재 인계동에는 점집들이 많이 있다. 예전에도 인계동에는 유명한 무당이 있었다고 한다.

**면담자** 아울렛 쪽에서 주민센터 쪽으로 올라오다 보니 점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계동에 터주 무당이 있었나요?

김창현 여기 인계동에는 나랏무당이 있었지. 여기 조산원 옆 최 무당이 나랏무당이었지. 나라에서 큰 곳을 할 때 전국의 유명한 무당들이 올라가서 하는데, 수원 대표로 최 무당이 올라갔어. 또 올라오다 보면 중국신을 맞이하였다는 중국만신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인계동 토박이로 알고 있어. 그리고 동네에 무당들이 많은 건, 그 최 무당이 신탄들을 키워 인계동에 자리한 것일 거야.

## 아버지의 뒤를 이은 사회봉사

결혼 직후부터 어머니 일을 도와 오던 김창현의 부인은 1980년대 들어서 가게를 운영하였다. 김창현도 직업군인에서 예편한 뒤 사회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1984년 인계본동에 위치한 집을 매매하고, 인계동사무소 뒤쪽으로 '인계동에서 인계동으로' 이사를 했다.

김창현은 40대였던 1990년대 후반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하여, 20여 년의 봉사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보다 전문적인 봉사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여 범죄 심리를 공부하였고, 명예보호관찰관 등으로 활동하였다. 수원시 마을만들기협의회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2019년이면 김창현은 70세가 된다. 나이만 보면 노년층에 속하지만 그는 여전히 청년처럼 활동하고 있다. 김창현은 피를 나눈 친형제는 없지만, 사회활동을 하면서 관계를 맺은 형제들이 많다. 대부분이 사회봉사를 통해서 맺어진 형제들이다. '내가 베풀면 어느새 그는 내 형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김창현은 청소년 선도를 위한 특강에 가면 20년 뒤를 내다보고 행동하고 먼저 베풀라는 말을 반드시 한다.

김창현은 1남 1녀의 아버지이자 한 사람의 남편으로 가정을 꾸리고 있다. 김창현의 인생 역정은 교정공무원의 아들, 고등학교 규율부장, 직업군인, 예비군 부중대장, 사회봉사자로 이어진다. 그의 사회봉사에서도 특히 명예보호관찰관으로 활동하는 교정 봉사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한 것 같다. 수원교도소 사택에서 지냈던 유년 시절의 경험과 교정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김창현은 직업으로서는 아니지만, 교정 봉사를 함으로써 아버지의 뒤를 잇고 있는 것이다.

김창현의 아버지는 남을 도울 때 반드시 자기 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아들에게 가르쳤다. 1950년대 아주 드문 외동아들로 태어나 성장한 김창현에게 형제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런 그에게 사회봉사는 혈연적인 가족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족을 만드는 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혈연에 기반을 둔 가족주의에 매몰되기보다는 나를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 활동 당시 김창현(2005년, 김창현 제공)

중심에 두어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태도를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더 많은 가족을 만들라는 가르침을 주셨을 것이다.

인계동이 개발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계동을 떠났다. 김창현도 잠시 인계동을 떠나 있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인계동에 들어와 새로운 이웃들과 좀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 승 연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 배달부 소년 모연환, 수원 시민의 심부름꾼이 되다



한국전쟁 직후 폐허 위에서 재건과 성장을 위해 몸부림치던 1950~1960년대, 인구도 경제규모도 지금처럼 크지 않던 수원엔 꿈을 크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다. 많은 이들이 더 나은 기회를 잡기 위해 수도권 서울로 향했지만, 골목을 지키며 꿈을 향해 착실히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이들도 많았다. 수원 중부에 위치한 인계동은 논밭 사이로 띄엄띄엄 주택이 들어서 있던 한산하고 다소 낙후된 동네였다. 마을의 소년·소녀들은 동네 산에 올라가 공을 차고 고무줄놀이를 하며 놀았고, 철길을 따라 걷는 등곶길에서 미래를 그렸다. 훗날 국회의원·과학자·영화배우가 되어 큰 성공을 이룰 거라 생각했고, 자신을 응원해 주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답하고 싶었다. 어린 시절의 원대한 포부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이는 극히 적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이들이 있기에 마을도 국가도 발전해 왔다.

해방 직후 인계동 골목 끄트머리 주택에 한 가족이 이사 왔다. 가정집의 일부를 점포로 만들어 쌀과 연탄을 취급하였는데, 이 집 장남은 동네를 누비며 집집마다 배달을 다녔다. 그 시절 평범한 대다수가 그러하듯 야간학교에 진학하여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한 집안의 기둥이 되었다. 성인이 되자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되어 수년간 수원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었다. 경제가 성장하던 시절, 사업에 성공하면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기자 인계동을

중심으로 각종 모임을 만들어 지역 활동에 힘쓰다가, 주민들의 성원을 발판 삼아 시의원으  
로 당선됐다. 수원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꿈을 키워온 공간을,  
늘 지지해 준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운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나  
이 여든을 목전에 둔 지금, 그는 여전히 인계동에 살고 있고 경로당의 문을 열고 닫으며 지  
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 새로운 기회, 인계동으로

모연환은 1941년생으로 수원군 동탄면 산척리에서 출생했다. 산척리는 현재 행정구역상  
화성시 산척동으로 동탄2신도시 개발지구에 소속되어 옛 모습이 사라진 동네이다. 모연환  
의 부모는 산척리 함평 모씨(咸平 牟氏) 집성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생활을 영위했  
는데, 농촌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발전한 곳은 아니었다. 그가 다섯 살 되던 1946년, 모연  
환의 가족은 수원 인계동으로 이사했다. 영동시장에서 어물전을 운영하던 집안사람이 있  
어서 정보도 얻고, 큰 시장을 의지해 장사를 시작하면 생활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주한 것이다. 모연환 가족들에게 인계동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다.

인계동은 한적하고 인구도 적은 농촌이었지만, 영동시장에 인접한 화성역 일대는 시장  
과 수려선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아 북적거리는 지역이었다. 당시 인계동 주민들 중에  
는 영동시장을 비롯한 남문 상권에 의지하여 생계를 이어 가던 이들이 제법 있었다. 시장  
물품을 운반하던 배달꾼, 지게꾼, 심부름꾼 등 주로 단순한 일용직들이었지만, 가족의 생  
계를 책임지는 소중한 일자리였다.

모연환 가족이 터를 잡은 곳은, 시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다. 논밭으로 둘  
려싸인 마을은 몇 채의 기와집을 제외하고 모두 초가집이었다. 모연환의 아버지는 마을의  
끄트머리에 집을 구하고, 집 한 편에 점포로 만들어 쌀장사를 시작했다. 쌀농사를 짓던 인  
계동 주민들은 모연환네 쌀가게에 쌀을 내면서 미리 알아본 시장 시세대로 값을 쳐 줄 것  
을 요구했다. 어쩔 수 없이 시장 시세에 맞추어 장사를 했다.

**모연환** 이 국도 외에는 이 길밖에 없었고, 시장 갔다 오다 보면, 이 끄트머리 이사 와서 아버  
지가 쌀장사를 했어요. 여기 길목이니까, 끄트머리 집에서 쌀장사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달구



1950년대 수원시 동네 쌀가게(수원박물관 제공)

지로 쌀을 싣고 오거나, 잡곡 같은 거 싣고 오고. 사람들이 오면 우리 집에다 쌀을 내려놓고, 시장  
에, 남문시장에 가서 그 시세를 “오늘 쌀값이 얼마예요?” 그러고 나면, “얼마라니까, 얼마 쥐.”

모연환 부자는 인계동에서 수매한 쌀을 자전거에 싣고 영동시장으로 가서 팔았으며, 먼  
거리를 갈 때는 리어카를 빌려 사용했다. 특히 모연환은 배달을 담당하며 어린 시절부터 땀  
흘려 가며 삶을 개척했다. 시간이 흐르며 모연환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제법 여유를 갖게 되  
었다.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인계동으로 이주했는데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 마을 곳곳에 서린 추억과 아픔

모연환은 서울에서 잠시 직장생활을 한 기간 외에는 70년이 넘도록 계속 인계동에 머물  
렀기에 마을 변화를 속속들이 기억하고 있다. 인계동은 최근에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외

관에 큰 변화가 생겼지만 꽤 오랫동안 과거의 모습이 지속되어 온 지역이다. 모연환이 기억하는 마을의 역사적 장소로는 솔밭, 심씨네 종중산, 수려선 철도, 수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모연환 가족이 인계동으로 이주한 1940년대 후반, 마을에는 울창한 소나무 때문에 낮에도 그늘이 져서 어둑어둑한 밤이 있었는데, 그 아래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검은 솔밭’이라고 불렀다. 모연환과 또래 어린이들에게 그곳은 낮에도 혼자 다니기 망설여지는 공포스런 공간이었다.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던 시절, 마을 터줏대감이자 시의원을 지낸 모연환은 인계동 교차로의 지명을 ‘솔밭사거리’로 하자고 제안했다. 어린 시절에는 다소 무서운 공간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곳은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특별한 곳이었다. 지금은 자동차가 달리는 번잡한 도로이지만 지명로나마 그 자리가 과거 솔밭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모연환** 저 위에는 이게 까만 솔밭이 있었어요. 검은 솔밭이 있어서 낮에도 거기를 가질 못했어. 거기, 그 밑에가 바로 공동묘지였었어요. 6·25 전에는 그게, 우리가 어려서도 한참 장난

파밀리에아파트가 들어선 곳은 청송 심씨 종중산인 망두산이 있던 곳이다.



을 노는데 그 길 무서워서 못 가던 거야. 초등학교 다닐 때 낮에도 그 길이 무서워서 못 다녔어요. 도로명이 ‘솔밭사거리’라고 있어요. 제가 이름 지은 거예요. 솔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도로표지판도요.

인계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놀이터이자 휴식공간은 청송 심씨(靑松 沈氏) 종중산이었다. 매년 시향을 지낼 때면 인계동 아이들은 주변을 서성이며 구경을 하곤 했고, 시향이 끝나면 종중에서 나눠 주던 제사음식을 먹곤 했다. 이 산은 인계동 주민들이 즐림기도 하고, 연도 날리던 곳이었으나 심씨들이 종중산을 팔고 외지로 나가면서 이러한 추억은 없어지게 되었다. 그 자리에 1979년 준공된 향원아파트는 인계동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재건축되어 2009년 인계파밀리에아파트가 준공되었다.

**모연환** 망두산이 종중산이었는데 아파트 들어설 때 심씨들이 팔고 나갔어요. 어릴 때는 굉장히 멀고 높은 산으로 보였는데 커서 생각하니 그냥 동산이었나 봐요. 심씨네 종중산으로. 지금 웨밀리아파트(파밀리에아파트)야. 옛날에 향원아파트. 심씨네 종중산. (중략) 학생들이 그때는 많았어요. 층층이 있어서, 저녁이면 나와서 강통 차기 하고, 새끼로 공을 만들어서 그것도 차고. 솔래잡기 강통으로 하고, 또, 저거 알아? 말뚝 박기라고, 여기다 죽 머리 박고, 자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고무줄놀이.

수원-여주 간을 잇던 협궤철도 노선인 수려선 화성역도 인계동 주민들의 추억의 장소이다. 인계동 소년들은 원천유원지에 놀러갈 때면, 수려선에 몰래 올라타 1km 내외를 가다 살짝 내리곤 하였다. 세류초등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은 수려선 철길을 따라 40분씩 걸어 다녔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미곡 반출을 위해 부설된 수려선은 1972년 폐선되었고 화성역 자리에는 청과물시장이 들어섰다. 철도가 없어진 지 50여 년이 되어 가지만, 인계동 토박이 노인들은 아직까지도 수려선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한다.

**모연환** 화성역 수려선 지나갈 때 어린이들이 몰래 기차 탔다가 내렸어요. 기차가 천천히 달렸어요. 성빈센트병원 앞, 고개가 젖어요. 거기 가면 기차가 잘 못 가요. 애들이 막 뛰어가서 그 기차를 타고 갔어요. 속력 높아질 때 뛰어내렸어요. 보통 1km 미만으로 탔어요. 다치는 학생은 없었어요. (중략) 그 길을 아침저녁으로 걸어 땀기고, 수건으로 도시락 싸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달랑달랑해서.

모연환이 세류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그의 아버지는 1916년생으로 당시 30대 중반의 가장이었지만 보국대로 동원되었고, 어머니가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17~18세에 불과했던 동네 학생들은 학도의용군으로 자진 참전하거나 강제 징집당하면서 학업을 중단하고 전쟁터로 떠났다. 마을에서는 이들을 떠나보내며 환송 행사를 치러 줬다. 일부 젊은이들은 징집을 피해 도망 다니는 생활을 했다. 세류초등학교 학생들은 전쟁 기간에 수원여고에서 수업을 했다. 수원고등학교에는 미군을 비롯한 외국군들이 주둔했는데, 마을의 젊은 여성들은 이들의 시선을 피해 숨어 있었다. 인계동에 들어온 인민군들은 군인·경찰 가족부터 수색하여 총살했다. 10여 살도 안 된 인계동 아이들까지 이를 직접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수원고등학교에는 한국전쟁 참전 학도병 호국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 학생들에게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중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모연환** 6·25 때, 들어와서, 피난 갔다 오고 나니까 여자들이 없었어요. 유부녀고 처녀고 없었고, 그냥, 미국 놈들이 와 갖고, 집을 들어와서, 전쟁이 비참인 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이 국민들을 잘 보호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괴롭힌 거야.(중략) 세류국민학교를 못 다니고, 우리가 수원여고 자리 있죠? 수원여중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별안간에 전쟁이 났다고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 보기만 하면, 조그만 애들 아니면, 웬만하면, 그 학생, 그 뭐라고 그러는 거여? 웬만한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이, 학도병이라고 그러냐? 나중에 학도병이라고 하는지, 중공군들이 경찰 가족, 경찰 가족이나 공무원 가족, 전부 다 붙들어가, 이 수원고등학교 거기, 지금 운동장이 저 아래로 있지만, 이 위에, 이런 뚝이 있었어요. 뚝이. 그 아래는 운동장이고 여기는 핵교(학교)가 있는데, 뚝에다가 쪽 세워 놓고 여기 땅을 파게 하는 거야, 땅을 전부 다. 토굴을 파 가지고, 사람들 세워 놓고, 총으로, 따발총으로다가 쏘서 전부 다 죽여 갖고, 그냥 전부 다. 사람들 죽으면, 그, 저기다 묻어 버리고 그냥 갔는데, 나는 어려서 그걸 봤어요.

### 배달과 학업을 병행하던 청년시절

모연환은 세류초등학교 졸업 후, 매향동에 있는 삼일상업고등학교 야간부에 진학했다. 야간부 학생들은 대부분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주경야독(晝耕夜讀) 생활을 하며 치열한 나날을 보냈다. 모연환은 아버지의 일을 도와 인계동과 그 주변 지역에 쌀



1950년대 수원 시내를 오가던 마차(수원박물관 제공)



삼일상업고등학교 입학 기념사진(1960년, 모연환 제공)



1998년 삼일상고 총동문회 총회 및 송년의 밤(모연환 제공). 모연환은 시의원 재임 당시 삼일상고 총동문회장을 맡기도 했다.

과 연탄을 배달했다. 동네 구석구석, 집집마다 형편이 어떤지를 누구보다 흰하게 알게 되었고 많은 주민들과 사귀게 되었다. 이때의 경험은 훗날 그가 인계동을 중심으로 각종 모임을 조직하고, 시의원 활동을 하고, 노인회장을 맡아 보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입장을 헤아리는 데 큰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모연환** 고등학교 야간 다니다가면서 연탄 배달하고 쌀 배달하고 그래가면서, 학교, 야간고등학교로도, 야간에 삼일상업고등학교 나가서 공부했고.(중략) 누구네 숟가락 몇 개까지 있는 거 다 알죠. 그거 뭐,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있는 거. 고양이 새끼들 마냥, 연탄 배달은 부엌에다 갖다 놓잖아.

모연환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점포의 물품 배달뿐 아니라, 마차에 모래를 싣고 세류동으로 운반하여 판매하는 업무도 하였다. 하루에 마차로 18회씩 옮겨 나르는 중노동을 하면 900원을 벌었는데, 당시 일반 공무원의 연봉과 맞먹을 정도의 큰 액수였다. 모연환의 부모는 이 돈으로 주

변 논을 사 들였다. 당시는 토지를 통해 지금처럼 시세 차익을 보는 시대가 아니었다. 그저 농사꾼 출신으로서 본인 소유의 땅을 갖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된 행동이었다.

**모연환** 그런데 나는 학교 다녀가면서도 여기서 말 마차 사가지고, 공영상회, 저, 모래를 세류동, 저기서 모래 실어다가 한 마차에 50원씩 주고 팔았는데, 하루에 18마차씩을 해요. 그러면 900원이면은 공무원들 1년 치 봉급을 하루에 벌었어요, 그때 당시에.

힘든 육체노동이었지만 그만큼 보상이 주어졌기에 주경야독하는 삶 속에도 희망이 꽃피었다. 지금은 연예인, 건물주 등이 학생들의 장래희망으로 부상했지만, 당시 소년들에게는 국회의원, 군인, 과학자 등이 최고 꿈이던 시절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웅변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발표를 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데 재능을 갖고 있던 모연환은 장래희망으로 국회의원을 꿈꾸었다고 한다. 삼일상고 5회 졸업생인 모연환은 1997년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그의 나이 55세가 되던 해로 제5대 시의원을 지내던 시기이기도 했다. 후배들을 위하여 기금도 모으고, 학교 발전을 위해 애쓰면서 후배들에게 꿈을 심어 주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되지는 못했지만 시의원이 되어 많은 활동을 했기에 소년 시절의 꿈을 상당히 이룬 셈이다.

그는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잘되어” 동문회장도 하고 지역에서 출세도 했다고 표현했다.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쉬지 않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며 리어카, 자전거, 마차, 버스로 인계동과 수원 시내를 누비던 그의 모습을 기억한다. 80세를 바라보는 현재까지도 그는 경로당 노인회장으로서 경로당 문을 열고 닫으며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러한 그의 생활태도는 평범한 배달부 소년이 한 걸음씩 꿈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모연환**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잘 저기 됐는데. 그때는 우리가 꿈이, 그때는 국회의원이 최고 저기 꿈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 버스 운전, 새시 공장 운영으로 분주했던 나날

해군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 모연환은 여러 직업을 거치며 분주한 일상을 보냈다. 아직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1960년대 중반까지 수원은 인구도, 소비 규모도 작

은 도시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성공하려면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인계동에서도 서울로 간 사람들이 많았다. 1967년 경기도청이 옮겨 오며 따라 수원은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모연환 여기서 오래 있으면, 수원서 오래 있으면 망한다고, 전부 다 서울로 다 뜨고, (중략) 외지 지방으로 갔어요. 수원서는 사업이 될 수가 없어. 인구가 저기 해가지고. 소비가 마땅치가 않으니 까. 전부 다 외지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 수원 시내 갑부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외지로 떠났어요.

1980년대 초반, 그도 서울에서 잠시 준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영등포구청에 근무하면서 양평동을 담당했는데, 부정한 사례를 발견하고 보고하였다가 오히려 다른 구로 전출되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더러워서’ 일을 그만두고 수원으로 돌아왔다.

1980년대 중반 수원역 앞(수원박물관 제공)  
모연환은 1980년대 중반에 몇 년간 시내버스 운전 을 하며  
매일 수원역 앞을 지나다녔다.



모연환 나는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 초반에는 영등포구청을 다니고, 영등포구청에서 다니다가, (중략) 전 ○○이가 노랑진 수산시장에, 이 새끼가 수돗물을 다 빼서 다 팔아 쳐 먹은 거야. 그거 부정을 발견했는데, 아, 내가 그, 과장한테 보고를 하고, 하는데, 저거는 안 해주고, 나를, 저는 양평동 담당이었는데, 아, 동작구로 쫓아버리는 거야.

다시 돌아온 인계동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40대 초반에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고 어깨가 무거웠지만 어엿한 회사나 기관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는 적당한 직업을 모색했다. 어릴 때부터 배달 일을 하며 구석구석 누볐던 터라 수원 시내 지리에 환하고 방향 감각이 뛰어났던 그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새 출발을 하였다. 그가 운전기사로 일하던 1980년대 초중반은 시내버스도 많은 변화를 겪던 시기였다. 1984년부터 버스의 정류장 안내방송이 시작되었고 하차 벨을 누르면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동안 모연환은 또 다른 꿈을 키우고 있었다. 운전기사를 하면 가족의 생계는 해결이 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어려웠기에, 돈을 더 벌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더 크게 인정받는 일에 도전하고 싶어졌다. 결국 운전기사 동료 2명과 의기투합하여 알루미늄 새시(chassis)를 만드는 공업사를 시작했다. 사업은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19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건설업종의 호황에 힘입어 알루미늄 새시의 수요가 한창 증가하고 있었다.

모연환 수원역에 시내버스를 5년인가, 3년인가 했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수원역에서 날마다 운전기사 노릇만 하니깐 돈을 벌 수가 없어. 날마다 먹고 사는 건 사는데,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중략) 80년대 초니까, 아, 뭐를 하면 괜찮을까, 뭐를 하면 괜찮을까? 연구를 하다가, 그 당시에 샤시가, 알루미늄 샤시. 샤시 공장이 한참 붐이 불고, 88올림픽 때문에 건설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그레가지고 인제, 공업사를 차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3명에서 동업을 했어.

그런데 동업자 중 한 명이 병으로 죽고, 다른 한 명도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불시에 동업자 2명을 잃자 모연환은 운전기사를 그만두고 혼자서 알루미늄 새시 창조 공업사를 운영하였다. 그는 새시를 가공하여 판매하면서 10배 이상의 이윤을 냈다.

모연환 기술도 없는 놈들이, 하루는 내가 나가서 운전하고, 하루는 또 다른 놈이 운전하면 내가 가서 공장에 있고. 서로들 그, 셋이서 그러고 하다가, 인제, 한 친구가 병이 들어 죽고, 한

친구는 인제, 아, 나 안 한다고. 딴 놈한테 팔아서 돈을 받자 이거야. 그래서 인제 딴 놈한테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놈이, 수인선 저기, 그 무슨, 인천 댕기는 고속버스인가 뭐한테 받쳐서 그냥 즉사해 버렸어. (중략) 그래 갖고 다시 내가 그걸, 공장을 인수하게 됐어. 샤시 공장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혼자 운영했죠. 시내버스 그만두고 혼자 운영을 하는데, 그때는 1,000원어치 물건 사오고 나면, 이것을 판매하고 나면 10,000원을 받았어. 10배 장사가 되는 거예요. 가공해서 팔고 나니까.

### 시민의 심부름꾼, 시의원이 되다

사업으로 성공하며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생기자 모연환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욕망이 커졌다. 인계산악회 창립 및 초대회장, 인계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인계동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장, 인계동 체육진흥회장, 인계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등 인계동에서 하나씩 역할을 맡아 나가면서 팔달구의 유력 인사가 되었다. 모연환은 제5대(1995년 6월 27일)와 제6대(1998년 6월 4일) 수원시의원으로 당선되어 7년간 의정활동을 했다. 시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 인계동위원회 창립(모연환 제공)



1995년 제5대 수원 시의원 당선 축하를 받는 모연환 부부(모연환 제공). 모연환은 부인의 내조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시민을 대표하여 시의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선거직 지방공무원으로, 모연환의 재임 당시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모연환** 그때, 돈을 벌으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계동의 각종 단체에 안 끼어든 데가 없이 전부다 다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했죠. 나는 10여 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제 동네를 알으니까,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욕심이 인제, 그때 봉사활동을 이제, 바르게살기위원, 방범위원을.

배달부와 운전기사로 일하던 모연환을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여기고 만만히 보던 이들도 있었는데, 다른 쟁쟁한 후보들을 물리치고 당선됨으로써 놀라움을 샀다. 인계동 주민들은 모연환의 당선을 위해 열정적으로 지원해 줬다고 한다. 그는 부인의 살뜰한 내조, 동네 친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운동이 크게 한몫했다고 꼽는다.

**모연환** 어려서부터 저거니까, 시의원 나온다고 하니까, 딴 사람들이 니까짓 게 무슨 시의원 나오느냐고 우습게 봤지. 그런데 해보니까, 당선이 척 되고 나니까, (중략) 내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혼자 암만 잘 났어도 소용없고, 이웃하고 관계가, 친구들하고 관계가 나뉘면 안됐죠. 친구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렇지. (중략) 많이 도와줬죠. 오래 살았어도, 안면으로 사실, 그 봉사활동 해가면서 아는 사람들이 이제, 각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어디 아파트 가면, 어디 아파트에 누구 뭐, 친구들 그 통·반장서부터, 자원봉사 하던 사람들서부터 전부 다, 다 그렇게 단체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도와줬죠. 내 일모양 그렇게 다들 도와주니까.

그는 알루미늄 새시 공장을 운영하며 시의원 직책을 수행했다. 시의회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시민이 낸 세금이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검토하고 각종 시책 추진사항을 감시하는 일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였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 개설, 노인회관 건립,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등을 추진했으며,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도 기여했다. 인계동 출신으로서 특별히 동네를 위해 신경 쓴 점도 있다. 예전에 팽나무 숲과 정자가 있던 곳이라 해서 ‘팽나무고개’라고 불리던 동네 입구에 작은 팽나무 두 그루를 심고 심막을 설치하고서 안내문을 세웠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팽나무 숲과 정자에 대하여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팽나무고개경로당 옆에 작은 공원을 조성하고, 인계동 분동 추진과 도로

개설 확충에도 힘을 썼다.

**모연환** 인계동, 지금들, 소방도로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소방도로를 내고 한 게, 인제, 큰 저기고. 이 동네에는 인제 경로당, 이거 짓고, 이 옆에 공원, 이걸, 저 집장사들이 연립주택 지을라고 그러는 거를 못 저기 해가지고, 이 공원을 만들고. 또 인제, 저쪽에 팽나무고개 심은 거, 그거 팽나무 심은 거. 나는 그게 큰 자랑거리고. 그리고 인제, 셋골서부터 적고 큰 도로들을 쫓아 땡기면, 민원인들은 다 났어요. 실제, 여기 이 옆에, 이, 큰길들, 이쪽 사거리, 이런 뒷길들도, 그 큰길들도 전부 다, 내가 없을 때는 그 길이 없었어. (중략) 새까만 초선의원이 그거 내놓으라고, 내놔서 빨리 터미널 옮기라고 아우성치니까, 그, 말 들을 사람이 어딴어요. 압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나한테. 내가 진짜 도망 땡기다시피, 2~3달 도망땡기다시피, 깡패새끼들 나를 죽일라고 그러는 거, 도망땡겨 가면서 터미널 옮겼어.

팽나무고개경로당 옆에 조성된 인계동 어린이공원



## 재개발 주택가 경로당의 터줏대감

올해로 79세인 모연환은 현재 팽나무고개경로당 노인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경로당 일대는 팔달8구역(수원 팔달 115-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해당하는데, 상당수의 회원이 보상을 받고 이사를 떠난 상태이다. 그런데 이 경로당은 수원 각지를 비롯하여 용인, 동탄 등 제법 멀리까지 이사한 회원들도 자주 드나들며 친교를 나누는 곳으로 유명하다. 모연환 부부가 아침저녁으로 경로당 문을 열고 간식을 채우며 살뜰하게 공간을 살피는 덕이다. 모연환은 재개발 때문에 인계동 주택가를 떠나 아파트로 이사 갔으나, 어린 시절을 보낸 팽나무고개를 매일 찾는다. 아파트 이웃과는 나누기 힘든 끈끈한 정과 오랜 추억이 있

수원버스터미널(수원시청 제공). 모연환은 조선의원으로서 버스터미널을 고등동에서 권선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인계동으로 이사 온 모연환 가족은 땀 흘리며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기를 함께하였다. 이주가 잦은 요즘, 수원에서도 토박이를 찾기 점점 어려워진다. 한 동네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마을의 역사와 변화를 기억하고, 후배들과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을 보여 주는 이가 점점 드물어지는 시대이다. 바로 옆집에 사는 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에 주택가 노인들의 옛날이야기는 하찮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노인들 한 명 한 명의 삶과 기억 속에 근·현대 시기 마을의 변천이 녹아 있기에 경로당을 지키는 이들은 곧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다.

용  
환  
갑

박  
응  
수



김형아  
설날 대표

## 재개발의 길목에서 돌아본 인계동 살이, 용환갑과 박응수



수원의 '인계동' 하면 떠오르는 풍경은 높은 빌딩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고 잘 구획된 신시가지의 모습이다. 백화점·호텔·은행 등이 빼곡하게 들어 찬 상업지구에는 분당선 전철 수원시청역이 생기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갈 뿐만 아니라, 밤이면 불야성을 이루며 젊은이들로 북적거리는 수원 최대 변화가 중의 한 곳이기도 하다. 곧게 뻗은 넓은 도로와 깨끗한 길거리가 말해 주듯 인계동은 1980년대에 개발된 신시가지로 수원역과 남문에 형성된 오래된 상업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데다 구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 수원 사람이 아닌 외부인과 수원의 젊은이들은 그들만의 인계동을 보지만, 토박이 또는 수원에 오랫동안 오고간 사람들은 인계동이 시골이기도 했으며 길을 경계로 낙후된 동네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길은 물자와 사람이 오고가는 통행의 기능을 하지만 그 자체가 경계선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재래시장을 마주보고 있는 인계본동에서 수원중·고등학교를 지나 효원로에 이르는 인계동은 장다리천 너머 수원시청과 KBS수원센터가 있는 동쪽의 인계동과는 반듯한 직선 길로 나뉘어 있다. 재래시장의 북적임과 좁은 골목의 정겨움이 쪽 이어지는 모습에 동질감을 느낄 법한 공간은, 언덕을 넘어 동쪽으로 가면 새로운 인계동이 시작된다. 시간과 공간을 뒤집어 언덕 너머 서쪽으로 가면, 한 때 최고의 변화가였던 남문 일대와 닿아 있

고 1972년까지 운행된 수려선 철도가 놓였던 인계동으로 분위기가 반전된다. 남문 일대는 경기도 남부 최대의 시장이 들어섰던 곳인 만큼 인계동은 그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기도 하다.

인계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도 1호선을 기준으로 서쪽 지역은 차가 오고 갈 수 있는 도로가 1990년대에 들어서야 생겨났을 정도로 과거의 도심과 현재의 도시에 마주한 채 느리게 변해 왔다. 시장과 상업지구, 삼성전자를 비롯한 공장들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동네이기도 했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북적거렸던 동네는 사람들이 떠나고 적막한 분위기를 내뿜고 있다. 재개발 찬성과 반대라는 첨예한 주장이 오고가는 길목에서, 언덕을 사이로 인계동의 이쪽과 저쪽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났다. 세대가 다른 만큼 역사가 할퀴고 간 상흔 또한 달랐던 두 사람의 삶과 풍경을 들을 수 있었다.

재래시장의 북적임과 좁은 골목의 정겨움이 쪽 이어지는 모습에 동질감을 느낄 법한 공

인계동 전경(2002년, 수원시청 제공).  
중앙의 팔달산 아래쪽이 구시가지이고 고층 건물들이 있는 곳이 신시가지이다.



간은, 언덕을 넘어가면 동쪽에 형성된 신시가지 인계동과 맞닿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논밭이 펼쳐진 인계동 한적한 동네의 언덕 너머는 한때 최고의 변화가였던 남문 일대와 닿아 있고 1972년까지 운행된 수려선 철도가 다니던 동네로 분위기가 반전된다. 언덕을 사이에 둔 인계본동 이쪽저쪽의 풍경이다.

## 인계동으로 오다

인계동주민센터 옆에는 입구에 낡은 간판이 붙어 있는 ‘향원주차장’이 있다. 주차장이었음을 알려 주는 낡은 간판만 걸려 있을 뿐 현재는 주인이 농기구나 비료 등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향원주차장의 주인 용환갑은 평생을 농사만 짓다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주차장을 지어 운영해 왔다. 주민센터 주차장이 생기고 재개발 사업으로 사람들이 떠나면서 지금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용환갑은 1943년에 용인군 수지면 하리에서 태어났다. 현재는 수원시 영통구 하동이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용환갑의 가족은 건너편 동네인 여수내로 이사를 갔다. 10년 남짓 살다가 용환갑의 아버지가 인계동에 땅을 장만하면서 1962년 3월에 인계동 847번지로 이사를 오게 된다.

**용환갑** 부모가 원래 건강도 안 좋은데 노무병을 갖다 오는 바람에, 그때 군인덜이 모자라니까. 노무병이 뭐냐 하면은,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나가서 실탄이고 나르는 일을 해드린 거야. 그러다 병이 들으셨어. 그렇지. 산이고 뭐고 저 군인덜 싸우게 물자 대줘야 하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오셨지.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몸이 엄청 나빴어요. 일도 못하시고 약이나 잡숫고 그나마 농사나 짓고. 아버님이, 그때 새끼 꼬는 거 있어. 이, 그런 걸 파서 먹고도 살고. 농사라고 지어봐야 말할 것도 없구. 몸은 아프고 그러니까.

인계동에 이사를 오게 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용환갑의 아버지는 당시 혈값이었던 인계동 땅을 사들였고 이사한 지 4개월 만에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장남인 용환갑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어떻게든 가족들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왔다. 그래서 용환갑에게 인계동은 다른 누구보다 절박하게 살아 나가야만 했던 장소로 각인되어 있다. 낯선 곳에 터를 잡기 위해 이사 오기 1년 전부터 건담을 일구고 농사지를 수 있



젊은 시절의 용환갑(1970년대, 용환갑 제공)

는 땅으로 준비하는 과정과 계획들은 오롯이 아버지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씨족마을을 형성하며 사는 한국사회에서, 고향을 떠나 외파로 떨어져 나온 데다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의 죽음은 망망대해 위에서 좌표를 잃은 심정이었다.

용환갑의 아버지는 인계동으로 이사 오면서 남의 집을 얻어서 살았다. 용환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여수내에서 살던 초가를 옮겨와 인계동 909-1번지에 세웠다. 집은 세월에 따라 조금씩 모양이 바뀌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터를 지키고 있다. 주택으로 뻥뻥하게 둘러싸인 지금의 풍경과 달리 당시에는 밭 한가운데 서 있는 원두막처럼 논밭이 펼쳐진 땅 위에 행뎡그렁하게 서 있는 외딴집이었다.

**용환갑** 요기 909-1번지로, 내가 847에서 909-1번지로. 내가 시골에서 여수내에서 살던 집이 있어. 기둥에 초가가 이렇게 있어서 지었던 집을, 돈도 없고 그러니까 헐어다가 기둥만 세우고 방 하나를 꾸며가지고 3월 달에 이사를 왔는데 아버지가 7월 24일날 돌아가셨어. 847번지 집은 이사 오던 당시 세를 사는데 거기다 소도 매야 되고 그러니까 주인이 좋아해? 그래서 909-1번지에 거기에다가 기둥 세우고 인제 기술자를, 목수라고 불러다가 여수내 집을 뜯어다가 기둥 세우고 지붕 해고 기와를 올렸어. 그 당시에 내가. 그리고 다른 건 꾸밀 수도 없어. 돈도 없구 아무것도 없으니까. 방 하나를 꾸며가지고 흙을 바르는 게 있어. 흙을 발라가지고 마분지라고 있어. 마분지 발라서 방 하나 꾸미고 살았었지.

집을 옮기고 나서 본격적으로 농사에 매달렸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1964년에 징집영장이 나왔다. 용환갑은 1년 후 1965년 8월 15일에 군에 입대하였다.

## 인계동에서 보낸 어린 시절

팔달10구역 재개발반대주민대책위원회에서 관련 일을 맡고 있는 박응수는 6살 때 인계동으로 이사 온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온 토박이다. 1965년생으로 중동사거리에서 살다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인계동으로 이사를 왔다.

박응수의 아버지는 석산호텔 옆 지금의 보신갈비 터에 있던 합동운수에서 일하셨다. 합동운수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아버지의 직업 때문인지 박응수와 형제들은 상류층 생활양식에 적지 않은 영향도 받고 넉넉한 생활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텔레비전이 귀했던 1970년대 초반에 박응수네는 텔레비전이 있었고 여름 저녁이면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앉아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곤 했다고 한다. 당시는 인계동 안에서도 남문시장과 가까운 지역에만 전기가 들어왔고 여전히 등잔을 사용하는 집들이 많았다. 박응수의 형은 유치원을 다녔는데 당시만 해도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드물었다.



박응수와 형제들(박응수 제공). 1970년대 초반 인계동 집 마루에서 찍은 사진이다.



합동운수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박응수의 아버지(1970년대 초반, 박응수 제공)

박응수의 부모는 넉넉하게 베풀고 동네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 살았다. 아마도 의지할 어른이 없었던 고아나 마찬가지로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박응수의 아버지는 전쟁 피난민으로 강원도 양구가 고향이다.

**박응수** 6·25 때 양구가 이북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니 남한 쪽 자유주의니 호되게 맞는 지역. 이놈이 치고 저놈이 치는 지역이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족보 하나 들고 내려온 게 큰아버지하고 아버님하고 고모하고 할머니만 네 분. 일제 치하 시기 때 다 돌아가시고 또 여러 가지 요건으로 돌아가시고 하니까 내려오신 곳이 수원이에요.

전쟁 통에 수원으로 내려왔지만 함께 왔던 큰아버지는 결혼도 하기 전에 돌아가시고 친할머니도 돌아가셨다. 박응수의 아버지와 고모만 수원에 남겨졌다. 다행히 아버지가 군대에서 운전수로 일했던 경력이 직업으로 연결되면서 지금의 어머니와 만날 수 있는 끈이 되

었다. 박응수의 부모는 같은 직장에서 만난 사이로, 어머니는 합동운수 직원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처지가 비슷했던 두 사람은 그래서 서로를 알아봤을지도 모른다.

**박응수** 어머니도 전라도 분이신데 어머니 자체도 고아로 살다시피 했으니까.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삼촌하고 어머니 딱 두 분이셨는데, 고아로 입양돼서 있다가, 외할머니는 살아 계셨는데 외할머니 집에서 신랑이 죽으니까 데리구 간 거예요. 생이별한 거지. 그래가지구 어머니나 외삼촌이 고아원에 간 게 친인척들이 재산 때문에, 외가 쪽 재산이 좀 많았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빼돌린 거예요. 밑에 삼촌 이런 사람들이 고아원에 맡겨 버린 거지. 그래가지구 각자 생활하다가 나중에 만난 거예요. 그러구 외할머니도 나중에 찾게 되고. 그런 상황 이니까 아버님이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니까.

박응수는 인계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인계초등학교는 개교한 지 얼마 안 된 시골학교였지만, 이제 막 인천교육대학을 졸업한 선생님의 열의와 교육열이 만나 좋은 학교에 진학한 졸업생들이 많았다. 지금의 신도시와는 비교할 순 없지만 인계동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동네였다. 학급 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1969년에 삼성전자가 수원에 오면서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했다. 인계동은 수려선을 타고 시장과 학교를 오고가는 사람들의 풍경에서,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풍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인계동의 삼성전자 통근버스 정류장은 인계동에 인구가 유입되는 데 영향을 주었고 하숙집과 방을 세놓는 집들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다.

## 수려선의 추억

수원의 남문상권 경계에 마주한 인계동은 현재 그 위상이 떨어진 구도심에 불과하지만 화성역이 있었던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박응수는 화성역 근처에 살면서 보았던 수려선 운행 당시의 풍경을 기억하고 있다.

수려선에 싣고 온 군수물자를 화성역에서 군용 트럭으로 옮겨 수원비행장에 있는 미군 부대로 운반하였다, 가까운 영동시장에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물건을 파는 도깨비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였다.

박응수 미군들이 던져 주고 카네이션이라고 했어요. 그걸 갖다가 던져 주면 그 안에 인제 비상 군량 던져 주면 그 안에 별별 종류가 많았어요. 건빵도 있고 통조림도 있고 비스킷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개네들이 던져 주는 것마다 종류별로 다 내용이 틀려요. 그때 당시 이름으로 카네이션이라고 했어요. 씨레이션.

화성역 근처에는 피난민촌이 형성되어 있었다. 미군과 수려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청과물 시장이 생겼다.

수려선은 물자를 나르기도 했지만 사람들을 더 많이 나른 기차이기도 했다. 경기도 남부권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과 더 좋은 학교 내지 시골에 없는 중·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 수원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기차를 이용했다. 인계동에 이사 오기 전 여수내에 살았던 용환갑도 4학년 무렵에 수지초등학교 산의분교에서 수원 매산초등학교로 전학을 하면서 원천역에서 기차를 타고 화성역에 내려 통학을 했다.



1970년대 초반 화성역(수원박물관 제공)

용환갑 그때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기억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열차가 이렇게 있고 칸칸이 있잖아. 사람이 하도 많아서 거기서 몇 명이 붙어서 발을 올려놓고 붙들고 있다고. 그렇게 타는 바람에 떨어져 가지고 밑으로 기차길로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던 사람이 끄집어내서 산거야. 열차 칸 사이에서 지붕에도 타고 그럴 정도여. 사람이 하도 많아서. 칸에 열차, 열차 있는데 고기 올라가서 잘못 디디다보면 떨어지는 수가 있잖아. 그걸 빨리 보던 대학생, 고등학생이 와 가지고 빨리 끄집어내고 타고 간 거야. 그 사람이 그때 열두 살, 세 살.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드물거니와 버스가 없었던 때라 수려선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요긴한 교통수단이였다. 용환갑은 가마니 깔고 책 펴고 공부했던 조그만 학교에서 아버지가 더 큰 학교로 보내 준 것이 좋았다. 학교생활도 재미있었다. 매산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성중학교에 진학했지만 농부였던 아버지가 장남이 농사짓기를 원해서 고등학교는 가지 못했다.

## 힘들었던 기억

용환갑 여기 이사를 왔는데 참 똥지게 많이 졌수. 이렇게 통으로 된 거 두 개 이렇게 지고 땀기는 거.

용환갑은 고생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눈가에 눈물이 맺힐 때가 있다. 이사 왔을 당시 동네가 전부 논이고 밭이고 과수원이었다.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 동네에서 굶어 죽지 않으려면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생각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부탁을 하면 다 들어주었다. 일하다가도 “총각, 우리 똥 좀 퍼 줘.” 하고 동네 사람이 찾아오면 바로 달려갔다. 집집이 똥 안 치운 집이 없을 정도로 똥지계를 지고 똥구덩이에다 퍼 날랐다. “똥 3년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있었고 “똥이 썩어야 곡식도 잘 익는다.”던 시절이었다. 열심히 똥을 날라 채웠던 구덩이는, 지역 정치인이 찾아와 노인회관 터를 원하면서 인계동 노인회관 자리로 바뀌었다.

이른 나이부터 농사를 시작해서 힘이 들었는데 군대를 다녀와 보니 집에 빛까지 쌓여 있었다. 용환갑은 생각 끝에 지금 살고 있는 집 옆에다가 토담집을 짓기로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다. 동네 사람들은 날이 추우니 들어오라며 용환갑을 환대했고 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용환갑(1970년대, 용환갑 제공)

꺼이 부탁을 들어주었다. 밤낮 안 가리고 묵묵히 일하던 용환갑의 모습이 동네 사람들에게 신뢰를 준 것이다.

**용환갑** 재산이라면 그거 하나 있지. 동네 분들이 믿어 줬대는 거. 돈을 줄 때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지. 그래서 그런지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도 했고. 밀창에는 옷을 입었는데 우아기도 난닝구도 안 입고 맥고모자 쓰고 일했으니까 인제 지나가는 사람이, 여자들이 특히 하는 얘기가, '저 사람도 여자가 있을까? 여자가 올까?' 그러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지. 까마죽죽하고 맥고모자 쓰고 새까만 게 사람도 아니지. 그래서 이 언덕배기에서 휘파람 불고 여자들 농락하는 사람들 배가 굶었어도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밥은 먹고 살아.

빌린 돈으로 지은 토담집은 세를 놓았다. 미리 계획하진 않았지만 나중에는 용환갑의 신희집으로도 쓰게 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용환갑의 행색을 보며 장가를 갈 수 있을까 걱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용인에서 교편을 잡던 이모부가 이사를 오면서 이천 출신 아가씨와 맞선을 주선하였다. 아내 또한 집안 형편이 어려운 처지였다. 용환갑은 한번 만나 보고는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 같이 살아보자고 했다. 새로 지은 토담집에서 함께 살다가 1년 후에 결혼식을 올렸다. 아내는 장남인 용환갑과 함께 농사일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동생들 뒷바라지하며 4남매를 낳고 키웠다. 인계동에서 '용씨네 호박밭'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호박 농사를 많이 지은 탓에 아내가 허리 아프다고 말할 때마다 용환갑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정도로 미안한 마음이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다.

**용환갑** 내가 살면서 호박, 파 이런 걸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사실 잠도 못 잤어.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낮에는 일해야지. 호박, 파 이런 거 길러서 따구 저기를 해야 되잖아. 호박도 저녁나절 따다가 집에 갖다 싸놓고서 씻어 갖고 상품가치 있게 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 파를 심어서 이만큼 자라면, 뽑아다가 집에서 다듬어서 묶어서 상품가치를 만들어야, 밤12시까지 포장을 하고 그때 새벽 3시면 지게 지고 탕기면서 요 남문 옆에 그때 야채시장이 있어. 그게 이사를 몇 번 가서 그렇지. 저 북수동으로 갔다가 인계동으로 갔다가 절리 갔다 그랬잖아. 지금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호박 하면은 내 이름 났 정도로 아주 유명했거든. 호박 한 뭉, 1,500평 2,000평 가까이. 하여튼 나이 먹은 사람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려.

야채시장에 지게를 지고 다니면서 호박을 내놓던 것이 어느 땐가 리어카로 바뀌었고 토담집 살림도 방을 하나하나 새로 만들면서 세를 놓는 방들이 늘어났다. 성실하게 일한 만큼 살림살이는 나아졌다. 그 시절 동고동락했던 지게는 용환갑에게 각별하게 느껴지는 물건이 되었다. 내다버리라는 아내의 말에도 차마 버리지 못하고 향원주차장 창고에 가져다

1980년대 용씨네 호박밭(용환갑 제공)  
인계동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





용환갑과 지게. 지게는 향원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다.

놓은 지게는 낡았지만 세월의 무게가 켜켜이 쌓여 묵직하게 느껴진다. 지게 대신 리어카에 호박을 싣고 시장에 나가던 날 용환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고 한다. 지금은 더 좋은 차를 타고 편하게 다니지만 그때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 기분은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세를 놓은 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쳐 갔다. 1963년에 지은 집은 허름하지만 지금도 세를 사는 사람이 있다. 곧 허물어질 집이지만 오래된 집의 역사 끄트머리에 마지막까지 온기를 채우고 있다.

용환갑은 도지를 주고 농사짓던 땅을 주인이 판다고 하면 사는 식으로 해서 땅을 늘려갔다.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면 땅을 조금씩 팔아서 썼다. 아버지가 인계동에 처음 장만했던 땅은 시대가 바뀌면서 농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땅이 되었다. 논이며 밭이었던 땅 위에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낸다는

사람들이 용환갑을 찾아왔다. 인계동 뿐만 아니라 수원이 도시화 되는 과정 속에서 논과 밭은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힘든 것 참아가며 농사를 지어서는 돈을 벌기 힘든 구조로 세상이 변하고 있었다. 크게 지었던 야채 농사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 짓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그만두었다.

**용환갑** 그때는 돈이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평이면 50평, 100평이면 100평 팔아서 팔아서 생활도 하고 등록금도 내고. 집도 사는데도 팔아서 팔아서 쓰고 그런 것도 많이 했지. 그거 똥 장사 해가지고 되겠어?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돈이 필요할 때는 팔어야지. 팔지 않고 어떻게 살아. 안 되는 거야. 말이 그렇지. 지게에다 조금 지고 댕기고 구루마에다 끌고 댕기고 돈이 되겠어? 잠도 못자고 그걸 시장 간다고 앉아서 다듬어서 묶어서 이게 돈 안 되는 거야.



인계동 개발이 진행되면서 용씨네 호박밭 옆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호박밭 가운데로 왕복 4차선 도로가 개설되었다.(1989년, 용환갑 제공)

## 도전과 실패 그리고 다시 살아가기

박응수는 인계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원북중학교를 거쳐 삼일실업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당시 허례허식을 없애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졸업 앨범에는 반별로 찍은 흑백 단체 사진 한 장만 있을 뿐이고 수학여행도 사라져서 학교생활에 대한 추억거리가 별로 없다. 기억나는 게 있다면 중학교 때 체조부에서 활동하다가 그만둔 일이다. 4명의 체조부원 가운데 한 명은 나중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가 되었지만 박응수는 너무 많이 맞아서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다.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자 박응수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었다. 인계동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다닌 것처럼 박응수도 삼성전자 자재과에 견습생으로 취직하였다. 아침이면 통근버스를 타고 학교 대신 직장으로 향했다.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정리하는 일로



박응수의 인계초등학교 동창들과 어머니들(1980년대 초반, 박응수 제공)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으나 계장이 퇴근하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같이 일해야 하는데 계장은 저녁 8시가 넘도록 퇴근을 하지 않았다. 결국 한 달을 못 채우고 나와 버렸다.

박차고 회사를 나왔지만 박응수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1980년대는 성장하는 경제상황에 비례해서 수원과 그 주변 지역에 회사들이 늘어난 덕분에 취업이 어렵지 않았던 시기이다. 같은 학교 친구들이 서로 다른 회사로 수습을 나갔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고 회사와도 밀고 당기는 일이 가능했을 정도로 일자리는 많고 사람은 부족했다. 늦게 퇴근하는 것이 싫으면 자기네 회사로 오라는 친구의 말에 박응수는 반월공단에 있는 신일공업에 입사했다. 품질관리과로 배정받으면서 이공계열로 진로가 바뀌었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박응수가 맡은 업무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품질을 검사해서 불량품을 숙아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도면의 치수와 제품이 일치하는지를 측정해서 검수를 했는데,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본격적으로 자동화 기술을 익혔다.

박응수 그때 당시에 제가 3차원 측정기라던지. 빛가속 경도기라던지 이런 것들도, 경도기



1990년대 초반 삼성전자 사업장 내부(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삼성전자는 많은 고교 졸업자들이 생산직 사원으로 취업하였다.

같은 것도 중소기업에 없는 것들을 사다가, 일본에서 직수입해다가 교육도 받고. 그때 당시에 운이 좋아서 빛가속 경도기도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후한 대접을 받았죠. 직접 회사에서 사와 가지고 제가 교육을 받고. 직장 퇴사하고도 그것 때문에 4~5년 불러 다녔어요. 가서 제가 수리를 해야 되니까. 강도 측정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철판이 상당히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였어요. 철판의 연직율에 따라서 제품을 가공하는데 철판을 늘려서 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릇 만들 때 짝잖아요. 근데 그 철판이 강도가 일정치 않으면 똑같은 스트로크에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건 뚫려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철판이 일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검수를 해야 돼서 한 거예요. 포항제철에서 제품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제품이 일반회사 중소기업에서는 철판을 하제품을 내보냈었던거거든요. 고런 제품들 때문에 철판을 전체적으로 마끼로 한 롤이 들어와서, 자동화니까 롤이 다 쓰일 때까지 찍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 롤을 전수 샘플링을 하고 찍어서 연직률이 안 나온다, 너네 제품 불량이다 통보해서 들어오니 까 그 다음부터 제품이 잘 나오더라구요. 기가 막히게 나와 가지고.

자동화 설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회사는 꺾춤 성장하는 시기였고 박응수도 회사와 함께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1980년대에는 제조업 설비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은 가파르게 치솟았고 그 한복판에 있었던 베이비 붐 세대는 성장하는 경제상황과 발맞춰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은 36명의 인원이 36가지 공정을 통해 제작하던 것을 한 대의 기계로 모든 공정을 끝낼 수 있었다. 자동기계는 불량품의 비율도 줄였을 뿐만 아니라 36명의 사람과 36대의 기계를 놓을 공간까지 줄여 놓았다. 단순 작업 인력을 기계로 대체해 가는 과정에 있었다. 박응수는 정밀 측정기기를 다룰 수 있는 덕분에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고 강의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응수는 자신의 회사를 운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베테랑으로 몸담았던 직군에서 벗어나 부품 제조 회사를 차렸다.

**박응수** 그때 당시만 해도 직장 생활을 하는 거 보다는 오히려 사회에 진출해 보겠다 하는 거 때문에, 쪼그만 부품을 자체 제품을 가지고 나가서 생산하는 회사를 차린다 해서 나가가지고 하다가, 인제 자본이나 이런 능력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때 '경향 하우스링 페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당시에 서울 무역센터에서 행사를 하는 걸 보면서 한양 홈쇼핑 플라스틱 창틀 있죠? 처음 나왔을 때 그 제품이 발전성이 있다 싶어서 그걸 접하다가 수원의 북문의 골든샷시. '한양 골든샷시'라는 대리점이 있었어요. 거기 자재과장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창호 분야로 시작해서 건설 계통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시작한 창업은 자본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바로 포기하고 말았는데, 실패는 박응수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회사를 정리하고 고민하고 있을 무렵 경향 하우스링 페어에 나온 플라스틱 창호를 보면서 '이거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한양골든샷시대리점에 자재과장으로 다시 취업하게 된다. 새로운 건축 자재들이 등장하던 당시는 대한민국에 아파트 건설 붐이 일고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의 200만 호 공급 공약으로 서울 주변 위성 도시들에 대규모 아파트가 올라갔고 자재들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박응수는 창호 관련 자재를 취급하면서 판매뿐만 아니라 새시 설치도 했는데 베란다 확장 공사가 꽤 팬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대리점을 그만두고 나와서 베란다 새시 시공업체를 차렸다.

플라스틱 창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면서 그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였지만, 관행처럼 굳어진 어음 결제 방식이 박응수의 발목을 잡았다. 현금이 돌지 않은 어음 거래는, 자

본력을 갖추지 않은 건설 회사에게는 몸집을 불리기 유리한 구조일지 모르나 재료를 구매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하청업체에게는 불리한 조건이었다. 그 한계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건설회사에서 같이 일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박응수는 사업을 접고 총무과장이라는 직책으로 건설 분야 전반을 두루 취급하는 대로건설에 합류하게 된다.

인계동에 있던 대로건설은 단종 회사로 시작해 2~3년 만에 종합건설로 성장하였다. 직원이 4~5명이었던 회사는 직원 300명 규모로 성장하였고 박응수 또한 집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장이나 도로 같은 토목 공사까지 다양한 공정들을 현장에서 익히며 베테랑으로 변해 있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을 버리고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알고 있던 지식이 도움이 되기도 했다.

**박응수** 품질 관리라는 게, 거기서 습득된 게 이쪽에서 도움이 되더라구요. 왜냐면 건축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요. 짓고 넘어가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품질 관리 개념이 없을 때 저는 품질 관리에 대한 개념이나 어떻게 피드백이 되어 되는지. 한 번 실수를 하면 그 다음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스펙을 잡아 줘야 되는데, 건축 쪽에서는 그런 스펙을 잡아 주는 게 없을 때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체 내 회사에서 스펙을 만들어 나갔죠.

한국사회 전체가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모두가 핑크빛 미래를 꿈꿀 만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찬란했던 1990년대도 1997년에 IMF외환위기라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치면서 모든 것이 거품처럼 사라졌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직종은 건설업이었다. 박응수가 몸담고 있던 대로건설은 몸집을 불리기 위해 파이낸스 자금까지 끌어와 터미널을 짓고 있었고 이유를 모르는 채로 자금이 끊어지면서 한순간에 부도가 났다. 외환 위기로 몸담고 있던 회사는 문을 닫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박응수는 높아진 예금 금리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다.

건설에 관해서 시행부터 설계, 시공, 분양까지 전 과정을 모두 경험한 덕분에 박응수는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차렸다. 인생의 세 번째 사업을 막 시작했을 즈음 박응수는 전혀 얘기치 못한 일을 당했다. 보증으로 인한 피해였다. 업체 간의 어음 거래가 회사의 도산을 촉진한다면 개인 간의 보증을 통한 금융 거래는 개인 파산을 가져왔다. 박응수는 맞보증을 진행한 금융 거래에 문제가 생기면서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인계동에 마련한 집을 날려버리고 말았다. 집안의 가구에도 빨간 딱지가 붙었고 단란했던 결혼생활마저 사라졌다.

박응수 인테리어 사무실을 채리고 시작을 하려고 막 하다가, 맞보증으로 있었던 게 재산이 고 뭐고 날라 가야 빚 청산이 되니까. 그때 할 수 없이 부모님한테 애들을 맡기고 인계동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주거지를 넘기고 와이프하고는 이혼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집·가정·경제력이 다 파산 나서 살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자식이라는 거, 그때 자식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였는데.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죽을려고 돌아다녔었거든요. 자살 하려고. 너무 힘들어서 차 끌고 전국을 싹 도는데 자살바위란 자살바위는 너무 아름다운거야. 그래서 술 한 잔 먹고 내일 내일 미루고 하다가 올라오게 된 계기가, 공주 갑사에 갔는데 생전 처음, 종교가 없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대웅전에서 절을 하게 되고 절을 하고 나오고 보니까 무릎이 다 피멍이 들어가지고 피가 줄줄줄 흐르더라구요. 그때만 해도 담배 필 때니까. 담배 필려고 딱 보니까 여기 다 멍들었더라구요. 그냥 멍하니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다시 시작해도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공수래공수거라는 그런 게 머리에 스치면서 삶을 다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경매 처리하고 집 처리하고. 그 때까지만 해도 놓지 않은 상태니까. 이혼해 주고 애들 인계동에다 해서 같이 주거 넘겨놓고 바깥에서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먹고 자면서 그때부터 전쟁을 치른 거죠. 그때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정말 젊었을 때 아쉬운 페이지는 없어요. 애들하고 사진이 없어요, 그때 당시 7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에 남은 건 일밖에 없었어요. 7년이 사라져 버렸어요.

박응수는 기나긴 7년 동안 앞만 보며 빚을 갚아 나갔다. 돈을 줄일 수 있는 일이면 손수 자재를 나르고 밤늦게까지 일했다. 빚을 다 청산하고 생활이 자리를 잡아 가니 몸이 아팠다. 몸이 고된 인테리어 공사는 하청으로 전환하고 공장부지 개발 쪽으로 시행에 뛰어 들었다. 대진기획에서 다원산업개발로 간판을 바꾼 회사는 투자금을 유치하며 사업을 진행했다. 7~8년간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은 컸지만 정작 남는 돈은 별로 없었다. 외형만 컸을 뿐이지 먹고사는 돈 이외에는 돈을 모으기 힘든 구조였던 것이다. 아무래도 빚 좋은 개살구인 것 같아 시행사를 접었다.

롤러코스터를 탄 박응수의 삶은 눈부신 성장과 끝도 없는 하락을 경험하며 여전히 도전과 그에 따른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꾸려가고 있다. 경험치 안에서 계속 노력해야 하는 환경은 끊임없는 변신을 요구할 만큼 숨이 찼다. 박응수는 오래된 건물을 보수하는 일과 방수제품을 판매하는 칠만포방수 대리점을 매교동에 차렸다.

## 변화하는 인계동과 재개발

인계동은 수원의 중심가에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논·밭·과수원이 펼쳐진 자리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하숙집과 하청회사들로 모습을 바꿔나갔다. 1962년도의 인계동과 지금의 인계동, 특히 재개발구역이 외형적으로는 상전벽해로 그 모습이 싹 다 바뀌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낙후된 변두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용환갑이 처음 이사 왔을 때의 인계동은 하류 지역이었다.

**용환갑** 62년도에 와서 여기 마을이 끄드렁 끄드렁 수원에 인계동이 나쁘다고 소문났어. 들어봐야 뭐. 근데 거기 가서 그나마도 밥 한 그릇도 못 얻어 먹고 애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그런데 일해야지. 나는 모른 척 하고. 쳐다보면 아이 풀이 있나 없나 땅이나 쳐다보고 풀 뽑고 그래야지 언제 그걸 하고 있어. 여기가 별 사람이 다 많지. 말도 마. 사실은 그때 일수를 하고 건달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배가 고파. 밤중에 나가서 올은 게 잘 선택했구나. 이 동네 나쁜 사람덜 많았

인계동 신시가지 개발 현장(1989년, 수원박물관 제공)  
1980~1990년대는 인계동과 매탄동을 중심으로 한 동수원 개발이 한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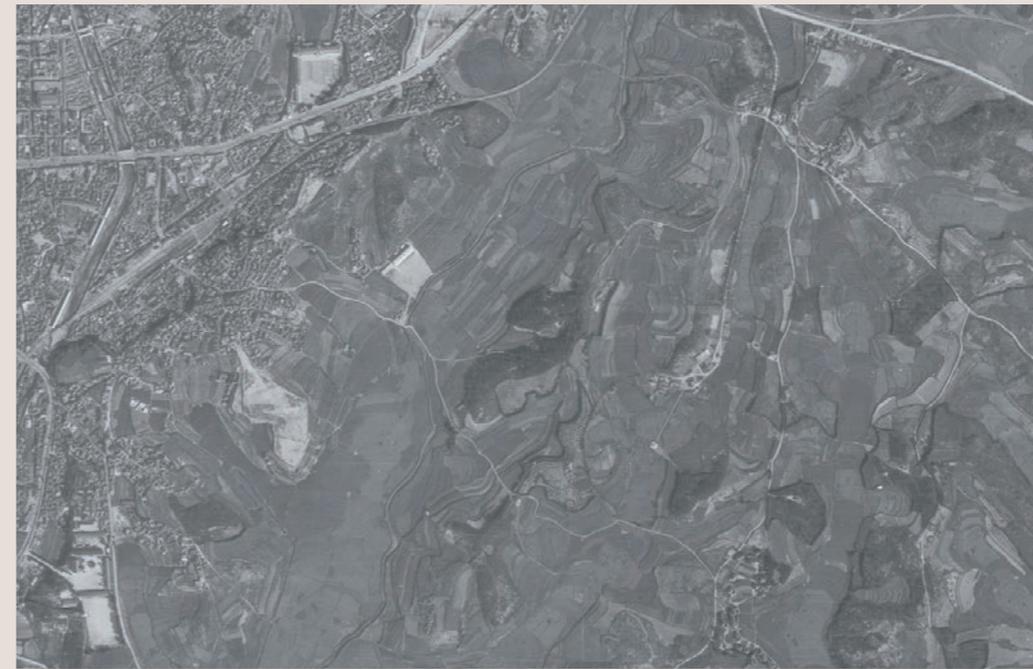
지. 여기가 제일 하류된 지역이야. 수원에. 그래서 눈 한 번 잘못 돌리면 큰일 나.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나가서 누구한테 얘기할 것도 없고 밤중에 나가서 달밤에 그냥 혼자 눈물이 나 흘리고 앉아서 눈물 닦다가 신세한탄 하다가 들어가서 또 자고 그러는 거지.

용환갑의 집은 길도 나 있지 않은 외진 곳에 있었다. 매일 농사일만 하던 그에게 하나 둘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인계동이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논밭 대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과 근린 시설들이 필요했다. 용환갑 소유의 값없던 땅들이 외지인들에게 팔려 나갔다. 인계동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자 노동력을 제공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주택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70년대부터 수원 지역의 제조업체수는 빠르게 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인계동에 주택이 속속 들어섰고 아파트도 건설되었다.

**용환갑** 여기 향원아파트가 심씨네 종산이었어. 종산인데 묘가 있었어. 그게 정진건설이라는 데서 사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데 길 좀 내달라고 해서 새마을금고 있는 데서 넘어오는 길이 있었어. 동사무소 뒤까지. 나중에 그 길도 맨든 거야. 포장도 안 해구 했다가 나중에 도로 만든 거야. 찾아왔대.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데 길 좀 협조 좀 해주시라고. 내가 “잘 찾아오셨수. 동네 와서 일을 해신다는데 나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고 가신다면은 되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해니까, 더 말할 것두 없는 거지 인저. 팔라서 갖다 준 거지. 나 아니었으면 짓지도 못했어. 동사무소 자리가 모델하우스 자리야. 나로 인해서 아파트를 못 지면 되겠냐고. 지금이야 1000원짜리 2,000원, 3,000원도 달래지만 그때는 1,000원짜리면은 700원, 800원에도 줄 수도 있고 그랬던 입장이지. 저 향원아파트를 짓고 살다가 허물고 다시 짓게 10년이 넘었어. 저거 헐고 다시 파밀리에 짓 거여.

인계동 최초의 아파트인 향원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들어선 자리는 용환갑의 호박밭이었다. 호박 농사로 버는 만큼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것이다. 모델하우스를 철거한 후에는 새마을금고가 들어왔고 새마을금고가 나간 후에는 인계동주민센터와 주차장이 생겼다. 이제는 인계동에서는 농사짓는 일이 불가능해져서 용환갑은 아들과 함께 화성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예전에 비해 몰라보게 달라진 인계동이지만 1970~1980년대에 들어선 주택들은 오래된 집이 되었고 이마저도 재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쇠락해 가고 있다. 용환갑은 인계동에 길이 나고 아파트 또는 공공시설들이 들어올 때마다 쾌히 승낙을 했고 파출소 자문위원, 주민센터 자문위원 등 적극적으로 동네일에 힘을 보탰다. 마을이 발전되고 개발되



1960년대 중반 인계동(수원시청 제공). 인계본동을 제외한 인계동 대부분이 농경지이다.



2000년대 초반 인계동(수원시청 제공). 공원과 도로를 제외한 전 지역이 개발되었다.



용환갑의 호박밭 한쪽에 지은 항원아파트 모델하우스(1976년, 수원박물관 제공). 모델하우스 옆으로 호박밭이 보인다.

는 것은 자신에게도 그리고 오래 살아온 인계동에도 좋은 일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인계동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자 재개발에 찬성하는 편에 섰다. 시에서 하는 일이고 마을이 좋아진다고 하니 나쁠 게 없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입장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미국 발 경제공황에 영향을 받은 건설사들이 재개발사업에서 하나 둘 손을 떼 시기봐도 맞물리면서 인계동의 재개발사업이 10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동안 인계동 팔달10구역 재개발사업조합의 집행부에서 일했던 용환갑은 직책을 내려놓았다. 그의 나이도 이제 70대 중반에 접어들었다. 재개발사업은 속도가 붙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네를 떠났고 아직 남아 있는 사람들도 곧 이주할 것이다. 용환갑은 재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박응수는 칠만표방수대리점을 한 지 7년이 되었다. 이전에 건물을 새롭게 하는 인테리어를 했다면 지금은 노후 주택 손보는 일을 한다. 그러나 직업이 노후주택 수리하는 일임에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정작 자신의 집은 손볼 수 없는 상태이다. 박응수 가족은 인계동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적산가옥에서 살다가 중학생 때 근처에 새로 지은 주택으로

이사를 갔다. 그 집은 지금도 박응수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다.

박응수 구옥을 갖다가 새로 리모델링한 거죠. 시멘트 골존데 집 내부가 기와집인데 내부를 다 바꿔 버렸죠. 보일러 설치를 하면서 거실까지 다. 그때는 툇마루가 있고 넓은 우물가가 있었던 걸 갖다가 방으로 다 들어서 거실을 만들어서 다시 외벽을 쌓아서 나머지는 아예 그냥. 그때 당시에는 좀 뭐랄까 거실이 있는 집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거실로 만들어 쓰고 이게 여지껏 와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노후화가 진행됐죠. 지금은 기와도 다 낡고 재개발 때문에 보수도 못하고 10여 년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어머니하고 같이 이사 간 거예요. 있다가. 어머니 이사 시켜 드리고 거기에 있으면서 아직도 주거는 여기로 해놨어요. 재개발 협의가 끝나야 되니까.



팔달10구역 재개발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응수

박응수는 팔달10구역 재개발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람들이 떠나고 건물만 남은 인계동에서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오후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전 재개발사업이 궤도에 올라 착착 진행되고 있어서 싸우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박응수는 알고 있다. 남은 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보상금과 보상금 때문에 깨져 버린 이웃 간의 정이었다. 재개발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박응수는 거의 도박에 가까운 재개발에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재개발을 수용하는 것뿐이다.

재개발구역이라는 첨예한 이해관계의 양쪽에서 용환갑과 박응수 두 사람의 삶은 땅이라는 말 없는 존재로 인해 세대와 시대가 맞물려 아이러니를 낳았다. 용환갑의 땅은 눈물과 고생이 담겨 있는 것이었지만 시대가 땅을 통해 여유를 가져다주었다. 박응수의 땅은 구조물을 세우는 건설로 돈을 벌고 지금까지 같은 계통으로 먹고살 길을 열어 주었지만 여유 대신 끊임없는 모험을 요구했다. 소유와 소유하지 않음의 끝에서 농민이라는 간판을 달고 삶을 정리하고 싶다는 용환갑의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온다.

이  
종  
칠



김 미 엽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단정하고 명석한 인계동의 행정공무원 이종칠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공무원은 최고의 직업으로 여겨진다. 신분 보장과 함께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매년 최고의 응시 경쟁률을 갱신하고, 매스컴에서는 공무원 시험 실시와 결과에 대한 내용을 크게 보도한다.

이종칠은 공무원으로 30년을 봉직한 사람이다. 중·고등학교 시절 인계동에 잠시 거처한 적이 있고, 공무원 생활 초반 인계동 동장을 맡아 일을 보았으며, 이후 수원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였지만 그의 생활의 터전은 2018년 3월까지 인계동이었다.

### 수원 영통에서의 성장

이종칠은 1937년생이다. 고향은 수원 영통으로, 조부모 대부터 영통에 거주하였고,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다. 5남 1녀 중 3남으로, 1943년 8세 되던 해 태장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일제시기에 초등학교 2년을 다니고, 3학년이 해방되어 한국인 교사에게 배웠다.

이종칠 당시 우리 집이 좀 컸어. 그래서 일본인 교사가 우리 집에 하숙을 하였어. 당시 전쟁



6·25전쟁 중에 파괴된 수원비행장(수원박물관 제공)

중이라 공출이 아주 심하고 운동화도 배급받았는데, 나는 선생님이 운동화를 가져다주어 신고 다녔어.

1949년 시험을 보아 수원중학교에 진학하였고, 다음해인 중학교 2학년 때 6·25전쟁이 일어났다. 당시 조부모님과 아버지는 모두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형제들만 있는 상태로, 큰 형은 군대에 복무 중이었다. 갑자기 북한군에게 서울이 점령당한 후 이종철은 군인 가족이라서 9·28수복 때까지 많은 고초를 겪었다.

**이종철** 일단 소에 물건을 쌓아 피난 갈 준비를 했어. 그런데 너무 급박하고, 당시 비도 오고 해서 결국 피난을 가지 못했지. 그래서 밤마다 불려 나가 수원비행장으로 부역을 나가는데 너무 너무 힘들었어.

큰형이 군인이라는 이유 이외에도 크게 농사를 짓고 있는 지주층이다 보니 신체적 고초 이외에도 정신적으로 받았던 압박이 컸다고 한다. 다행히 인민군이 점령한 지 3개월이 채 안 되어 서울이 수복이 되었고, 큰형이 돌아왔다. 그리고 만일에 대비해서 어머니와 동생들은 고향에 남은 채 이종철은 두 형들과 같이 군인 가족을 위한 트럭을 타고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피난살이가 시작되었고, 가을을 지나 겨울이 되었다. 해를 넘기자 큰형은 사람을 풀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소식을 수소문하였다. 그런데 고향에서 슬픈 소식이 들려왔다.

**이종철** 피난 가 있으면서 큰형님이 고향 소식을 수소문했는데, 우리 집이 불에 탔다는 거야. 우리 집이 당시 높은 지대에 있었거든. 폭격을 맞아 불이 나서 3일간 탔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 당시 우리 집이 99칸이었지.

**면담자** 99칸이면 아주 부농이셨네요.

**이종철** 우리 집에서 농사를 크게 지었어. 국민학교 다닐 때 어리지만 나는 가을 타작 때가 되면 벃가마를 계산하러 다녔지. 일제시기 때도 공출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루 아래에 큰 광을 파서 쌀독을 묻어 놓고는 쌀을 보관했지. 그런데 그게 전쟁 통에 다 탄 거야, 3일이나.

가족들 소식을 듣고 4월쯤인가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얼굴에 파편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고, 당시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거처와 살림살이를 마련해서 지내고 있었다. 나중에 초가삼간을 사서 집을 다시 지었다.

피난에서 돌아온 이종철은 중학교 공부를 마치고 1952년 수원고등학교로 진학하여 학업을 마쳤다. 물론 영통에서 매교동의 수원고등학교로 매일 통학하였다. 이종철이 집에서 수원고등학교까지 가는 통학길은 주변이 모두 논밭이었다.

## 결혼과 공무원 생활

이종철은 1962년 형수의 중매로 결혼을 하고, 인계동에 자리를 잡았다. 당시 큰형이 지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신혼집을 사업장 근처인 인계동에 장만해 준 것이다. 인계동 847-44번지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고, 이듬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세류동 동서기로 공직에 첫발을 내딛었다. 인계동에 터를 잡은 것이 1962년이고, 재개발사업으로 이사를 한 것이 2018년 3월이니, 이종철은 57년 동안 인계동에 거주한 것이다.



이종철이 동장 재직 때 신축한 인계동사무소(1984년, 수원박물관 제공)

1967년 이종철은 인계동 동장이 되어 인계동의 살림을 맡아 보았다. 그가 동장이었던 시절 인계동의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주민등록상 거주 인구가 2만 5,000명을 넘었다. 인계동장 재직 당시 가장 기억나는 일은 주민등록증 발급이다. 1968년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시도민증을 대신하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고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다. 당시 인계동사무소에는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주민등록 관련 업무는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아서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인계동사무소 건물도 시에 예산을 신청해서 신축하였다. 독거노인이 사망할 경우 장례를 치러 주는 일도 많았다.

**이종철** 내가 세류동 동서기로 시작해서, 1967년에서 1968년부터인가 3년간 인계동 동장을 했어요. 당시 주민등록 사업으로 일이 아주 많았어. 그리고 인계동에 빈민이 많다 보니 독거노인으로 생활하다가 사망한 경우도 많아 내가 주관해서 장사를 많이 치러주었지. 또 지금 인계동 마을금고 자리에 있던 동사무소를 동장일 때 지었지.

## 수원시청 근무와 인계동

1970년 이종철은 인계동에서 본청인 수원시청으로 근무처를 옮겼다. 그는 민원계장, 사회계장, 운수계장 등의 경력을 쌓으면서 순탄한 직장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1978년 봄에 68평의 대지를 구입해서 2층집을 지어 이사하였다. 그 집이 바로 인계동 913-4번지로, 재개발로 2018년 3월 이사하기 전까지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다. 당시 이 대지를 남양 출신의 사람으로부터 매입하여, 도급을 주어 집을 지었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 1층은 이종철 부부가, 2층은 아들 부부가 사용하였다. 아들 부부가 분가한 후에는 세입자를 들였고 최근에 이사할 때까지 계속 세를 놓았다.

이종철은 1980년 수원상공회의소로 자리를 옮겨 57세까지 근무하였다. 퇴직한 공무원들의 모임인 수원시 행정동우회를 결성하였고, 상공회의소 퇴직 이후에 행정동우회 사무국장을 맡았다. 수원시 행정동우회는 현재 회원이 800여 명이며, 이종철은 부회장을 거쳐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공무원으로서 탄탄대로를 걸었고 퇴직 후에도 행정동우회 활

1973년 수원시청(수원박물관 제공)



동을 통해 공무와 관련된 일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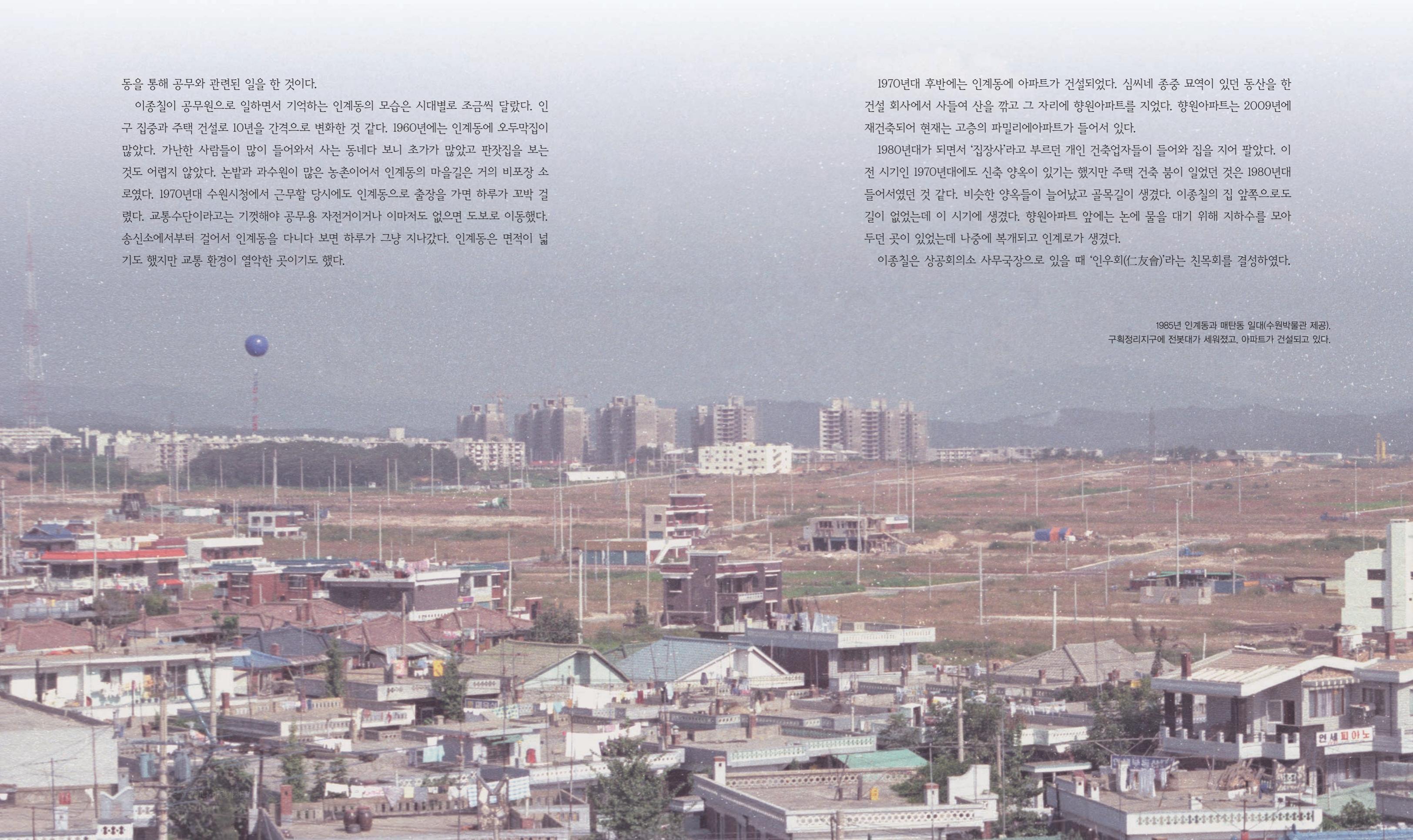
이종철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기억하는 인계동의 모습은 시대별로 조금씩 달랐다. 인구 집중과 주택 건설로 10년을 간격으로 변화한 것 같다. 1960년에는 인계동에 오두막집이 많았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는 동네다 보니 초가가 많았고 판잣집을 보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논밭과 과수원이 많은 농촌이어서 인계동의 마을길은 거의 비포장 소로였다. 1970년대 수원시청에서 근무할 당시에 인계동으로 출장을 가면 하루가 꼬박 걸렸다. 교통수단이라고는 기껏해야 공무용 자전거이거나 이마저도 없으면 도보로 이동했다. 송신소에서부터 걸어서 인계동을 다니다 보면 하루가 그냥 지나갔다. 인계동은 면적이 넓기도 했지만 교통 환경이 열악한 곳이기도 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인계동에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심씨네 종종 묘역이 있던 동산을 한 건설 회사에서 사들여 산을 깎고 그 자리에 향원아파트를 지었다. 향원아파트는 2009년에 재건축되어 현재는 고층의 파밀리에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1980년대가 되면서 '집장사'라고 부르던 개인 건축업자들이 들어와 집을 지어 팔았다. 이전 시기인 1970년대에도 신축 양옥이 있기는 했지만 주택 건축 붐이 일었던 것은 1980년대 들어서였던 것 같다. 비슷한 양옥들이 늘어났고 골목길이 생겼다. 이종철의 집 앞쪽으로도 길이 없었는데 이 시기에 생겼다. 향원아파트 앞에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지하수를 모아 두던 곳이 있었는데 나중에 복개되고 인계로가 생겼다.

이종철은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인우회(仁友會)'라는 친목회를 결성하였다.

1985년 인계동과 매탄동 일대(수원박물관 제공),  
구획정리지구에 전봇대가 세워졌고,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



1980년대인데 정확한 시기는 기억하지 못한다. 1960년대 초반 이종철이 처음 인계동에 들어왔을 때 동네가 시끄러웠다. 사람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말도 많고 단합도 잘 안 되는 동네였다. 아마도 토박이보다 외지에서 들어와 자리 잡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다. 잠시 인계동장을 지내기도 했던 이력 때문인지 이종철은 주민들의 단합을 위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인계동 사람들을 모아서 친목회를 만들었다. 처음에 회원이 22명이었다. 매월 5,000원의 회비를 내고 동네 음식점에서 모였는데 제법 잘 운영되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럭저럭 운영이 되다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회원들의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점점 예전만 못하게 된 것이다. 결국 그때까지 모아둔 회비는 남은 회원들이 나누어 갖고 인우회를 해체하였다.

인우회는 마을 친목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농촌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이행하는 1970년대, 공동체적 성격을 존치시키기 위해 마을에서는 친목회가 많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친목회가 그 주축이 되었던 40~50대가 20~30년 정도 지나면 그 자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친목, 즉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상부상조를 기조로 하였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개인주의적 성향, 그리고 잦은 거주지의 변동으로, 공동체적 성향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식 세대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퇴직 후의 활동

이종철은 퇴직 후에도 행정공무원 경험을 바탕으로 인계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했다. 2000년 그가 초대 자치위원장이 되었을 때 인계동의 분동(分洞)을 수원시에 신청하였다. 1967년 인계동장을 할 때 2만 5,000명이던 인구는 1980~1990년대를 거쳐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그는 분동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및 인계동의 개발을 촉진하고 싶었다.

**이종철** 내가 초대 자치위원장으로 있을 때 인계동 인구가 4만 명이 넘었어. 그래서 본청에 분동을 신청한 게야. 그런데 허가가 안 났어.

**면담자** 왜요?

**이종철** 내무부에서 분동 기준이 5만 명이라는 거야. 도로 건설까지 다 설계해서 신청했는데, 못 된 게 아쉽지. 인계동이 더 클 수 있었는데 말이야.

이종철이 공식적인 직장을 그만둔 것은 그의 나이가 65세가 되었을 때이다. 하지만 행정공무원으로 30년이 넘게 봉직해 온 그는 계속 일을 해야만 하였다. 바로 인계동 재개발사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계동 재개발 사업은 매교삼거리에서 팽나무고개삼거리를 거쳐 인계사거리로 이어지는 인계로를 기준으로 수원중·고등학교가 있는 팔달8구역과, 인계본동 일대의 팔달10구역으로 구분된다. 이종철이 1978년부터 거주한 집은 팔달10구역에 속한다.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에 당선된 이종철(2007년, 이종철 제공)

본격적인 재개발 논의가 나온 것은 2007년 무렵이었다. 이미 팔달8구역은 재개발 이야기가 나와 재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이었지만, 팔달10구역은 그 무렵에 시작된 것이다. 2007년 인계동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모임을 가지고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종철은 주민들의 추대를 받아 추진위원장이 되고, 허철수가 총무를 맡았다. 2009년 11월 6일 인계초등학교 대강당에서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법적으로 50%의 주민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당시 57%가 찬성하였고, 조합원으로 들어온 회원도 1,200명이었다. 2010년 1월에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구성하고 조합원 1,300여 명으로 조합설립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집행부가 여러 건설사들의 수주경쟁에 휘말리면서 조합원과의 불신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종철은 처음 3년은 무보수로 일하고,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2년 정도 급여를 받고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다. 그의 나이 75세였다.

이종철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인계동 구시가지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의 욕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개발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갈등 관계 속에서 이들을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진정성을 갖고 추진한 일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종철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결국 10년 전에 재개발사업 추



2009년 11월 6일 인계초교 강당에서 개최된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이종철 제공)

진과 관련한 업무에서 손을 뗐다.

**이종철** 너무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열두 번도 그만두고 싶었어. 그래도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끝까지 밀어붙여 설립인가가 난 게지. 처음엔 7명으로 구성되어, 동원목욕탕 위에 있다가, 마을금고 2층이 비어 있어서 임대료 50만원 내고 그리고 왔지. 참 힘들었어. 우리 집 대문이 무너진 적도 있었으니. 그때 조합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어. 다툼이 심하였지. 아마 2009년 쯤이었을 거야. 그때 안사람이 타게하고 혼자 있어서 내가 아들네 가서 자고 왔더니 우리 집 대문이 무너진 게야. 주위에서 그러는데 밤에 쿵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구.

6·25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적 변화의 1차적 목적은 '잘사는 것'이었다. 먹는 것이 풍부하고,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으며, 앞으로만 나아갔다. 1970년대 경제 성장과 1980년대 민주화를 지나 1990년대 탈이념시대까지, 인계동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수원시 지방행정동우회 등 묵묵히 공무원으로서 중앙정부의 일을 집행하고 살아온

이종철에게 인계동 재개발을 접근하는 방식은 '개발=발전'이라는 관점이었을 것이다. 2000년 이전까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언급되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이제 '같이 사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인 논리로 혹은 자본주의적 논리로 한쪽 편의 주장만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걸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혹은 재건축은 '옳다 그르다[是非]'의 관점에서 벗어나,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2018년 현재 이종철은 57년간 살아왔던 인계동을 떠나 영통에 거주하고 있다. 아직 철거는 진행되지 않아서 인계동 이종철의 집은 대문도 건재하고 대문 안의 건물도 그대로 있다. 그 집에 살던 사람들만 없어지고 따라서 삶의 온기가 사라졌을 뿐이다.

집이 휴식과 추억을 제공하는 안식처라는 절대적 기준에서 어느새 부를 축적하는 대상물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애초 농경민이었던 우리는, 도시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부를 찾아 떠나는 방랑인이 되었다. 그게 누구의 책임인가를 묻기 전에, 적어도 한곳에서 20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에게 '신(新)토박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어야 하고, 그래야만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을까.

## 인계동 팽나무고개 골목길의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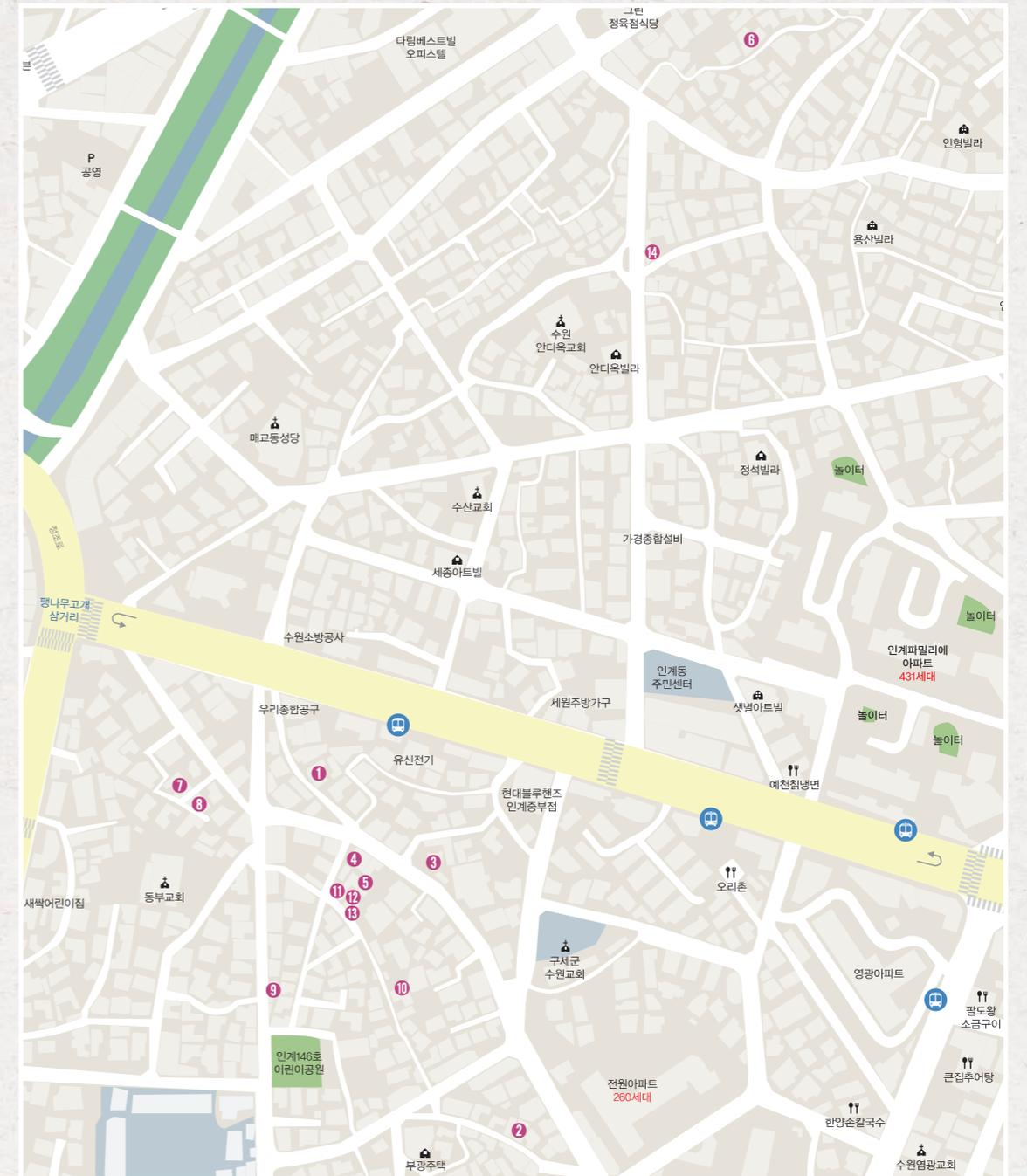
인계동 팽나무고개 그 언덕을 생각하면  
 늘 햇빛과 골목길 그리고 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오래된 동네이지만 오후 세 시 햇볕 걸쳐진 골목길을 걷다 보면  
 그 골목이 기억했던 과거의 시간과 추억이 생각나  
 슬며시 미소 지어지던 동네입니다.

### 골목 언덕

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얘기 나누던 아주머니들  
 버드나무 슈퍼에 들러 과자 한 봉다리 사들고 햇볕 걸쳐진 골목길 사이를 지나면  
 저 멀리 동네친구랑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오시는 할아버지 뒷모습  
 뛰어오는 발걸음 소리에 우리 집 복주가 꼬리를 마구 흔드는 모습  
 겨울철 비로 포대로 언덕 위에서 썰매 타던 기억  
 별똥별 보면서 소원 빌겠다며 옥상에서 온종일 누워 있던 기억  
 이 모든 기억들이 골목길 어귀마다  
 도란도란 들려옵니다.

이젠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하나씩 둘씩 마을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말벗이 사라진 쓸쓸한 동네에  
 포크레인으로 하나둘씩 사라지는 집들을 보면서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젠 정말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멀리 벗들을 떠나보내곤  
 돌아서서 아쉬운 마음에 붓을 들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이지만  
 그림으로나마 옮겨 담아 봅니다.

글·그림 금 정 수



- |                             |                             |                             |
|-----------------------------|-----------------------------|-----------------------------|
| ① 세지로175번길 76-6             | ⑥ 세지로243번길 52-17            | ⑪ 인계로28번길 38-24(팽나무고개2길 9번) |
| ② 세지로175번길 31-10            | ⑦ 인계로4번길 10-11, 동부교회앞집      | ⑫ 인계로28번길 38-24             |
| ③ 세지로175번길 70-4(인계동 905-28) | ⑧ 인계로4번길 10-11              | ⑬ 인계로28번길 38-24             |
| ④ 세지로175번길 73               | ⑨ 인계로10번길 29                | (팽나무고개2길 5번과 9번)            |
| ⑤ 세지로175번길 75-3             | ⑩ 인계로28번길 38-10(팽나무고개2길 23) | ⑭ 인계로29번길 52(인계동 862-31)    |

세계  
사

나의 시댁은 인계동



김  
옥  
희



윤 유 석

(사)역사문화컨텐츠연구원 연구원

## 김옥희의 세계, 인계동



### 전기회사집 딸과 축구선수

김옥희는 1936년에 태어났다. 발안에서 살다가 10살이 되어 매교동으로 이사를 와 매산초등학교를 다녔다. 9살에 입학해서 동기생보다 조숙한 편이었다. 수원으로 오고 나서 몇 년 후에 6·25전쟁이 일어났다. 김옥희는 전쟁 때 기억은 거의 없고 대구로 피난을 갔을 때의 기억이 단편적으로 남아 있다. 대구에는 형부 되는 분이 역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김옥희** 전쟁 때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6·25를 여기서 안 겪었으니까. 우리 형부가 대구 역전 있는 데서 장사를 했었어. 그런데 거기 가서 내가 다방이라는 데를 봤어요. 다방이라는 데가 있더라구. 사람들이 그렇게 드나들더라고 거기를. 어휴 저기가 뭐하는 덴데 저렇게 그러나 했는데, 그 다방 옆에 서점이 있었어. 그럼 내가 거기 들어가서 책을 그렇게 읽었어요. 서점에서 책을 많이 읽으면, 한참 읽으면 또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서점에 있는 이가 형부한테 그랬대. 책을 좋아해서 그렇게 읽더라구.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내가 책을 좋아했어요. 옛날에는 소설책이 많았었지 뭐여. 밤을 새가면서 읽었으니 뭐. 우리가 한전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전기

다른 집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전깃불 켜놓고 본다고, 남들 껌껌한데 전깃불 켜놓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촛불 켜놓고 부엌에서 보고 그랬다고.

피난 후 수복이 되면서 다시 매교동으로 돌아왔다. 15살 때였다. 김옥희네 집은 팽나무 고개 근처에 있었는데 골목길을 경계로 인계동과 매교동이 갈라지는 곳이었다. 전기회사 집 딸이었던 김옥희는 친구들과 어울려 10대 청소년기를 보냈다.

**김옥희** 여 핵교로 많이 놀러 댕겼구, 여기 (수원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많이 놀고 그랬어요. 저기 학교 앞에 큰 프라타너스가 그 나무가 양쪽으로 있어서 거기도 올라가서 놀구. 극성을 떨었어 여자래두 나는.

**면담자** 수원천에서도 놀고 그러셨어요?

**김옥희** 그랬지요. 자랄 때 거기서 목욕도 하고 그랬지요. 애들 때니까. 물이 깨끗했으니까. 거기 또 이쪽 집에서 오리를 길러서, 오리알 주우면 금덩어리 주운 것처럼 좋아하고 그랬지. 그래도 애들 때가 좋았어요. 오리알 주워서 먹은 것은 생각 안 나고 너무 좋아한 것만 생각나, 오리알 주웠다고.

전쟁 끝이라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던 김옥희는 친구들과 놀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동네 친구들 중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남자애도 있었다. 그 남자아이는 인계동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아들이었다. 학교도 수원중·고등학교를 다녔고 계다가 학교 축구선수였다. 동네에서 가장 멋진 남자아이였다. 16살이 지나면서 둘 사이가 더 가까워졌고 17~18살이 되면서는 서호나 원천저수지로 놀러 다니곤 했다.

수원에는 수원고등학교, 삼일공업고등학교, 수원농업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었다. 특히 수원고와 수원농고는 맞수였다. 두 학교가 싸워서 수원고가 이기면 수원시 대표로 서울에 가서 경기를 치렀다. 서울에서 경기가 열리면 그 애의 여동생과 함께 응원을 가곤 했다. 응원을 그렇게 했어도 매번 지기만 했던 것 같다. 그래도 김옥희의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게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행복한 시절의 기억 뒤에는 딸의 연애를 지원해 준 아버지가 있었다.

**김옥희** 우리 아버지는 참 착했어.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았어. 영감보다 더 좋았던 거 같애. 애네 아버지(남편)하고 밤약속 해가지구 나갈라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 다리미를 옛날에는



10대 시절 김옥희(김옥희 제공)



수원중학교 재학 시절 김옥희의 남편(김옥희 제공)

꼭 붙들고 했어. 그거 해 놓으라고. 그럼 내가 인저 갈 시간되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썩닥썩닥 하는 거지. 아버지 나 어디 갈 건데 저것 때문에 못 가니까 아버지가 나 어디 심부름 시키는 것처럼 해가지구 나 내보내 달라 그러면, 아버지가 또 그렇게 해요. 그럼 내가 12시까지 있다 오고 그럼 올 때까지 그걸 붙들고 앉았을 때가 있어. 그럼 좀 미안했지.

아버지가 해방 전부터 전기회사에 다녀서 집안형편이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김옥희가 19살이 되던 해에 회사를 퇴직한 아버지가 30년 근속으로 받은 퇴직금 1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면서 사정이 변했다. 가까운 집안사람이 사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빌려달라는 것이라 집에 있던 돈까지 더해서 주었다. 그날 이후로 쌀통이 비는 날이 많아졌다. 5살 아래의 남동생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다. 수원극장 옆에 있던 삼광공업사였다. 동생이 무급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치고 월급을 받아 오면서 집안형편이 조금씩 나아졌다. 서울로 간 언니도 돈을 보내주었다.

김옥희는 집안사정이 그렇게 어려워진 줄도 모를 정도로 연애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임신을 하게 되었다. 동네에는 금방 소문이 났지만, 두 집을 오가며 스스럼없이 지내던 사

이라 집안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김옥희의 부모는 세 들어 살던 사람이 전해 준 소문을 듣고 딸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다.

김옥희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남자 쪽 아버지와 만나 보름 후로 혼인 날짜를 잡아 왔다. 김옥희의 어머니는 딸이 농사짓는 집에서는 못 산다며 그 집에 시집보낼 수 없다고 했다. 시댁에서도 결혼을 반대했지만, 김옥희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결혼식을 올렸다. 21살 되던 해였다. 마을 사람들이 다같이 준비를 해줘서 보름 만에 혼인을 하게 되었다. 시댁은 동네에서 제법 잘사는 집이었다.

**김옥희** 그때만 해도 이불이고 옷이고 다 해가지고 가는 시대였잖아. 그래서 그냥 동네 사람이, 아줌마들이 죄 동원이 됐었어. 광목 가져가서 냇갈에서 빨래 해가지고 하얗게 만들어 갖고 오는 사람, 저고리 만들어 갖고 오는 사람, 버선 만들어 갖고 오는 사람, 뭐 만들어 갖고 오는 사람. 다 돌렸어 그냥.

**김옥희** 홍씨네는 이 동네에서 부자였었어. 땅이 많아. 옛날엔 땅 많으면 부자여. 그리구 최씨라는 집이 있었어. 그 집하고 이 집하고 둘이 부자여. 그러니까 두 집만 부자로 살고, 다 이 동네 어려웠었어.

## 고양이 앞의 쥐

임신도 혼인도 너무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하게 진행된 일이었다. 신변에 일어난 큰 변화였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맞게 된 현실이고 변화였다. 김옥희는 혼인 후에 바로 시댁에 들어가 살면서 이런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김옥희는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살았다. 홍씨인 줄 알았던 남편의 성이 호적에는 김옥희와 같은 김해 김씨로 되어 있었다. 동성동본 간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던 때라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홍씨였던 남편이 김씨 성을 갖게 된 것은 시아버지가 김씨 집안에 양자로 갔기 때문이었다. 막내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야 남편은 홍씨 성을 되찾았다. 그 전까지는 김옥희의 자녀들도 김씨로 살았다.

시댁에는 시조부모님, 시부모님, 세 명의 시누이와 시동생이 있었다. 시누이라고 해 봐



김옥희의 시부모님(김옥희 제공)

야 큰시누이는 10대였고 그 아래는 5살, 2살 된 어린아이들이었다. 시동생도 10살이었다. 한 동네 살면서 집에 놀러오던 아들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로 들어온 것이 시댁에서도 적잖이 곤란했을 것이고,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제 집처럼 놀러가던 곳이 이제는 시댁이 되어 뱃속 아이와 함께 시집살이를 해야 하는 김옥희도 시댁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혼인하고 한 달 만에 남편이 군에 입대했다.

**김옥희** 그때는 불 때는 시절이었으니까 아침저녁 불 드려야지, 식구들 밥 해줘야지, 집에서 그런 거 하나두 안 하고 있었다가 가가지고 별안간에 그런 거 해야지, 바깥에 우물 있는데 거기서 물 퍼다 밥해야지, 진짜 아주 내가 고통이 말도 못했어.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또 재 아버지가 바로 군인을 갔어. 결혼하고 한 달 만에 군에 갔어. 그리고 또 몇 달 있다가 애기를 낳았어.



30대의 김옥희 부부(김옥희 제공). 용주사 관광 때 찍은 사진이다.

김옥희는 시댁 식구들이 어려웠다.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못했고, ‘아가씨’라는 말도 안 나왔다. 시어머니 앞에서 김옥희는 고양이 앞의 쥐 같았다. 하루라도 밥을 못 하면 시댁에서 난리가 났다. 그런 말들은 동네 사람들의 입을 타고 친정엄마의 귀에 들어갔다. 한번은 며칠 동안 몸이 너무 아픈데도 시어머니에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친정엄마에게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다. 하지만 친정엄마는 김옥희의 사정을 알려 주며 시어머니에게 부탁했고 결국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불편했던 고부관계에서 김옥희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다. 첫아이가 아직 젖먹이일 때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겨울에 장례를 치르고 이듬해 봄에 산소 폐를 입히기 위해 시댁의 일가친척이 모두 모인 날이었다. 소식도 없이 외박을 나온 남편이 모두가 모여 있던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한쪽 구석에 앉아 아이에게 젖을 먹고 있는 김옥희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날 밤 김옥희는 밤이 늦도록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밥을 하러 일어나지 못했다. 두렵고 죄송한 마음에 나가지도 못한 채 남편이 떠난 방 안에 있었는데 김옥희에게 나와서 밥 먹으라고 말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김옥희는 방문을 열 엄두를 못낸 채 방 안에서 사흘을 지냈다. 젖먹이를 데리고 방 안에서 굶고 있는데 시댁식구 누구도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이 김옥희 가슴에 큰 상처가 되었다.

**김옥희** 쪼그만 방에 밥 먹고 상만 들어 내놓고 까둑 들어앉아 있었어. 나도 우리 아들을 데리고 젖 맥이구 들어앉아 있는데, 누가 문을 벌컥 열드라구. 그런데 우리 아저씨가 외출 나온 거야. 문을 벌컥 열고 안을 딱 들여다봤어. 그 사람들이 수도 없이 그렇게 앉았는데, 그 중에 들여다보니까 내가 참 비참하게 보이드래요. 내가 아주 ..... 그래서 밤에 치우구 들어가서 그런 얘길 해드라구. 그때 자기가 즈이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되게끔 한 줄을 몰랐대는 거지. 새삼스럽게 내가 그걸 알았다 그러면서, 그때는 제대 할 때가 얼마 안 됐었어. 그러니까 자기 제대할 때까지만 친정에 가서 잠깐 동안 있으래.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나를 보낸다는 얘기를 엄마 아버지한테 해구 가라, 나는 노이 엄마 아버지하구 얘기를 못해니까. 나는 그냥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만 보면은 말도 못하고 그냥 쥐가 고양이 본 것처럼 피했으니까. 부엌으로 들어갔어 내가. 그랬으니까 시집식구도 좋아하지 않았겠지.

### 3년의 친정살이

김옥희는 시집살이 1년 내내 친정 생각만 났다. 아파도 병원 진료 한번 받기 어렵고 남편은 군에 가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은 어렵기만 하니 그저 시댁을 나오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러다가 외박 나온 남편이 친정 가 있으라고 한 말에 용기를 얻어 친정에 가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시댁을 나오던 날 무슨 축하를 하는지 하늘에는 폭죽이 터졌다.

김옥희 시할머니, 시어머니한테 가지구, “나 우리 집에 갈 거예요. 나 여기서 하두 못 한다 구 흥 보구 그랬으니까 다시 집에 가서 배워 가지구 다시 올게요.” 그러니까 우리 시할머니가 시어머니보구 “아니 내가 볼 때는 그럭저럭 곧잘 해던데 왜 저걸 해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해느냐.” 고 시어매를 나무라드라구. “난 몰라요. 난 뭐라고 안 그랬어요.” 그러드라구. 그래서 내가 그냥 애를 업구 그냥 나온 거야. 그때 막 불꽃놀이도 하고, 그날 12시에 집으루 갔어요.



김옥희 자매(김옥희 제공). 왼쪽부터 동생, 언니, 김옥희 순이다.

한밤중 갑작스러운 딸의 방문에 친정엄마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왜 왔냐는 물음에 대답도 하지 않고 들어가자마자 김옥희가 한 말은 “엄마, 나 밥 줘.”였다. 다음 날 남편이 제대하면 시댁에 다시 들어갈 거라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걱정이 앞섰던 친정엄마는 2살 된 김옥희의 아이를 데리고 걸어서 몇 분 거리의 사돈집을 찾아갔다. 아이는 제집에 온 줄 알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아이만 시댁에 두고 김옥희는 친정집에 머물렀다. 그런데 남편은 제대를 했는데도 데리러 오지 않았다. 친정에 있는 동안 배가 또 불러 왔지만 시댁에서는 김옥희의 임신을 반기지 않았다. 친정엄마의 설득으로 출산을 앞두고서 시댁 문을 다시 두드렸는데 김옥희를 집으로 들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큰댁에서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다. 남편은 아이만 데리고 갔다. 김옥희는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친정엄마는 김옥희가 둘째 아이를 낳고 나면 시댁에서 다시 부를 거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갓난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더 이상 친정집에도 머무르기 어려웠던 김옥희는 서울에 살던 언니에게 가서 1년 가까이 지냈다. 이때 우연처럼 남편과 재회할 수 있었다.

### 무너지면 짓고, 무너지면 또 짓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돌아오니 그 사이 가세가 기울어 있었다. 트럭을 사서 운수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집을 담보로 중고차를 샀는데 알고 보니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시아버지는 동네 창피하다며 인계동을 떠나자고 했고 시어머니는 고향 두고 어디 가냐며 말렸다고 한다. 다행히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집과 땅을 마련하여 인계동에 남을 수 있었다.

김옥희 그렇게 속고 망하고 나니까, 동네 창피하니까, 간다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해 가지구 집을 여기다 지어 줘대잖아. 동네에서 모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조금씩 모아 가지구 집을 지어 준 거지. 그 때는 땅도 싼구. 친구가 땅도 팔아가지고 싸게 해주고 그랬대요.

김옥희가 친정살이를 끝내고 돌아온 집이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마련한, 안방과 건넌방이 있는 흙벽돌집이었다. 그 집에서 다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딸을 낳았다. 당



슬래브 주택의 안마당(1993년, 김옥희 제공)

시는 집 주변이 모두 논이라 바닥에서 물기가 올라와 얼마 못 가 무너지다시피 했다. 그걸 부수고 시멘트 벽돌로 방 2개와 부엌이 있는 집을 다시 지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막내아들을 낳았다. 지금 막내가 54살이니 1963년도 즈음이었다.

시아버지가 복덕방을 하면서 형편이 조금 나아져 7자로 다시 집을 지었다. 그런데 그 집이 또 망가졌다.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땅을 반으로 나누어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주면서 김옥희 부부에게는 집을 지으라고 60만 원의 건축비를 주었다. 그 돈만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어서 김옥희의 남편은 처남에게 부탁해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 보탬다. 비가 새는 것이 지겨워 이번에는 슬래브 집을 지었다.

집을 짓고 난 후에는 빚 갚는 것이 일이었지만, 남편이 직장에 다니던 때라 별 문제 없어 보였다. 남편은 수원고등학교

동창들이 평택에 개원한 경기병원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취업한 지 3년이 채 못 되어 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원금과 이자가 몇 달 연체되었다.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

**김옥희** 그 300만 원을, 나는 본전이랑 이자하구 갚는 줄을 몰랐어. 재네 아버지랑 남동생 이랑 우리 시누 남편이랑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거니깐. 재네 아버지가 봉급 타면 그것 다 주고 나면 가져오는 게 없더라고. 그땐 할아버지, 할머니 다 계시지 뭐. 사는 것은 그럭저럭 살고 ..... 그래 가지고 갚기가 힘들구. 우리 집으로 은행에서 빨간 딱지를 붙이러 왔대, 우리 친정으루. 우리 올케가 펄펄 뛰고 난리가 났어. 우리 올케도 그런 거 해 주는 것도 몰랐겠지. 나도 나중에 알게 되고 .....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안방을 내놓고 전세를 났어요. 그리고

다 건넌방으로 몰렸어. 노인네랑 우리랑 다. 그래 가지고 전세를 났서 그거 갚아서, 우리 동생네 빨간 딱지를 면하게 해주고. 아후 ..... 참 힘들게 살았어. 내가 그거를 이겨 나가느라고 .....

첫 번째 기와집에서 낳은 큰아들, 두 번째 흙벽돌집에서 낳은 둘째 딸, 세 번째 시멘트 집에서 낳은 막내아들과 시부모님을 포함해 일곱 식구가 건넌방에서 함께 살았다. 그래도 내 집이었기 때문에 ‘갼신히 갼신히’ 어떻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2000년도에 집 앞으로 길이 난다고 방 하나가 잘려 나갔다. 그래서 다시 지은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다.

### 보험회사와 병원, 노인정과 동창모임

생활이 어려워졌지만 내성적이던 김옥희는 직장에 다닐 엄두도 내지 못했다. 10년이 넘도록 시어머니에게 어디 나가겠다는 말을 꺼내지도 못했다. 그러다 결혼한 지 15년을 지나서는 인조 눈썹을 만들거나 수출용 스웨터를 뜨면서 애들한테 쓸 용돈을 마련했다. 그 후 40대 중반이던 1983년 친구 소개로 보험회사에 다니게 되었다. 내성적인 성격 탓으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찌질 못하고 친정 동생과 친·인척에게 부탁해 시부모님과 가족들의 생계에 힘을 보탬다.

꾸준히 다니던 보험회사를 그만둔 것은 남편이 죽고 난 후였다. 2001년 12월 30일이 었다. 말짱하게 걸어서 들어간 병원에서 남편은 살아 나오지 못했다. 그렇게 기다리던 월드컵을 보지 못하고 2002년 1월 1일 장례를 지냈다. 남편이 죽고 보험회사를 그만두었다. 애들도 어느 정도 자랐지만 무엇보다 몸이 좋지 않았다.

3년이 지난 2005년 김옥희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일하러 나가는 동네 사람을 졸라 함께 일을 다녔다. 아파트 청소하는 일이었다. 무릎이 아파 약을 먹으며 다녔다. 그런데 병원에서 처방받아 지은 약이 아니라 시중에서 구한 약이었다. 먹으면 무릎 통증이 없어져 그걸 먹으며 청소를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얼굴이 부어올랐다. 늘 다니던 정형외과를 찾았다가 그동안 복용했던 약의 위험성을 듣고서 일을 그만두었다.

70살이 되던 2009년에는 무릎이 낫는다는 소리에 침을 맞으러 갔다가 몸이 너무 약해서 안 된다는 말만 듣고 돌아왔다. 그날 집에 와 쓰러져 밥도 못 먹고 누워 있었는데 아들이 끓여 준 미음과 음료수 한 모금을 마시고 겨우 일어났다. 김옥희는 2016년에 다시



팽나무고개경로당. 경로당 회원들은 김옥희의 동네 친구들이다.

쓰러진 후로는 정신이 더 없어졌다. 일도 그만두고 몸도 약해진 뒤로는 집과 경로당을 오가며 지내고 있다.

김옥희가 팽나무고개경로당 사람들보다 더 오랫동안 만나 온 사람들이 있다. 초등학교 동창들이다. 보험회사에 다니던 40대 중반부터 만나는 모임이다. 과천과 서울에서도 와서 열 명 넘게 모이는 모임이다. 지금은 7명 정도 모이지만 40년 가까이 꾸준히 만나고 있다. 환갑이 되던 해에는 서울에서 옷 장사를 하는 친구가 드레스를 가져와 그 옷을 입고 환갑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지금도 동창모임이 있는 매달 마지막 월요일은 김옥희가 가장 기다리는 날이다.

김옥희 지금도 해요. 매달 마지막 월요일날.

면담자 어디서 모이세요?

김옥희 시장 안에. 우리 친구가 시장 안에서 양장점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몇 십 년을 했



매산초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찍은 환갑 기념사진(1997년, 김옥희 제공)

어요. 지금 딸이 그 자리에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해요. 그 집 자리를 딸을 찾아. 우리는 그 교회에서 만나요. 교회 2층에 찻집을 냈더라고. 점심 먹고 헤어지는 거지. 8명이 모여요.

## 끝나지 않은 선택의 기로 그리고 후회

김옥희는 10살에 매교동 팽나무고개로 이사를 왔고 길 건너 인계동 팽나무고개에서 60년을 넘게 살았다. 친정살이를 하면서 언니가 사는 서울에 몇 달 가 있을 때 말고는 매교동과 인계동이 김옥희가 살아온 삶의 공간이자 경험한 세상의 전부였다.

5번이나 짓고 다시 지은 집일지라도 집이 있어서 먹고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다. 그저 말 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해 준 것이 없어 정을 못 붙이고 살았던 시집살이가 어려웠을 뿐이다. 김옥희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착한 남편 때문이었다. 아무것도 나



재개발로 철거될 예정인 김옥희의 집

쁜 것은 없는 사람이었다. 다만 돈을 잘 벌지는 못했다. 하지만 돈 못 번다고 안 살 수는 없었다. 남편을 대신해 김옥희가 돈을 벌었다. 번 돈을 까먹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왔다.

**김옥희** 보험회사 다닐 때는 많이는 못 벌어도 그런대로 벌어서 살았어요. 있던 것도 버리기도 했구. 우리 막내둥이가 사기 맞아가지고 그것두 갚아줬구. 그 뭐야 약장사, 거기도 좀 땡기면서 돈도 좀 버리고. 벌면서 살았으니까. 그래도 노인네들 밥은 안 굶겼으니까. 잘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돌아갈 때까지 함께 살았으니깐. 그저 힘들게 살었지만, 어떻게 살었지만, 그래도 잘 살았어요.

집과 가족 외에 김옥희가 인계동에서 내내 살 수 있도록 한 것은 동네 사람들이다. 전 회사집 딸이라고 불러 주며 집에 와 일하던 사람들, 부잣집이던 시댁에 와서 일하던 사람들, 보름 뒤 혼인을 앞두고 너나없이 나서 혼인 준비를 해 주던 사람들, 동네를 떠나려는 시댁을 말려 땅을 주고 집을 지어 살게 해 준 사람들이었다. 지금도 집과 50m 거리에 있는 팽나무고개경로당은 김옥희에게 집과 같은 곳이다.

아무리 무너져도 다시 짓고 세우며 살아오던 집이 재개발로 다시 무너지게 되었다. 이번에는 다시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곧 집을 구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보상받은 돈으로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상금의 절반은 전세비로 내주고, 그 와중에 5,000만 원을 또 동네 사람에게 떼었다. 남은 돈으로는 인계동에서 집을 사기가 어렵다. 여든을 넘긴 김옥희는 강요된 선택 앞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고 한다.

**김옥희** 이렇게 하고 사는 것도 이날 이때까지 살았는데, 인제 집을 내놓고 가게 생겨 가지구 그러네 ..... 버리고 전세로 가느냐 사느냐가 지금 애로에 놓여 있어. 3월 달까지 나가야 된데, 그 안에 집 얻어야 되는데, 내가 혼자 어떻게든지 해가야 되는데 걱정이네. 전세로나 갈까 해니까, 지금까지 내 집 거느리고 살다가 지금 이 나이에 전세를 가야 하는가 그 섭섭함이 있구. 또 어떡하면 '에이 내가 살면 얼마를 산다고 집을 사서 가라.' 이 생각도 있구. 지금 기로에서 있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은 난리야. 그 나이에 왜 남의 집으로 가실라 그러냐고 난리야. 전세로 가면 집세 올려 달고 하고. 많이들 그러니까 또 그냥 이리지도 못하겠고, 저리지도 못하겠고 그러더라구.

송  
은  
정



이진희

경기민예총 문화위원장

## 인계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 송은정



송은정은 1963년 신평동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가 축산공무원이어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오목천동에 있는 축산시험장 관사에서 살았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신평동에 들어와서 살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동으로 이사를 했다. 1987년 10월에 결혼 할 때까지 교동에서 살다가 인계동으로 시집왔으니 송은정은 내내 수원에서만 살았다.

송은정의 시아버지는 철도공무원이라 화성역 근처 관사에서 살다가 수려선 폐선 이후 관사를 불하받아 그곳에 사셨다. 송은정도 결혼 후 관사에서 1년간만 지낸 적이 있다. 송은정은 인계동에서 마을 활동가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산 지 벌써 오래다. 재개발 때문에 오목천동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 있지만 송은정은 인계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인계동을 한울타리로 만들고자 애써 온 송은정의 삶의 이야기를 이제 그의 목소리로 들어보자.

### 수려선 폐쇄 후 분양된 관사

결혼해서 살았던 집 뒤가 철도 관사였어요. 옛날 일본식으로 일자로 칸을 나눠서 집이



인계동 779번지 집(1970년대, 송은정 제공)



인계동 779번지 집 안마당(1970년대, 송은정 제공)

여섯 채인가 일곱 채가 관사였어요. 철도국 직원들이 살 수 있게끔 되어 있었죠. 그곳은 주소가 매교동 232-3번지로 되어 있고요. 그때만 해도 관사였던 뒷집에도 사람이 살았고 다른 관사에도 사람들이 살았고, 사람들이 다 살았었어요. 다 단층 양옥집이었어요. 저 결혼할 때도 개발된다고 하니까 수리하지 말고 살자 이래서 안 고친 거예요.

그런데 계속 비전이 없었어요. 옛날만 해도 주방이 계단 밑으로 내려간 형태라서 이상하게 이건 양옥도 아니고, 부뚜막도 있으면서 급할 때는 부뚜막에서 메주콩도 삶고 할 정도로 일식이 약간 섞인 양옥집이었어요.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장롱도 방안에 못 넣고 별채에 나눠서 넣고 살았는데, 아이들이 크고 삼대가 살다 보니까 불편해서 안 되겠어서 관사 말고 그 앞에 779번지에 집을 지은 거예요. 이후 저희가 살던 곳 주소는 인계동 779-4번지였어요.

관사하고 살았던 곳 사이가 매교동과 인계동의 경계예요. 집 뒤쪽 축대 위에 매교동성당이 있고요. 그 밑으로 마을이 있었던 거죠. 관사는 축대 아래쪽에 있고요. 옛날에는 수월역이나 매교동에서 인계동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거기 하나였어요. 지금 있는 다른 길들

은 한참 후에 뚫린 거고요. 매교다 리에서 개천 옆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기 전 가운뎃길이에요. 그 길로 쪽 들어오면 축대 밑 바로 두 번째 집. 시부모님이 관사에 사셨는데 철도가 폐쇄가 되고 나서 철도국에서 관사를 분양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직원이셨으니까 먼저 구입하신 거죠. 자기 집 앞마당을. 사실은 마당도 아니고 그냥 실개천이 있는 공터였대요. 그래서 거기에 텃밭처럼 근대 심고, 우영도 심어서 농사를 지어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애아빠 초등학교 때인가 그 밭 자리에 단층 양옥집을 지은 거예요. 그게 779번지예요. 거기에 새로 집을 짓고 살고 관사집은 세를 주고요.

그 세준 관사집은 그대로 도배를 하고 지붕만 갈았어요. 지붕이 이어져 있었어요. 저 결혼하고도 몇 집이 합해서 기와를 갈았어요. 아무튼 애아빠 초등학교 때 집을 새로 지었는데 제가 시집을 갔을 때만 해도 애아빠가 이십대 후반에 결혼했으니까 그 집이 20년 넘은 집이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779번지 그 자리에 다시 집을 지었어요. 그 집 짓는 1년 동안은 관사집에 들어가서 살았고요. 그래서 관사집에 대한 추억이 있는 게, 집이 일자예요. 들어가면 주방이 있고 일식 마루에 다다미방이 있고, 또 방이 있고. 뒷마당 창문도 일식, 방 내부에 '오시이레(おいしい)'라고 이불 넣는 붙박이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를 주고 이러면서 마루도 양식으로 깔고 보일러도 깔면서 바뀌었는데, 기본 구조는 그대로예요. 지금 와서 다른 데 역사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그런 걸 보존해 놓지 않은 게 너무 아까운 거죠.

관사도 많이 수리는 했지만 아직 형태는 남아 있어요. 저희가 살던 집은 세를 주고 이리다가 한 십 년을 비워 뒀는데요. 왜냐면 세 들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그냥 떠나가서 물



1970년대 송은정 시댁식구들(송은정 제공)



인계동 철도국 관사  
회색 지붕의 관사 옆 3층 적벽돌 건물이 779번지에 새로 지은 집이다.

건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처분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을 봐 뒀는데 너무 오래 되고 해서 안전문제도 있었고, 게다가 개발된다고 하니까 세를 안 주고 그냥 뒀던 거예요.

### 인계동 779번지 새로 지어 올린 3층집

저희 아이들 유치원 다닐 때쯤 해서 779번지에 3층으로 집을 다시 지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 집에서 아이들 18년을 살았나 그러네요. 1층은 세주고 일부는 창고로도 쓰고, 2층에서 아이들하고 시부모님께서 생활하셨고, 저희 부부가 3층을 썼고요. 저 결혼했을 때 그 동네 골목에서 제가 제일 젊었어요. 포래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지금은 나이를 먹고 마을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치유가 됐는데 아이들 어렸을 때는 그게 안 됐었어요. 맨날 뱅뱅이 도는 생활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떠나고 건물만 남은 인계동 779번지 3층집

아이들도 친구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대문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거기 올라가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게 놀이였어요. 동네에 아이들이 없었어요.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가요. 애들 학교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젊었지만 시부모님하고 살았으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시부모님께서 연세가 많기도 했고요.

다른 것, 교통이라든가 시장 가까운 것 이런 거는 인계동이 참 좋아요. 바로 남문시장 있고 백화점이 있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너무 힘든 게, 포래 없지요, 복지시설이 없었지요, 도서관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문고가 처음 생겼어요. 인계동사무소 내의 마을문고, 그리고 애들 놀이터도 공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고개를 넘어가야 있거나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철도가 폐쇄되고 나서 들어온 게 공구상가였어요. 농수산물시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처음 왔을 때 축대 밑에 뭐가 있었느냐면, 술집, 여자들이 있는 흥등가.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아버님이 철도공무원이라 이곳에 사셨던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뭐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어머님 아버님은 결혼해서 여기 와서 관계를 맺고 그 친구 분들이 다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족 안의 일들은 좋았는데 집 밖 환경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출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유치원에 다니면서부터, 유치원에 가려니까 나가야 하잖아요. 거기서 엄마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사귀고, 동창도 만나고 이러면서 조금씩 바깥 활동을 했지요. 유치원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진명유치원이라고, 매교동 수원고등학교 가는 쪽에 있어요. 경기열쇠 위쪽으로 가면, 유치원도 당시에는 주변에 그곳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교동하고 인계동이 마을로는 약간 떨어져 있지만 가까운 거리를 오가며 친구를 만나게 된 거죠.

아이들이 많이 심심해 했어요. 학교를 가도 여기 고개를 넘어와 있어야 하고 중학교도 동네 밖으로 나갔어요. 초등학교는 인계초등학교를 다녔고, 중학교는 매원중학교. 고등학교는 큰애는 효원고등학교 다녔고 작은애는 수원여고에 다녔고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곳 중에 제일 다니기 편한 데를 다녔어요.

아이 낳고 떡을 돌렸어요. 그때만 해도 가을이면 '가을떡'이라고 해서, 추수 끝나고 가을쯤 되면 집집마다 고사떡이라는 걸 했었어요. 방앗간에서 쌀을 빻아 가지고 와서 집에서 시루에다가 직접 안쳐서 떡을 찌셨어요. 그리고는 기원하듯 부엌에다가도 놓고 어디에 다가가도 놓고 그랬어요. 풍습이었죠. 그게 저희 집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을 전체가 그렇게 했었어요. 시간차를 두고 한 날은 이 집이 떡을 하면 그다음 날 또 몇 집이 떡을 해서, 가을 그 시기에는 계속 시루떡을 서로 주거나 받거나 했던 기억이 나요. 생신 때도 서로 왔다갔다 했고요.

옛날에는 마을에 행사가 있으면요, 다 통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통·반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역할을 맡으면, 저희 앞집에 사시는 분이 부녀회장이셨는데, 우리 어머님은 통장도 하셨고. 그래서 뭘 했냐면 마당 대문을 열어 놓고 마당에서 전을 부쳐요. 그 통에서 쓸 것들을. 그래서 동네 행사할 때 같이 했죠. 옛날에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길에서 그냥 돛자리 깔고 전 부치고 그랬죠. 대부분 대문 열어 놓고 살았고요. 제 경우는 제가 그 동네에서 제일 젊으니까 바깥을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했어요. 나가면 항상 누구네 며느리 간다고 이랬을 정도였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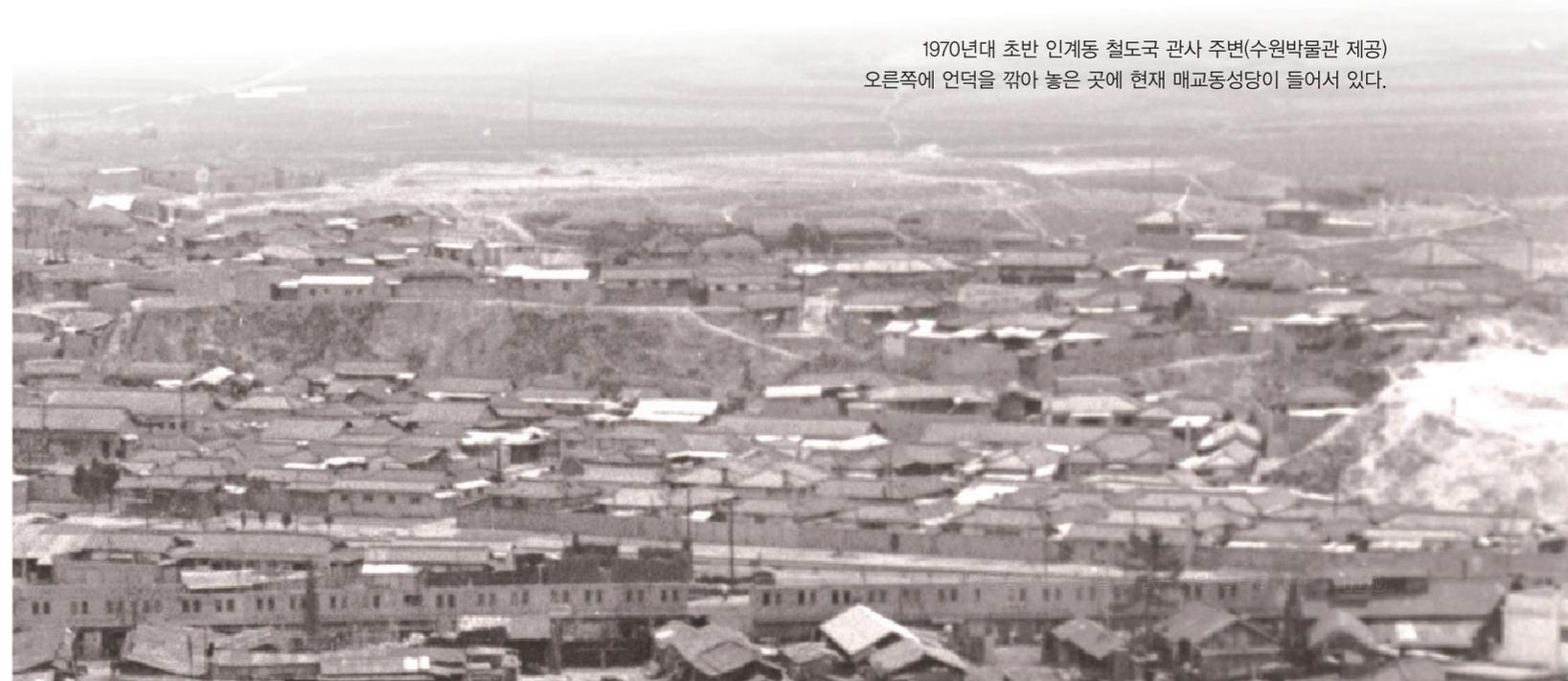
## 철도가 지나던 시절의 이야기들

저희 아버님은 철도공무원이기는 한데, 전기시설을 하는 업무를 맡으셔서 수원에만 계신 게 아니었어요. 관사는 여기로 정해졌는데, 수원역으로도 출근하고 지방에도 가서 몇 년 계시기도 하면서 떠돌이처럼 파견을 많이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철도공무원이 말이 공무원이지, 아버님이 외지에 가 계시면 어머님이 집에서 토끼도 키우고 닭도 키워서 팔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여기가 시장하고 가깝잖아요.

그래도 철도 관련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수려선이 수원공고 언덕을 지나가고 하면, '깔딱고개'라고 하냐요, 거기서 기차가 늦춰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서 기차를 밀기도 했다고도 하고. 그리고 기차가 석탄을 연료로 다녔잖아요. 그래서 철도공무원들은 지나가는 기차에서 석탄을 받아다가 땀감으로 썼대요. 애아빠가 맨날 거기 가서 석탄 받아 오고 이랬던 거, 화성역에서 받기도 하고, 직접 기차에서 받기도 하고요. 그 기차를 타고 어디를 다녀오기도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더운 물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운 물도 받아 왔다고.

옛날에는 성당 축대가 그냥 산등성이였대요. 시택이 딸이 넷이잖아요. 어떤 때 밥하기가 여의치 않으면 찌뽕을 사다 먹는다는 국수를 사다 먹는데 그러려고 언니들이 나가고 나면 동생들은 집에 있기 무서워서 그 언덕, 산등성이에 올라가서 집을 지켰대요. 옛날에는 환자들, 문동병 환자들끼리 꼬마 잡으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맨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집을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집이 다 들어섰지만 예전에는 그 언덕에 집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1970년대 초반 인계동 철도국 관사 주변(수원박물관 제공)  
오른쪽에 언덕을 깎아 놓은 곳에 현재 매교동성당이 들어서 있다.



저희가 막내로 출가했으니까 연세가 있으셔서 친구 분들하고 왔다갔다하시고. 생신 때 되면, 그때, 우리 어머님 때는 계라는 것을 하셨었어요. 친목계.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임하고, 생신 때나 무슨 날이면 집으로 다들 초대해서 같이 밥 먹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되게 강단이 있으세요. 그래서 뭘 할 때다 이러면, 일등을 하셔야 해요. 김장 한다 얘기 나오면 먼저 배추부터 사다가 놓으시고. 그래서 건강하셨어요. 그럴 수 있는 조건이 된 게, 그때만 해도 농수산물 시장이 가까이 있었어요. 농수산물시장이 권선시장으로 옮겨 가기 전에는 그 단위농협 자리 있죠, 철도가 빠진 자리에 농수산물시장이 들어온 거니까요.

집하고 시장이 엄청 가까웠죠. 골목 하나만 지나면 됐으니까요. 그리고 옆에 집들이 다 뭘 하셨느냐 하면요, 농수산물시장에서 삶은 나물을 파는, 우리 바로 옆 축대에 있는 집은 나물집이었어요. 나물 삶아서 내다 파는 집. 그래서 항상 나물 삶는 냄새가 났고요. 관사집 뒤쪽에는 지금도 영동시장에서 야채가게 하시는 분이 사시고, 지동시장-못골시장의 상인들, 아니면 철도공무원이라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 동네에 사셨어요. 아니면 외부에서 제일 가까운 입구였잖아요. 삼성전자와 연결된 사람들도 살았고 그렇더라고요. 삼성전자 통근버스가 전기회사다리에서 출발했거든요.

전기회사가 거기 있어서 그곳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는데, 철도니까 전기가 제일 먼저 연결이 됐지요. 그리고 관사니까 마을에서 전기가 제일 먼저 연결됐고요. 문화의 접속이라든가 세상의 흐름에는 되게 빨랐는데 경제적인 부분은 진짜 서민으로서 겪을 것은 그 시대에 다 똑같이 겪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옛날에 어머님이 재봉질해서, 시누들이 다 수원여고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구제품을 가져다가 수원여고 교복을 어머님이 다 만들어서 입혔다고 하시고.

## 집에서 벗어나 활동을 시작하다

결혼하고 얼마까지는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유치원 교사로 안양으로 일을 다녔지요. 옛날에는 유치원은 오전 수업만 했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근무 안 했으니까요. 그렇게 애들하고 정을 주고받고 그랬는데, 그것도 일이라고 힘이 들어서인지 얘기가 안 생기니까 관뉘라 해서 일을 그만뒀지요. 당시에 부모님께서 연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가 바로 들어셨는데, 한 십 년만 아이 키우면서 부모님 모시면 되겠지 했는데, 친정 부모님은 네가



교통에 있던 수원문화원(1999년, 수원시청 제공)

시부모님을 모셔 봤자 얼마나 모시겠냐 했는데, 이십 년을 모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일상이었던 거고, 우리 부모님도 그러고 사셨으니까 나도 그러고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며느리 입장이 그거더라고요. 나 한 사람이 모른 척 넘어가면 다 괜찮아요. 아무일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어떤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나도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해가 갈수록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 들어가면서 시간 외적으로 풀 수 있는 걸 찾자 했는데, 인계동 동사무소가 현재 여기가 아니라 요 밑 새마을금고 자리에 있었어요. 집에서 나오면 일직선이고 아주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많은 시간은 못 냈죠. 아버님이 환자셨으니까요. 당뇨식을 하셔야 해서 아침-점심-저녁 식단 조절을 해 드려야 해서 활동을 못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있으니까 문고에 와서 봉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문고가 정말 탄탄하게 잘 되어 있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옛날에 인계동이 되게 부유했었거든요. 그래서 문고에서 퇴짜를 맞고 나서 있다가 수원문화원을 간 거예요.

가족여성회관 자리에 수원문화원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맨 처음에는 문화



수원문화원 한지공예반 작품전시회(2004년, 수원시청 제공). 안내를 하는 사람이 송은정이다.

강좌, 자치대학이 수원에서 처음이어서 그걸 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수원 토박이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형제 10형제 관계에서 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당시 문화원장님과 아버지가 선·후배 관계이시고, 문화원 사람들도 그랬어요.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저희 엄마 친구 분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온 김에 봉사 한 번 해라 해서 시작한 게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수원사랑어머니회’라고, 거기 회장을 일찍 했어요. 회장을 한 지가 십 몇 년 됐나요, 지금도 회장이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제일 젊었어요. 수원사랑어머니회는 이십 몇 년 된 단체인데요, 회장으로서는 제가 4대 회장이예요. 지금 여성가족회관 관장님께서 제 전임 회장님이세요. 연배들이 저보다 다 높으세요. 문화 봉사, 바우처 행사를 다녔어요. 요양원, 장애인 시설 같은 데 가서 저희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활용해서 치료 프로그램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행사가 있으면 의전 활동도 하고요.

문화원이라는 데가 큰 행사가 많잖아요.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걸 하려고 아침 10시까지 진짜 부지런히 점심밥까지 준비해 놓고 나가고, 점심때 되면 서둘러 집에 돌아와서 점심 챙긴 후에 나갔다가 저녁 해질 만하면 가슴을 벌렁벌렁하면서 돌아오고. 그런데 그게



극단 수원사랑 단원들(2001년, 송은정 제공)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했잖아요, 친구랑 같이. 그게 되게 힘이 됐었어요. 그리고 문화원에 나가면서, 문화라는 게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로써 영위할 수 있는 것을 문화원 안에서 다 해결했었어요.

1990년대 말부터 문화원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시 문화행사를 문화원에서 다 주관했었어요. 지금은 수원문화재단 등에 분담이 됐지만요. 그 일들이 힘들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원 활동이 저에게는 집에서 풀지 못한 것들을 풀 수 있는 배출구였어요. 문화 혜택을 받으면서 아이들도 돌볼 수 있고, 치유를 받고, 대접도 제대로 받는, 존중을 받는 그런 곳이 문화원이었어요.

문화원 활동을 하면서 사무국에서 사무는 봤지만, 문화원 관리 프로그램의 의전이라든가 대보름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수원사랑어머니회에서 했고,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프로그램도 확장하고 그랬죠. 거기서 활동한 것 중의 하나가 결혼하기 전에 했던 한지공예인데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하면서 직업으로 전환하기도 했었어요. 연극 동아리를 만들어서 수원연극제의 초창기 오프닝 무대에도 섰었고, 아마추어 여성극단 대회에 나가서 대상도 받았고요. 그래서 문화의전당에서 공연도 갖고.

수원에서 태어나서 수원 지역의 문화 습성도 갖고 있는 데다가 문화원에서 했던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 대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공연마다 공연 티켓을 얻을 수 있었어요. 문화적인 부분은 많이 누렸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바탕이 돼서인지 남들보다는 조금 넓게, 멀리 보는 시야가 생겼어요. 한지공예를 같이 하던 팀하고 전국대회도 8회까지 해 봤고요. 그런 반면에 집안에는 약간 소홀해졌던 부분도 있지요.

## 인계동에서 꽃 피운 활동들

여기 인계동 일은, 이전에 동정자문위원회였던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프로그램 진행을 하기 어려우니까 위원장님께서 운영 팀을 따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시하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제가 인계동에 사는 걸 아니까 다른 곳에 있는데 거기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인계동에 살면서 인계동을 위해서 봉사를 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한 일 년만 일하려고 했어요. 제가 맡고 있는 단체도 있고 해서 일 년만 틀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다 싶었지요.

문화원이라는 큰 단체에서 했던 경험들, 시스템 같은 것들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곳 운영 팀은 그냥 마을 안에서 봉사하는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운영 팀 분들과 정례화된 회의를 하는 것부터 문서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연계 사업하는 것들을 같이 했죠. 일한 지 15년, 16년 돼 가는 것 같아요. 1년만 한다고 한 일이 여기까지 왔고, 지금은 외부 활동을 다 접었어요. 4년 전부터는 자원봉사 활동도 내려놓았지요. 한지공예 같은 경우도 하기는 하고 회장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지금은 지역 행사 있을 때나 같이 하고 협회에 있으면서 중간 역할 하는 것 정도만 하고 있어요. 저 혼자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같이 기획하는 것이 저한테 적합하더라고요.

기획하는 게 좋아요. 여기 인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다 같이 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을 대표하실 분들로 구성되는데, 행정 쪽에서 결정하는 것들 중에서 자치적으로 해야 하는 동 행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의 행사를 실행하죠. 마을음악회, 발표회, 일일찻집, 경로잔치 등 오만 것들, 행정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동 행사들을 다 해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는 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그 행사와 연계해서 회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고 진행할 지를 정하지요. 그리고 행복자치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들도 하고요. 그리고 협약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 지소 역

할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의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그걸로 사람들이 모이면 동아리를 만들어서 행사할 때 또 같이 하고요. 여기 있는 팀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육 받으신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죠.

이분들도 활동한 지 벌써 6년이 됐네요. 팀 이름도 있어요. ‘여우천사’라고. 여우천사는 비영리단체라 수익 사업은 못하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알아서 천 원씩 얼마씩 내고 차를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 년 사업을 해서 재료비, 운영비 빼고 남은 것들을 내일 불우이웃을 위한 기금 전달식을 해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그 수익을 환원하는 거죠. 그리고 마을 안에 행사가 있으면 가서 차를 제공하는 봉사를 하는 거고요. 문화원에서도 그렇게

인계동 다울공동체 사무실(2013년, 수원시청 제공)



했거든요. 음악회나 무슨 행사를 하려면 각 팀에서 그 팀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축제를 운영하고 진행해서 모은 수익금을 연말에 기금으로 전환하고 그랬어요. 여기도 비슷해요. 대신에 이분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긍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부여하기 위해서 교육을 연계해 드리고 있고요.

운영 팀 활동으로 인해서 여러 주체들, 그러니까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주체들이 여러 개 만들어졌고요, 그 중의 하나가 여우천사 찾집인데이. 여기 공간이 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못 써요. 그런데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빈집들이 많았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공방이 필요하기도 했고, 빈집들이 있으니 그걸 활용해서 행궁동에 있는 레지던시 비슷하게 만든 게 다울공동체예요. 다울공동체는 2013년에 만들어졌어요.

다울공동체 청소년 다도 체험(2014년, 송은정 제공)



## 호매실동으로 이사를 가긴 했지만

송은정은 2018년 5월에 호매실동으로 이주했다. 결혼해서 인계동에 들어온 후 30년만의 이주였다. 삼성전자 연구소에 근무하던 남편이 회사가 광주로 이전할 때 송은정과 아이들도 함께 내려갈까 고민한 적이 있다. 그러나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외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남편이 직장을 옮기고 인계동에 남기로 했다. 그러나 인계동 재개발사업으로 결국 한동안 인계동을 떠나게 되었다.

2018년 2월 말이 이주 기한이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머니도 계시고 아이들도 아파트보다는 주택을 원했어요. 이곳을 분양을 받고 다시 들어온다는 조건 하에 주거할 곳을 찾다 보니까, 전세나 이런 것은 3대가 살던 저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살던 것에 맞게 나온 구조가 없더라고요. 지동, 행궁동 등지의 구도심권을 돌았는데 가격도 안 맞고요. 그래서 전원주택을 지을까 준비를 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임시로 정자동으로 갔고 거기서 3개월을 살았어요. 돈을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 작은 평수에서 살았는데 그동안 어머니는 형님께 부탁을 해서 거기 가 계셨고요. 그런데 3개월 안에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약은 3개월을 했는데. 그런데 마침 호매실동에 임대아파트가 비었다고 해서 5월에 거기서 이사를 했어요.

아마도 어머니는 지금 이곳에 뿌리 내리고 살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마음이 정착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일 걱정은 '내 생전에 다시 인계동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예요. 원래 계획보다 모든 것들이 미뤄지고 있거든요.

이사는 갔지만 저는 제 뿌리가 인계동과 공동체 공간에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원에서 나와서 다울공동체 일을 하기 전까지는 단체랑 활동을 했었는데 공동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두 가지 일은 못하겠는 거예요. 수원사랑어머니회는 회원들이 연세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친목이 목적이구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대소사 있으면 기쁜 일, 슬픈 일들 나누고, 이십 년 정도를 같이 했기 때문에 관계가 자매처럼 돈독해요. 문화원에서 처음 프로그램 할 때 그분들을 일주일에 3~4일은 만났고 문화행사가 있으면 다 같이 나갔고 그랬죠. 제가 문화원에서 나온 게 『수원문화원 50년사(2007)』 발간 이후니까 나온 지 10년 됐네요. 한지공예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각자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획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작품 활동을 하기보다는 공동체 활동을 같이 하는 게 좋았고요. 이젠 다른 외부 일은 거의 안 해요.

전에는 시 단체장 모임 하나 빼고는 거의 참여했었는데, 이제는 여성단체 일은 안 하고 마을 일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일은 되게 편하게 해요. 주변에서도 애기하는 게, 제가 뭘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제가 이 일을 접어도 이 속에서 놀 수 있는 터가 인계동이 된 것 같아요. 활동하면서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또래는 없는데 선·후배들이 많아요. 자치센터 봉사하면서 일하는 운영 팀들, 아니면 단체원들.

저희 애아빠가 인계동 그 관사집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환갑이 돼 가는데, 친구들이 문패를 보고 찾아와요. 이 동네에 태어난 그 자리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저희 애아빠밖에 없을 거예요. 관사집 앞에 집 지으면서 관사에 가 있으면서 벽돌이 쌓이면서 층 올라가는 것, 계단 놓는 것들을 다 봤잖아요. 그 집을 설계할 때부터 모든 것을 우리 가족이 같이 했거든요. 창문은 목수하고 싸우는 바람에 기울어서 여름 내 비가 샐고 하는. 그 집에는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관사에서 살면서 일하시는 분들 간식 만들어서 챙겼고요. 다 지은 다음 들어가서 가구는 어떻게 들였고 하는 추억들이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면서 소파가 몇 번 찢어져 나간 거며.

그 집이 3층이지만 땅 평수는 17평밖에 안 되게 좁아요. 넓은 평수로 지을 수 있었는데, 재개발 때문에 도로가 난다고 해서 길이 날 부분을 내놓고 집을 지었어요. 게다가 그 전에는 집과 집 사이의 간격을 생각하지 않고 집을 지었는데, 소방법이 생기고부터는 일정 간격을 떨어트려 지어야 했기 때문에 버려지는 땅이 많았지요. 그랬어도 저희 3대가 살기에는 최적의 공간이었어요.

그 시절에 엄마한테 물려받은 재봉틀로 직접 커튼도 만들어서 그 집에 달았죠. 그 재봉틀은 브라더미싱 초창기 모델인데 부속품이 없어서 보상판매 받아서 바꿨는데 이제 제 딸이 제가 쓰던 미싱을 쓸 거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재단할 때 쓰시던 가위, T자형 나무자가 저한테 다 있어요.

저희 시아버님께서 일기를 그렇게 계속 쓰셨어요. 그 일기를, 이사하기 전에 애아빠랑 얘기를 해서 이걸 수원학연구센터에 전달을 해서 기록으로 남기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자 했는데, 이삿짐 싸고 할 때 수원학연구센터에서 오셨는데 애아빠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왜냐면 그 일기에 그날의 날씨부터 무슨 사사로운 일 있었던 것, 그날의 기분까지 개인사가 다 들어있잖아요. 세금 낸 내용들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 일기가 박스로 몇 개예요. 그런데 애아빠가 마음이 바뀌어서 기증하기 싫다고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삿짐 속으로 들어갔어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보다 공적인 부분이라든지 바깥으로 내놓을 것들을 책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가지 마음

이 있어요. 사적인 것을 내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미래를 생각하면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저희 시대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자리에서 태어나서, 그렇잖아요, 애아빠뿐 아니라 누님들도 그 자리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분들이 다 칠순이 넘으셨는데. 어머니는 오산 분, 아버님은 화성 분이셨어요. 예전에 다 수원군에 속한 곳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그 관사집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꽃상여 타고 병점으로 가셨던 얘기도 하시고. 병점이 원래 집안 산소 자리인데 거기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조암으로 이전을 하게 된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종종 땅을 해 놓으신 거예요. 보기 좋게 해 놓으셨죠. 지금 그 자리에 본인 가셨으면서 부모님도 모셨고 그 다음에 저희와 자식 대까지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가셨죠. 그런 걸 보면 사람이 그냥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 사람은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태어난 곳을 가꾸고 그곳에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그곳의 이웃, 친구들과 연결되면서 한 공간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스며든다. 마치 마을을 지키는 나무처럼 오래 한 곳에 머무를수록 뿌리는 더 튼튼해지고 잎사귀는 풍성해진다. 인계동 팔달10구역은 크나큰 변화를 겪겠지만 그곳에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곳에서 살아갈 사람들로 인하여 또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송은정의 시아버지와 아들(1990년대 중반, 송은정 제공)  
아버지가 터 집은 인계동 779번지에서 아들이 성장했고 손자가 태어나서 자랐다.

안  
중  
순



윤 유 석

(사)역사문화컨텐츠연구원 연구원

## 3대를 이어 가는 대성방앗간의 안주인 안중순



### 인계동, 대성방앗간과의 인연

안중순은 1960년 수원시 정자동 525번지에서 태어났다. 외갓집이 화홍문 근처였고, 외삼촌이 인계초등학교 앞에서 살았던 탓에 외할머니를 따라 인계동에 자주 오곤 하였다. 어릴 적 안중순이 기억하는 인계동은 빨간 민둥산과 논두렁이 있는 곳이었다.

**안중순** 그때는 내가 쪼그맣을 때, 초등학교 때 본 인계동은 완전히 별거벗은 산이었어요. 할머니 손 잡고 여기 오는데 산이 빨간 민둥산이었었는데. 산을 넘어가서 논두렁을 지나 가지고 인계초등학교 앞이 옛날에는 개천이었었어요. 그 개천 옆이 외삼촌네 댁이었었는데, 냇가 옆에서 놀던 생각도 나고. 그랬는데 내가 인계동으로 시집을 줄은 …….

인계동에는 외갓집도 있었지만 영동시장에서 이불가게를 하는 아는 언니가 있어 시장으로도 자주 놀러오곤 하였다. 그때 민둥산 꼭대기에서 살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신랑은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다. 특히 손재주가 좋았다.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방앗간의 기계가 고장 나면 어머니는 아들을 불렀다. 그러면 학교에 있다가도 집에



대성방앗간 안중순 부부(안중순 제공)

가 기계를 고치고 다시 학교에 갈 정도였다. 안중순이 남편을 만난 곳은 영동시장이었다.

**안중순** 결혼은 내가 26살 때 했어요. 신랑이 시장에서 떡볶이 집을 하고 있었어요. 삼원백 화점 거기 앞에서 떡볶이 장사로 되게 유명했어요. 떡볶이 떡을 우리 집(대성방앗간)에서 대줬던 거야, 그거를. 그리고 나 아는 언니가 이불 가게를 했어요. 나는 거기로 자주 놀러가고, 이 사람은 지나다니면서 영동시장 안에 있는 형들하고 놀고. 그러다가 어떻게 둘이 눈이 맞았지. (하하하) 그래서 11월 24일 날 결혼하고. 한 7~8개월 연애하다가.

시댁은 방앗간을 하는 집이었다. 인계동에서 가장 오래된 대성방앗간이었다. 그때는 시할머니부터 시어머니, 시누이들까지 다 방앗간 일을 했다. 안중순도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다음 날 새벽부터 바로 일을 도왔다.

**안중순** 새색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떡 하는데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거를 이 날까지 4시, 5시에 일어나요.

**면담자** 새색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쌀부터 씻으신 거예요?

**안중순** 쌀 같은 것은 안 씻고 뒤에서 뒷설거지를 해주는 거지. 할 줄을 모르니까. 처녀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조리질 하는 것도 시집 와서 배웠어요. 밥해야 되는 것도 힘들었어요. 열다섯에서 스무 명 되는 밥을 해 먹어야 하니까. 아침에 밥을 한 단지를 하면 모자라서 또 끓여. 밥을 두 번씩 해. 뭘 보고 시집을 왔는지 몰러. (하하하하)

안중순이 시집 온 때가 1986년이다. 방앗간은 20년 전인 1966년 시할머니 때부터 문을 열었다. 시댁은 남창동에서 살다가 1960년에 인계동으로 이사를 와 방앗간을 시작했다. 남편이 6살 되던 때였다. 안중순이 시집 왔을 때 시댁에는 시조부모, 시부모, 시어머니의 친정 부모, 결혼한 시누이 부부, 어린 시누이와 시동생이 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옆에 살던 작은 집 식구들도 방앗간 집에 와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밥상에 숟가락이 15벌 정도 놓이는 대식구였다. 시누이 부부도 방앗간 일을 하며 그 집에 같이 살았다. 언덕 오름길의 2층 집에서 1층은 세주고 2층에 그렇게 다 모여 산 것이었다.

**안중순** 86년도에 시집을 와서 보니까 방이 3개예요. 방 하나는 우리가 쓰고, 한 방에서 장모님, 친정엄마, 신랑 외할머니, 시동생이 다 한 방에서 자는 거야. 그리고 시누는 딸이니까, 여자니까 문간방에서 재우드라구. 한 방에서 다들 그렇게 잤어요.

방 3칸짜리 집에서 대식구가 사는 것이 불편했던 탓인지 2년 후인 1988년에 집을 다시 지었다.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집의 1층을 받은 세를 주고 받은 방앗간을 차렸다. 2층은 살림집을 하고 지하에는 노인정을 만들었다. 집에 어르신들이 많아 동네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라고 지은 것인데 나중에 인계본동노인정으로 인가를 받아 정식 노인정이 되었다. 이렇게 저렇게 방앗간 주변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때였다.

**안중순** 그러다가 88년도에 집을 다시 지었어요. 새 집으로. 헌 집을 헐고. 아래층에서는 방앗간하고 위층에서는 살림하고. 집이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 점포를 만들어 세를 주고 그리고 살으셨으니까. 그때는, 내가 시집왔을 때는 여기에 사람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때만 해도 삼성전자, 한일합섬 봉급날이면 거기가, 거리가 번화가였었어요. 우리 집 그 아래가 야채시

장이었었어요. 화성상가 야채시장. 지금은 화성상가만 남아 있는데. 야채시장이 없어지고 권선동 농수산물 유통센터로 바뀌어서 다 이사를 간 거예요. 거긴 정말 비 오는 날이면 장화 없인 못 다녔었어요. 질퍽질퍽대고 …… 어마어마했었는데. 사람도 바글바글하고, 야채 쓰레기도 어마어마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장사 할 때만 해도 진짜 괜찮았었어요. 사람도 많고 인정도 많구.

결혼 후 4년이 지나 안중순은 첫째 딸을 낳았다. 그리고 연년생으로 둘째 딸이 태어났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살림만 하며 집에서 꼼짝을 못 했다. 대식구에 육아까지 챙겨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애들이 자라면서 유치원도 따라가고, 학교 봉사도 다니면서 바깥출입을 하게 되었다.



인계동 대성방앗간

안중순 시집와 가지구 한 15년 정도는 꿈쩍 안 하구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나가는 것을 싫어 가지구. 집에서 살림만 해구 살다가 애기 낳고. 애기도 늦게 낳았어. 한 4년 만에 낳았나? 애들이 유치원 다니면서 동네 봉사활동도 해러 다니구. 애들이 초등학교 3~4학년 때까지는 꿈쩍 안 하고 그 후에 학교 봉사도 다니고 동네 통장 일도 보고 그러느라고 조금 돌아다녔지.

안중순은 반장을 맡아 보다가 선임 통장의 추천을 받아 통장이 되었다.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만하고 쌀쌀맞아 보이는 인상이라며 안중순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만나 보고 사귀어 보면서 그런 오해는 자연스럽게 풀렸다. 20년 동안 통장을 맡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독거노인을 돌본 것이다.

안중순 동네에서 내가 제일 저기 했던 게,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그 노인네들을 내가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나중에는 그 노인네들이 고맙다고. 무슨 일만 있으면 나를 찾아오는 거야. 방앗간 집 며느리니까. 방앗간에 와서 앉아서, 뭘 어렵고 그런 일이 있어서 찾아오면 나는 하는 것만큼 해 드렸는데 또 모르지.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혼자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쌀을 타다 드리거나 김장김치를 얻어다 드리는 것이 통장이자 방앗간 집 며느리인 안중순의 주된 역할이었다. 아파서 찾아오는 분은 병원까지 모시고 가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집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동네일에 나섰다. 집안일 봐 두고 돌아다닌다고 시어머니의 눈총을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때 되면 집에 들어와서 어른들 끼니는 꼬박꼬박 챙겼다. 할 도리는 한 덕에 그나마 어른들의 불만은 없었다.

통장 일을 본다고 안중순이 방앗간 일을 나 몰라 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역할과 영역이 달랐다. 방앗간 안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신랑이 떡 만드는 일을 맡고 있어서 안중순은 밖으로 '비즈니스'를 하러 다녔다. 지인들을 만나면서 떡 주문을 받아 왔다.

안중순 해다 보니까 관공서에 아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관공서 이런 데로 많이 뚫고 다녔어요. 납품은 아니어도 부서별로 떡 들어가는 일이 많아요. 그러구 단체 같은 데 이런 데. 친구들이 많으니까. 건설회사 같은 데 이런 데는 상량식, 개업식이 많잖아요. 그때 필요한 거니까 이거는.

안중순은 파장초등학교와 매향여자중학교, 영신여자고등학교를 나왔다. 초등학교 동창

중에 잘된 친구들이 많다. 영신여자고등학교는 공부로 알아주는 학교는 아니었지만 동창들 중에 경기도 이곳저곳에서 예총 회장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공부는 못해도 잘 놀았던 친구들인데 커서 만나 보니 사는 것도 열심히 잘살고 있었다.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제 자리를 찾아 일하고 있는 동창들을 만나 판로를 ‘뚝고’ 주문을 받아 오는 것이 대인관계가 좋았던 안종순의 역할이자 활동 영역이었다.

##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전해지는 대성방앗간의 손맛

안종순은 2009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본격적으로 방앗간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집에 화재가 났는데 치매를 앓던 시어머니는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 뒤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남편과 함께 방앗간을 운영했다. 직접 맡아 운영을 하면서 방앗간에 애착을 더 갖게 되었다.

대성방앗간은 소량으로 떡을 포장해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소매 방식이 아니라 주문을 받아 떡을 만들어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안종순은 주문받은 떡만 생산하던 기존의 운영방식에 변화를 주고 싶었다.

사람들이 주문하지 않은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대성방앗간의 메뉴로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흑임자깨떡과 완두시루떡이었다. 방앗간 운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전 서울의 한국전통음식연구소 윤숙자 소장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사람들이 늘 해 먹던 떡을 주문하면 새로 개발한 떡을 먹어 보지 않겠냐고 권하면서 주문을 받았더니 입에서 입으로 맛이 전해져 주문량이 많아졌다. 쉽게 말해 대박을 친 것이다. 흑임자깨떡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까지 들어갈 정도였다.

**안종순** 저희가 어머님한테 인수 맡은 게 15년 됐나, 그 전까진 어머님이 다 하셨어요. 운영을 해 보니까 애착은 더 많죠. 옛날 방식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하는 게 서너 개가 돼요.

**면담자** 그게 어떤 거예요?

**안종순** 까만 깨떡. 흑임자깨떡. 고거는 저희가 통깨로 해요. 거기다가 호두를 넣고 해요. 그리고 고거는 청와대까지 들어갔던 떡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 그 보좌관 하시는 분이, 아

태재단에 계셨던 분이 안산에 가면 예술인 아파트에 사는데, 그 분이 어떻게 우연하게 교회에서 그 떡을 잡춰 보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게 연결이 돼 가지고 그게 거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완두시루떡, 그것도 대 히트를 쳤어요. 하루에 한 가마씩 나갔죠. 액수로 하면 한 150만원, 그렇게 나간 적도 있어요, 하루에.

**면담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안종순** 그거는 모찌예요. 손으로 맨드는 거예요. 기계 모찌가 아니고. 앙금을 다 맨들어서 거기다 견과류를 많이 넣고. 말하자면 두툼떡 같은 그런 모찌.

대성방앗간 단골도 생겼다. 향원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영등포로 이사를 간 할아버지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단골이다. 그 할아버지는 설이나 추석 때만 되면 배낭을 메고 인계동을 찾았다. 그 집 할머니가 대성방앗간의 흰떡과 송편만 고집했기 때문이다. 7~8년 전부터 발길이 끊어졌지만 아직도 기억하는 단골이다. 멀리 홍콩에서도 남편이 떡 맛을 못 잊는다며 국제전화로 완두시루떡을 주문하는 부인도 있다. 김해, 마산으로도 택배로 떡을 보낸다. 사람들이 주로 주문하는 떡은 완두시루떡과 흑임자깨떡이다. 대성방앗간의 떡이 누군가에게 잊지 못하는 인계동의 맛이 된 셈이다.

안종순은 멀리서 주문해 주는 단골들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든다. 한편으로는 맛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된다. 안종순의 남편도 “야, 우리 깨떡은 청와대 들어간 깨떡이야.”라며 자긍심을 가지고 만든다. 떡 만드는 데는 비법이 따로 없다. 재료만 양심껏 쓰면 된다. 국산 쌀이 수입 쌀보다 3배 가까이 비싸지만 대성방앗간은 국산 쌀만 사용한다. 값싼 쌀로 하자고도 해 봤지만 남편이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고물도 일일이 다 삶아서 사용한다. 이것이 대성방앗간의 비법이자 전통이었다.



안종순은 한국전통음식연구소 윤숙자 소장에게 기술 교육을 받았다.



대성방앗간 내부

**안중순** 떡은 먹어 본 사람이 계속 시켜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떡을 해러 왔다가 '요런 떡이 있는데 요런 떡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 떡을 먹어 본 사람이 맛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주문을 하고 그런 거죠. 저희 어머님한테 감사하지요 그런 거는.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그런 것은 잘 하셨어요. 떡 만드는 것을 잘 했어요. 흰떡 같은 것도. 지금도 우리 집에서 잡춰 본 사람들은 다른 데 떡은 못 먹는다고 그래요.

안중순의 시어머니는 까만 콩떡, 서리태로 만든 인절미를 잘 만들었다. 다른 것은 조금만 무거워도 들지 못하는 분이 떡 만들 쌀은 10kg이 넘는 무게도 거뜬히 들곤 하셨다. 설이 되고 추석이 되면 방앗간 안팎으로 동네 사람들이 가져온 떡쌀 함지가 길게 이어졌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런 모습이 없어졌다. 다 만들어 놓은 떡을 사 가기 때문이다. 그래도 사시사철 방앗간의 기계는 돌아갔다.

**안중순** 봄에는 설기 같은 거, 콩설기 뭐 요런 거. 여름에는 미숫가루, 저희는 미숫가루도 집에서 찌서 말려서 해요. 그리고 가을이면 송편, 송편도 손송편 해요. 기계송편 안 해요. 집에서 손으로 다 맨들어서 팔아요. 하하하하

**면담자** 그럼 사람을 쓰세요? 아르바이트?

**안중순** 안 써요. 우리 둘이 해요. 신랑이랑 나랑. 요즘에는 떡 배우겠다는 사람이 두 명씩 와요. 그 사람들하고 하고 그러지요. 가끔 동네 사람들도 와서 바쁠 때는 좀 도와주고.

IMF경제위기 때에도 대성방앗간은 어려운 줄을 몰랐다. 인계동에는 무당집이 많았는데, 경기가 어려울 때는 무당을 찾는 사람이 많았고, 무당집에서 주문하는 떡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안중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경기가 어려우면 무당이 잘된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우리 인계동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무당집이었어요. 무당들이 많았기 땀에, 지금도 우리 단골 무당은 거의 한 50집 정도 돼요. 경기가 어려우면 무당들을 더 찾는대요. 그리고 10월달이면 무당집에서 떡 해가는 것이 많아요. 평상시에도 10월달, 음력 10월은 고사 해는 달이라 그런 것들이 많았고.

대성방앗간은 그동안 휴일 없이 영업을 했는데 최근 들어 월요일을 정기휴일로 정해서



안중순 가족(안중순 제공)

쉬고 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도 그런대로 바쁘게 돌아가지만 가장 바빠지는 것은 금요일부터이다. 금요일 저녁에 애들을 친정에 보냈다가 일요일 저녁에 데리고 올 정도로 주말에 일이 많았다. 제대로 챙겨 주지 못했는데도 두 딸은 잘 자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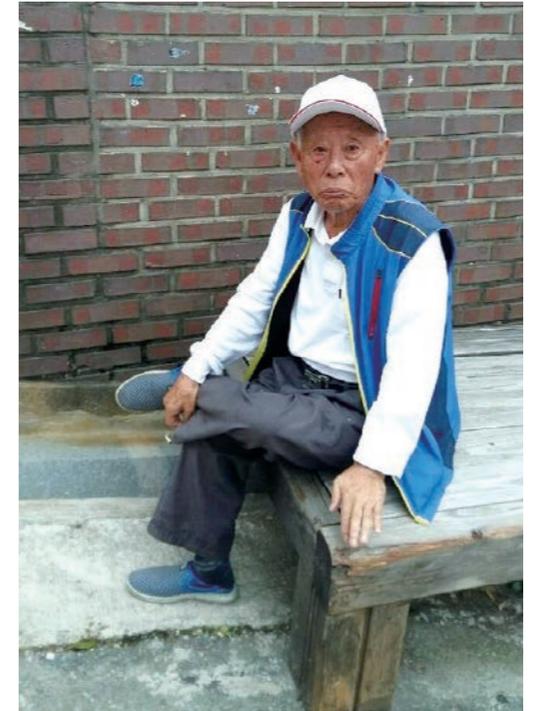
**안중순** 떡집을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에 놀아본 적이 없어. 우리가 워낙 바쁘니깐 금요일날 저녁이면 친정에 애들을 보내요. 금요일 저녁에 보냈다가 일요일 저녁에 데리고 오는 거야. 초등학교 한 5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한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평일날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열심히 애들이 공부를 잘 해 줬어요. 딸만 둘인데, 작은애는 유치원 선생님이고 큰애는 독일에 가고. 잘 커 줬어요. 고맙죠. 애들한테는 힘들어서 안 시킬라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요. 지네들이 결혼하면 모르지요. 3대째 하는 거라.

방앗간 일이 그만큼 힘든 일이라 아이들에게는 물려줄 생각이 없는데, 3대째 운영해 온 것을 생각하면 고민이 많아진다. 시할머니와 시어머니의 방앗간을 이어받아 운영해 오면서 지켜 오고 쌓아 온 것들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성방앗간은 여전히 쌀을 빻아 떡을 만들고, 고춧가루와 미숫가루를 만들고 있다.

## 인계동 대성방앗간에서 행궁동의 대성방앗간으로

인계동에서 대성방앗간은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집집마다 큰일이 있으면 다들 방앗간을 찾았다. 결혼식이나 돌잔치, 회갑잔치는 물론이고 칠순, 팔순에도 잔치를 하는 곳에는 떡이 빠질 수 없었다. 동네 소식을 들어야 할 때도 방앗간을 찾았다. 그건 안중순의 시아버지가 면서기를 하던 옛날부터 그랬다고 한다. 방앗간 앞에는 평상도 있어 동네 사람들은 오르막길을 오르는 중간에 평상에서 쉬었다 가기도 했다.

**안중순** 우리 집 앞에 평상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집이 언덕이잖아요. 그 앞에 평상 보셨어요? 코너 돌면 올라가는 언덕에 하나 있고, 맞은편에 비대위 사무실 있는 데에 거기 하나 있을 거예요, 평상이. 거기 다 모여서 저기하고 그랬지. 근데 그 동네가 남자들은 돈을 잘 안 벌어. 거의가 여자들이 돈을 버는 동네야. 그 여자들이 퇴근하고 가다가 오다가다 하고. 그러구 남자들은 맨날 거기서 술이나 먹구. 그래두 평상도 내가 100만 원 들여서 한 거예요, 그거를. 거기가 또 언덕이라 한번 쉬어야 해요, 힘들어. 하하하하. 여기가 방앗간이라 참새들이 왔다가 많이 갔지.



안중순의 시아버지(안중순 제공)  
시아버지가 앉은 방앗간 앞 평상은 동네사람들의 쉼터였다.

동네 아이들과 개들까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안중순의 남편 때문이었다. 남편은 안중순을 ‘청자’라고 부른다. 고려청자의 준말이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호칭이다. 한결같이 선한 남편은 애들을 좋아해서 아이들에게 장난감도 사 주고, 먹을 것도 사 주는 동네 아저씨였다. 아이들은 남편을 ‘떡집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다.

남편은 인계초등학교를 나와 수원북중학교와 수원농업고등학교 기계과를 졸업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농촌진흥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방앗간을 이었다. 방앗간도 방앗간이지만 기계과를 다녀서인지 손재주가 좋아 동네의 고장난 것은 다 고치러 다녔다. 인

계동 새마을협의회 회원이기도 했던 남편은 동네 어디에서 수도관이 터지거나 문이 고장 났다고 연락 오면 출동해서 고쳐 주는 사람이었다.

정감 있고 평온했던 동네에 이웃 간 금이 가고 벽이 생긴 것은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부터이다. 이웃 간은 물론 자식하고 의리가 끊겨서 가는 사람도 많았다. 2층이나 3층집을 지어 자식들과 같이 살거나 전세를 주고 살다가, 보상을 받고 나가려다 보니 자식들과 나누고 전세금을 내 주고 나면 남은 돈으로 인계동에서 집을 사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다. 안중순은 이웃 간에 싸우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일들을 보고 듣는 것이 마음 아팠다. 재개발 대신 도시재생사업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안중순** 재개발 소리가 안 나왔을 때는 이 동네가 진짜 좋았어요. 살기도 괜찮고 이웃 간에 저기도 괜찮고 그랬는데. 재개발한다고 시작해서부터, 요게 2006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끼리 등을 지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도 못 하고, 서로가 못 믿는 거야 무슨 말을 할지. 그때부터 2007년, 8년 그 정도부터 동네 간에 인저, 옆집이 서로 믿지를 못 하는 거여. 의심하고 무슨 말도 못 허구. 서로 경계를 하는 거지. 너는 조합원, 나는 비조합원. 니네 들은 분양자, 우리들은 현금청산자. 이게 딱딱 나뉘져 가지구, 어우 살벌했어요.

현금청산자들은 버텨서 돈을 더 받으려 했고 분양자는 버티는 현금청산자들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아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다.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도 2억~3억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입주하기 어렵다. 분양 받은 사람들 중에 웃돈을 붙여 파는 사람도 있지만 큰 금액을 부를 수도 없을뿐더러 세금으로 2,000만 원을 내야 한다. 이리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인계동을 떠났다. 무너진 것은 동네 사람들 간의 인심만이 아니었다. 시세에 맞지 않는 보상비도 불만이었지만 인계동에 들어와 직접 집을 짓고 몇 세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거와 추억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을 마음 아파했다.

**안중순** 억울하잖아. 뭉친 사람들끼리 수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애. 그래도 끝까지 한 번 싸워 봐야지, 어떻게 되든 간에. 보상을 더 해 주든지 이주 정착금을 더 주든지.

**면담자** 어느 정도면?

**안중순** 그래도 현 시가는 줘야 되지 않나요? 현 시가로 하면 평당 1,200, 1,300인데. 우리

는 600씩 받은 거예요. 그럴 때는 또 공시지가로. 그니까 힘들지.

**안중순** 이 집을 우리 신랑이 짓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걸 짓고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 가격에 뺏겨? 이런 사람에, 그러구 내가 이거를 지게 품 팔아서 돈 모아서 이 집을 샀는데 …… 이런 사람, 시골에 땅 팔아서 왔는데 똥 값 줘가지고 나가라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런 거지, 다.

아쉬움과 안타까움, 불안과 불만 속에서 동네 사람들과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이주하였다. 대성방앗간도 영동 30-1번지로 이사했다. 영동시장 상권에 속하는 3층 건물인데 1층은 방앗간, 2층은 임대 점포, 3층은 살림집으로 사용한다. 방앗간에서 인계동이 바로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라 안중순은 아직 인계동을 떠나 왔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안중순** 찾길만 건너면 인계동이에요. 여기는 행궁동인데, 아직까지는 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거는 없어요. 내가 인계동 떠나서 여기 왔다 이런 생각은 아직 안 해 봤어요. 그러구 또 동네 사람들도 계속 여기 왔다갔다하니깐. 거기서 우리가 몇 대째 대를 이어서 가업을 이어받아서 했던 건데 거기서 끝까지 살았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쩔 수 없이 왔으니까.

이사 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어가지만 안중순은 아직 옆집하고 말도 트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이곳에 또 정을 붙이고 살려고 마음먹고 있다. 사람 사는 곳이 정이 있어야 사는 것이고 이웃 간에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시장이어서 동네 사람보다 나그네 같은 손님들이 더 많고, 세 들어 장사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정 붙이기가 쉽지 않겠지만 먼저 인사하면서 이웃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노력하려고 한다. 방앗간 앞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안중순에게 또 하나의 작은 마음이 생긴다. 영동시장의 상권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다.

**안중순** 그런데 여기는 6시면 다 문을 닫어요. 우리만 볼 켜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건의 좀 할라 그래. 번영회 사무실이 우리 옆에 있잖아요. 8시까지지는 어떡해튼 앉아 있자. 여기 중국 사람이 많아서, 다 중국 사람이예요. 우리는 뭐 떡 맞추고 그런 사람은 중국 사람은 별로 없는데, 차츰차츰 중국 매장이 넓혀 가는 거. 다 중국 식품가게, 인저 요기부터 시작해서 요기요기, 영



행궁동으로 이전한 대성방앗간

동시장 이쪽 안쪽으로는 뭐 두부가게, 홍어 집, 뭐 과자 이거 다 중국 사람들이예요. 중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상인들도 다 중국 사람이예요. 그 사람들은 떼로 몰려다니잖아요. 그럼 무서워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떠들고 그러면, 상권을 지켜야 하는데 이게 숙제야. 이쪽 안쪽 골목을 가도 다 중국 식품이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야, 내가 이쪽을 통장을 봐서 한번 상권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하하하. 행궁동장이 또 친구예요. 동창이야. 하하하하. 알고 보니까 그 애가 또 여기 와 있더라고. 통장을 봐서 한번 살려 볼까.

20년 동안 맡았던 인계동 통장도 이제 12월이면 끝이 난다.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안중순은 방앗간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제 딸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성약을 하는 큰딸은 독일에 있어 의중을 알 수 없지만, 유치원 선생님을 하는 둘째 딸은 결혼을 잘 시켜서 가업을 잇게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앞으로 대성방앗간의 주인이 누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아직 한참 동안은 안중순과 그의 남편이 행궁동의 대성방앗간 시대를 만들어 가게 될 것 같다.

네  
시.

삶의 터전을 찾아  
인계동으로



김  
상  
만



김 미 엽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물 좋던 동원목욕탕의 사장님 김상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느 가을날, 할머니와 고모 그리고 동갑내기 사촌의 손을 잡고 나는 새벽길을 나선 적이 있다.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 제일 먼저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하기 위해서였다. 아랫동네에 목욕탕이 새로 개업을 하였는데, 아주 깨끗하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도착 시간은 개장 전 새벽 4시 반, 30분이나 기다려 목욕탕에 입장할 수 있었다.

이제는 목욕이 연중행사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지만, 수도시설이 미비하던 1980년대까지 목욕탕은 위생과 더불어 묵은 피로를 풀어 주는 공간이었다.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옆,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 ‘감나무집’으로도 불리던 3층 벽돌집은 1980~1990년대 인계동 사람들이 이용한 동원목욕탕이 있던 건물이다. 이 집의 주인은 인계동에서 40년 가까이 살아온 김상만이다.

### 내 고향은 충청도 조치원

김상만은 1942년생이지만 실제 나이는 2살 많은 78세(2019년)이다.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 출생으로 4남 4녀 중 남자 형제 중에서 셋째, 전체 8남매 중 셋째이다. 부모님은



수원역에 정차한 피난열차(수원박물관 제공)

농사를 지었고, 1947년 조치원 교동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때 6·25전쟁이 발발하였다. 그의 기억에 의하면 우선 밀양의 청도로 피난을 갔다. 피난 도중 낙동강을 만나 아버지와 함께 옷을 다 입은 채 어렵사리 강을 건너고는 옷도 말리지 않은 채 계속 걸었는데, 10리 정도 갔을 때 낙동강에 폭탄이 투하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북한군 선발대가 피난민과 섞여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니, 폭격이 시작되었고 도강(渡江)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걸 보았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 먼 길을 걸어 겨우 기차를 얻어 탔다. 그것도 좌석이 있는 기차 안이 아니라 기차의 윗부분에 올라탄 것이다. 기차가 굴을 지날 때 모르고서 몸을 세웠다가 죽는 사람도 보았다. 떨어지거나 다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몸을 구부리고 왔던 기억이 있다.

모내기를 해놓고 피난을 갔다가 9월에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벼가 익고 있었다. 1·4후퇴 때는 30리 길을 걸어 고모네로 피난을 갔다. 휴전이 성립되고 일상생활로 돌아왔지만 전쟁이 지나간 모습은 처참하였다. 학교 건물이 모두 불타서 이 학교 저 학교 옮겨 다니며 공부를 하였다. 나중에는 큰 나무 아래 모여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이 화판을 목에 걸고 화판을 칠판 삼아 공부를 하였다고 한다.

1953년 조치원중학교에 입학하였다. 학교 공부는 거기까지 했다. 8남매나 되는 자식들을 모두 공부시키기에는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고, ‘한 사람만 성공하면 나머지 식구들을 먹여 살린다.’는 인식도 작용하였으며, 시대적으로도 장남 우선의 가부장적 전통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공부 잘하던 첫째 형님이 서울로 유학을 떠나자 나머지 형제들은 집안일을 도우면서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 1956년 김상만은 조치원중학교를 졸업하고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친척이 하는 공장에서 선반 가공 기술을 익혔다. 이후에 이 기술을 가지고 상경하여 동아건설에 취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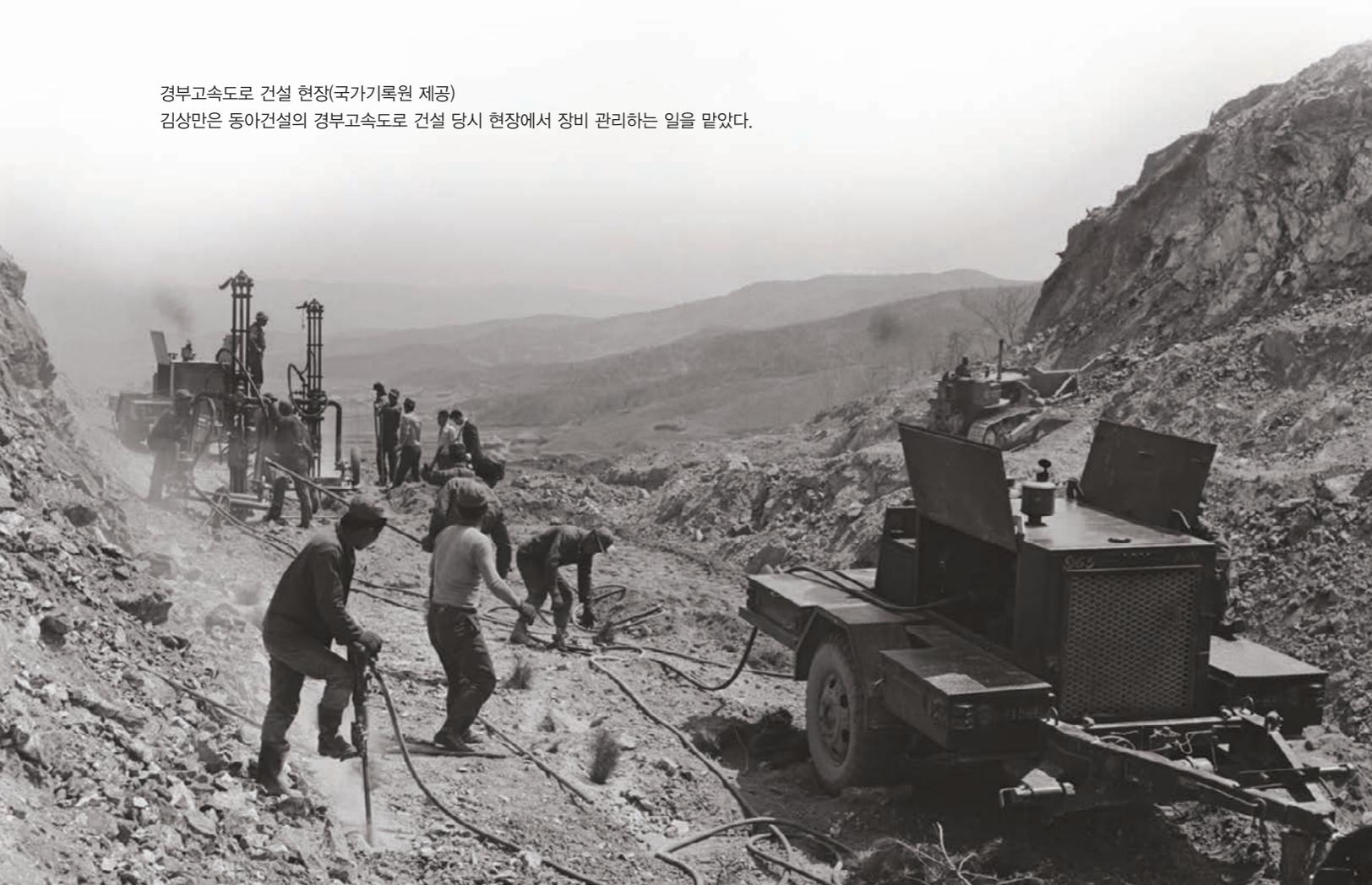
김상만은 1963년 군에 입대했다.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강원도에 있던 육군 27사단에서 30개월을 복무하였다. 군 복무 당시 부대

에서 먹었던 라면의 맛은 잊을 수가 없다. 어느 날 함께 복무하는 고향 친구가 그를 불렀다. 외박을 나갔다 오면서 맛있는 것을 가져왔으니 냄비를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추운 겨울로 기억하는 그때 냄비에 물을 담고 축축한 소나무 가지로 불을 피워 무언가를 끓여 먹었는데 쇠고기국보다 훨씬 더 맛있었다. 바로 당시에 처음으로 출시된 라면을 끓인 것이었다. 해방과 전쟁을 겪고 먹을 것 없던 시절, 요즈음의 것보다 훨씬 기름지고 강한 맛을 가진 라면은 김상만에게는 거의 신세계의 맛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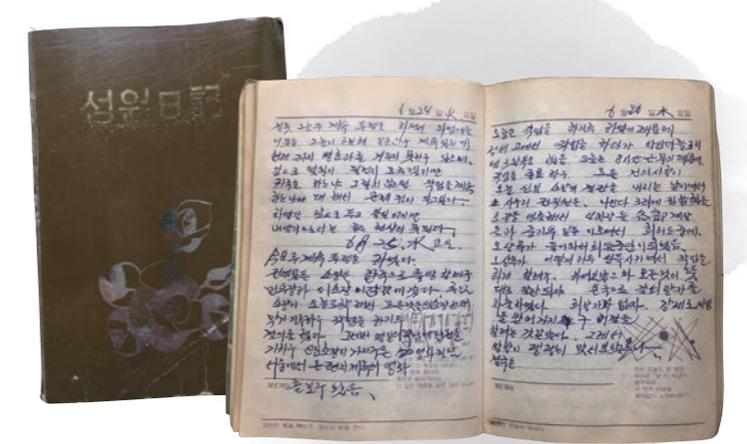
### 해외 건설 역군으로 활동하다

군대를 제대한 김상만은 1967년 28세에 서울로 올라왔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직업 전선에 나섰다. 친구의 소개로 문래동에 있던 동아건설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이미 기술을 익혀 조치원에서 잘 근무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가 그에게 서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함께 상경하기를 권하였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국가기록원 제공)  
김상만은 동아건설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현장에서 장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친구를 따라 처음 서울에 와서 근무하던 시기가 김상만 생애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방을 구할 비용이 없어서 회사 수위실에서 잠을 잤고, 밥은 식당 한 곳을 정해 놓고 먹었다. 힘든 생활을 한 지 한 달 만에 월급을 받아서 하숙을 얻었다. 부지런한 김상만은 당시 구로동 애경유지 뒤쪽 산비탈에서 하숙을 할 때도 일찍 일어나서 지계를 지고 주인집에 물을 길어다 주었다. 그러면 주인은 고마운 마음에 아침 밥상을 잘 차려 주었다.



김상만이 해외 근무할 때 쓴 일기

1968년 동료의 소개로 화성군 반월면 출신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였고, 영등포 청과물시장 부근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동아건설에 다니던 김상만은 장비 관리를 담당하면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서초동 법원단지 앞 도로공사에 참여한 것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한다.

김상만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해외 건설사업에 참여하였다. 그가 동아건설에 근무하던 시기는 해외 건설의 도약기로 일컬어지는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은 1965년 현대건설의 태국 도로공사 수주부터 시작한다. 이후 1973~1981년에는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유럽을 제외한 전 세계에 진출하였고, 특히 중동 진출이 크게 활기를 띠어 해외 건설 수주액이 절정에 달하여 양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해외 건설의 전성기라고 불린다. 김상만은 1973년과 1975년 2차례에 걸쳐 중동 지역에서 근무하였다.

김상만은 중동에서 근무할 때 건설 인력이 파견되기 전 선발대로 현장에 먼저 가서 건설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였고, 일할 때는 50~60명 정도의 직원을 통솔하였다. 장비 구입을 위해 홍콩,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수로관 공사에 참여했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게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김상만은 중동 파견 당시부터 일기를 썼다. 일기 속에는 1975년 홍콩 출장에 대한 내용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다. 일기는 2005년 인계동 통장으로 활동할 당시의 기록도 담고 있다.

## 1983년 동원목욕탕 문을 열다

**김상만** 1979년 내가 인계동 땅을 살 때 그 당시 향원아파트가 있었고, 동사무소는 지금의 자리에 없었지. 우리 집 다음에는 모두 호박밭이었어. 지금 여기 주차장 자리가 옛날에 향원반점이라는 중국집이었는데, 지금 저 팽나무고개 쪽으로 이사 갔다고 하지.

1980년대 초반 동아건설을 퇴직한 김상만은 생업으로 목욕업을 선택하였다. 이른 나이인 40세에 퇴직하였는데 재취업을 고려하지 않고 자영업을 선택한 이유는, 현장소장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다가 퇴직했는데 남의 밑으로 들어가서 일하려니 별로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퇴직하기 전에 이미 땅을 보러 다닌 것도 퇴직 이후를 단단히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김상만의 꼼꼼한 성격은 땅을 매입할 때도 그대로 드러났다. 퇴사 전에 회사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다 인계동의 땅을 소개받고서 매입할 생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거래를 부탁했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매번 달랐다. 그가 근무하던 회사는 매주 쉬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1번 정도 쉴 정도로 바빴기 때문에 중개업자에게 맡겨 둔 것인데, 좀처럼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다. 결국 한밤중에 땅주인의 집에 찾아가 서로 원하는 가격을 말하여 합의해서 매입하였다. 다양한 업종 중에서 목욕업을 선택한 것은 혹시라도 망했을 때 부동산이라도 남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김상만** 일단 집에 지니고 있어서 망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 만약 먹는 음식을 한다면 그건 시절과 때의 유행에 맞추어야 하고, 슈퍼마켓을 할 경우 흑여 망하면 그 물건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목욕탕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1979년 인계동에 대지 105평을 매입하고, 1983년 목욕탕을 짓기 시작하여 5개월의 시간이 흘러 완공되었다. 목욕탕이 들어선 지금의 효원로29번길은 당시만 해도 마차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폭이 좁은 골목길이었고 이 길 좌우로 건물들이 언덕에서 이어져 내려왔다. 목욕탕은 이 골목의 맨 끝집이었다. 김상만은 목욕탕을 운영할 목적으로 짓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지하를 파서 물탱크를 넣고 2층으로 건축하였다. 집 건축에 관해서는 김상만이 거의 주도하였다. 이는 건설회사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가능한 것이었다.

그가 인계동에 안착한 1983년은 수원시가 2000년대를 대비하여 종합적인 도시개발계

획을 수립할 때였다. 그 일환으로 동수원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1981년 대한주택공사가 영통구 매탄동 일대를 매탄지구로 지정하여 택지를 개발하고, 교동에 있던 수원시청을 인계동으로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동수원 개발의 열기가 연장되면서 인계동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1980년대 개인 건축업자들이 주택을 지어 팔면서 인계동의 인구는 이미 3만 명을 넘는 상태였고, 이전부터 거주해 오던 인계본동에서 수원공업고등학교와 인계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주거지가 확대되고 있었다. 향원아파트 건설도 인계동 인구 유입에 한몫을 하였다.

김상만은 처음에는 지하를 파서 물탱크와 보일러실을 두었고, 1층 60평, 2층 60평으로 건축하였다. 1층은 전면에 상가를 배치하고 후면에 여자목욕탕을 두었고, 2층에는 살림집과 남자목욕탕을 배치하였는데, 이용객의 수요를 고려해서 남탕보다는 여탕을 크게 만들었다. 이후 1990년대에 3층을 살림집으로 증축하였다.

1983년 5월 김상만은 동원목욕탕을 개원하였다. ‘동원’이라는 상호는 큰형수가 지어 준 것이다. 처음 개업했을 때 목욕요금은 800원이었고, 1997년 폐업할 때는 4,300원이었다. 김상만은 동원목욕탕의 수질이 우수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동원목욕탕 수질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수원역 유흥가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찾아올 정도였다고 한다.

좋은 물의 비법은 주인의 노력이었다. 김상만은 목욕하는 데 가장 좋은 물은 지하수나 강물이 아니라 깨끗하게 정제되고 소독까지 되어 있는 수돗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수돗물도 너무 오래 끓이면 물의 성질이 세져서 온천수 같은 부드러움이 없어지고, 너무 낮



동원목욕탕이 있던 건물  
1997년에 목욕탕을 폐업하고 원룸으로 개조하였다.



수원 시내 공중목욕탕 점검 중인 시청 직원(1993년, 수원박물관 제공)  
공중목욕탕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법정 요금 준수 등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받는다.

은 온도에서 끓여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물을 끓이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물은 일단 밤에 끓여 놓고 개장과 더불어 물을 공급하면 어느 정도 물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부드럽고 좋은 물이 된다는 생각이었다.

김상만이 동원목욕탕을 개업하기 전에 이미 인계동에는 '수정탕'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후 여러 군데에 목욕탕이 생겨났지만 인계동에서 최고의 목욕탕은 동원목욕탕이었다고 자신한다. 김상만은 일요일 새벽이면 목욕탕 물탱크에 더운 물을 가득 채워 놓고서 옥상에 올라가 목욕 가방을 든 사람들이 사방에서 동원목욕탕으로 오는 것을 구경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릴 땐 물이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지하 물탱크 외에 옥상에 물탱크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처음 인계동에 터를 잡아 동원목욕탕을 운영할 때 김상만은 4~5년만 하고 서울로 올라갈 계획이었다고 한다. 원래 김상만이 처음 터를 잡으려 했던 곳은 인계동이 아니라 도로공사하면서 모든 지형을 파악해 두었던 서울의 강남지역이었다.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계획한 시기에 목욕탕을 매물로 내놨는데 인수할 사람이 나타나도 성사가

되지 않았다. 결국 30년이 넘게 인계동을 떠나지 못하고 거주하는 것은 팔자인 것 같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목욕탕이 호황을 누리면서 선풍 매매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목욕탕의 업무는 생각보다 많았다. 우선 아침 5시부터 밤 9시까지 영업을 하되, 누구라도 매표소를 지키고 앉아서 입장권을 팔아야 했다. 하루에 16시간을 매여 있어야 하는 것이다. 김상만이 주로 맡았지만 부인과 자녀들도 틈틈이 매표소를 지켰다. 한 달에 1번 쉬는 것이 고작이었다.

두 번째는 물을 관리하는 것이다. 물을 데우고 냉수와 온수를 공급해야 한다. 우선 건축 당시부터 지하에 120드럼 용량의 물탱크를 만들었다. 처음 목욕탕을 시작할 땐 김상만이 보일러에 불을 때는 기술이 없어서 기술자를 고용하였고, 옆에서 도와주면서 보일러 사용기술을 익혀 나갔다. 연료도 처음에는 장작을 사용하다가 이후 석유를 사용하였고, 나중에는 가스로 바꾸었다. 물을 데우는 것 이외에 보일러의 청소와 자잘한 고장 수리도 할 줄 알아야 했다. 결국 김상만은 보일러 운전과 청소를 직접 맡아서 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을 고용해서 해도 되지만 그러면 주인이 직접 하는 것과 차이가 있었다. 한 예로 일정한 온도로 물을 데울 경우 주인이 하면 고용인이 데울 때보다 1시간 정도 단축할 수 있어서 그만큼 연료와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세 번째는 목욕탕의 청소이다. 물과 비누를 사용하는 목욕탕은 영업이 끝난 후 욕조의 물을 비우고 전체 청소를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청소를 소홀히 하면 물때로 인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야 했다. 김상만은 요즘도 수원에서 좋다고 소문난 목욕탕이 있으면 직접 가본다고 한다. 지금도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나는 냄새만으로도 목욕탕의 청결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한다.

목욕을 하러 오는 곳이긴 해도 여자 손님들은 깨끗한 편인데, 남자 손님 중에는 다른 손님들이 함께 목욕하는 것을 싫어할 정도로 지저분한 경우가 있었다. 게다가 빨랫감을 가지고 들어오기도 했다. 김상만은 그런 손님은 저녁 마감시간 즈음해서 입장하도록 했다. 어차피 목욕탕은 매일 욕조의 물을 빼고 목욕탕 전체를 청소하기 때문에, 청소 직전에 들어가 마음껏 씻도록 한 것이다. 여자 손님들은 목욕탕에 와서 빨래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그런가 하면 목욕탕 보일러실은 동네 사랑방이었다. 목욕탕을 운영하려면 하루 종일 보일러를 가동시켜야 했고, 덕분에 보일러실은 항상 더운 열기가 넘쳐났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청국장장을 만들어 보일러실에서 발효를 시켰는데, 2~3일이면 맛이 딱 좋은 청국장장이 만들어졌다. 보일러실에서는 항상 쿵쿵한 청국장 발효 냄새가 났지만, 사람들이 항상 모여 들었고, 맛있는 청국장장을 얻어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2002년 인계동 통친회 आय회(김상만 제공)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환경 미화에 신경을 써야 해서 목욕탕 굴뚝에 ‘동원목욕탕’이라는 글자를 다시 쓰고, 목욕탕 내부를 리모델링하였다. 시설이 조금 낡았다 싶으면 손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항상 시설 관리에 신경써야 했다. 목욕탕 비수기인 5~6월이면 바닷가에 가서 약쑥을 캐다가 말려서 찜질방 안에 넣어 두기도 했다.

### 여전히 부지런한 노년의 삶과 인계동

1997년 김상만은 15년 동안 운영하던 동원목욕탕을 접었다. 폐업하기 전 2년 동안은 목욕탕을 세놓기도 하였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서 목욕탕 관리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기 때문이었다. 김상만은 목욕탕을 폐업한 후 1층의 여자목욕탕과 2층의 남자목욕탕을 개조하여 원룸을 만들고 임대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다. 기존의 1층 가게와 원룸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었다.

15년 넘게 인계동에 거주하면서 김상만은 동네 사람들과 많이 친해졌다. 조금씩 동네일에 참여하기 시작하다가 2000년대 후반까지 10년 정도 통장을 맡아 보았다.

**면담자**    어르신, 예전에 인계동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셨나요?

**김상만**    집 앞 세탁소에 모여서 동네친구들과 잘 놀았지.

**면담자**    누구인지 이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상만**    문인기, 서동만, 용환갑 씨. 그런데 지금은 그 세탁소 양반도 죽어서 모일 사람이 없어. 요즘은 용환갑 씨도 잘 안 보이고.

**면담자**    동네친목회는 있지 않나요?

**김상만**    집사람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친목회가 있지만, 나는 없지.

한국인 남자의 평균수명이 여자보다 짧다는 사실처럼 김상만의 동네 친구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이 있다. 요즘은 소일거리로 부인과 함께 의왕에 있는 밭에서 농사를 짓는다. 김상만은 가정을 이루고 사는 동안 몸고생은 좀 했어도 돈 고생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술 담배 하지 않고, 철저하게 바른 길만 걸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계동을 떠났지만 김상만은 아직 커다란 감나무가 정원을 차지하고 있는 그의 3층집을 지키고 있다. 그동안 함께 지냈던 동네 사람들은 다들 세상을 떠나고 인계동을 떠났지만 착한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목욕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추석이나 설날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몰린 욕탕 안의 풍경과,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빨래까지도 서슴지 않던 엄마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하지만 1980년대를 지나 1990년대를 거쳐 2000년이 되면서 생활환경은 개선되었다. 상·하수도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주택에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탕이 들어오면서 위생 개념도 강화되었다. 연중 행사였던 목욕이 이제는 일상의 샤워로 대체되었고, 대신 오락과 휴식의 기능이 추가되었다. 그에 걸맞게 목욕탕은 대형화되고, 24시간 운영되며, 세신(洗身)과 취침의 기능이 더해지면서 오락적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태이다.

누군가는 목욕을 위해 옷을 벗는 행태를 자신의 묵은 일상을 벗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김으로 서려 있던 목욕탕 안, 뜨거운 물, 그리고 목욕 후 수분이 빠져 쪼글쪼글해진 손가락 피부를 보았을 때의 생소함과 목욕탕을 나서면서 먹었던 바나나우유의 맛. 이런 것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



김 현 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 수원시 1호 이용기능장 대성이발관의 이대희



### 수원역에 내리다

1952년생 이대희는 충남 서천이 고향으로 결혼 직후까지 서천에서 살았다. 3남 2녀의 장남이었던 이대희는 바로 아래 동생과 5살이나 차이가 나는 바람에 맏딸 역할을 했다. 농사를 짓는 집이었지만 농사만으로 5남매를 키우며 사는 것이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염전에서 일하며 틈틈이 농사일을 했고 어머니는 아침을 먹고 장사하러 나갔다가 저녁 무렵 귀가했다. 집안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대희는 학교가 끝나면 염전으로 아버지 도시락을 갖다 주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고 가끔은 나무를 해 오기도 했다.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면 어울려서 놀았지만 이대희는 집안일을 해야 했다.

중학교 입학시험에서 낙방한 후 이대희는 학업을 접었다. 장남이 중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랐던 부모의 마음과 달리 공부에 흥미도 뜻도 없던 이대희는 힘든 시골생활이 싫어서 서울로 가출을 감행했다. 무작정 상경한 시골 소년은 태릉의 한 양계장을 거처로 삼고서 허드렛일을 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우연이 찾아왔다. 양계장으로 찾아온 아버지의 친구를 만난 것이다. 알고 보니 양계장 주인이 아버지 친구와 동서지간이었다. 동서를 방문한 아버지의 친구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2년여의 서울 생활을



군 입대 전의 이대희(이대희 제공)

접고 서천으로 귀향했다.

부모님은 공부하기 싫어하는 이대희에게 기술 배우기를 권했다. 서천에서 멀지 않는 보령군 웅천면에 석공장이 많아서 석공기술을 배워 취직하는 남자아이들이 많았다. 그 외에도 양복을 짓는 기술이나 커피 끓이는 기술 등 취업을 위한 여러 선택지가 있었는데 이대희는 이발기술을 택했다. 마침 서울에서 이발소를 운영했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기술을 배웠다. 16세 가을부터 수련을 시작해서 이용사 자격증을 따고 19세에 이발소를 차렸다. 목수이던 외할아버지가 지어 준 조그마한 건물에서 이발소를 개업했는데 당시 충남 지역 전체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업주였다.

26세에 3년여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하니 부모는 장남의 결혼을 서둘렀고 외가 친척의 중매로 보령 아가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다시 이발소를 운영해야 하는데 거세게 불어 닥치던 이촌향도의 바람이 이대희의 마음을 흔들었다. 농촌을 벗어나고 싶어 도망치듯 감행했던 서울행이 실패로 끝났던 기억도 있고,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있으니 도시생활에 대한 준비가 필요했다.

부인은 집에 두고 이대희 혼자 목적지도 없이 상행선 열차에 올랐다. 한참을 오다가 내린 곳이 수원역이었다.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보이던 여인숙 간판이 이대희를 열차에서 내리게 했다. 날도 저물었으니 일단 여인숙에서 자고 내일을 도모해야 할 것 같았다. 아마도 날이 어두워지지 않았더라면 그때 서울까지 올라갔을지도 모른다. 수원역전의 한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묵고 나와 보니 서천과 비교할 수 없는 도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1979년의 수원역전은 수도권 전철의 운행과 시외 버스터미널 설립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이 강화되고 있었다.

이대희는 수원에 자리를 잡기로 하고 살 집을 구하러 다녔다. 도시에서는 ‘복덕방’이라

는 곳을 찾아가야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수원역전의 복덕방에서 서둔동의 셋방을 소개했다. 수원의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집이 크고 좋아서 계약을 했다. 바로 서천으로 가서 아내와 함께 간단하게 이삿짐을 꾸려 올라왔고 서둔동에 동지를 틀었다. 올라올 당시 임신 중이던 부인은 중동사거리의 최보원산부인과에서 장남을 낳았다.

1979년 수원시에는 500곳이 넘는 이발관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발관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발 재료를 취급하는 가게에 가서 일자리를 문의했다가 가게 주인에게 “여기 사람도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데 당신 일자리가 어디 있어.”라는 핀잔 섞인 말을 듣기도 했다. 그때 얼마나 기분이 상했는지 지금까지 잊지 못한다. 상심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둔동 초입에 있던 이발소로 들어갔다. 차

1970년대 후반 수원역 앞(수원박물관 제공)  
여인숙, 직업안내소, 학원 등의 간판이 보인다.



마 일자리 없냐고 물어보지 못하고 손님인 척 드라이를 해 달라고 했다. 이대희가 충청도 사람임을 알아본 직원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다. 서산 출신으로 해군 동기였던 친구와 동업으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던 그는 영화동의 거북이발관에 취직을 주선했다.

## 인계동에서 다시 시작하다

거북이발관에서 1년 정도 일하다 보니 이대희의 실력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월급을 올려가며 여러 곳의 이발관을 옮겨 다녔고 돈을 모아서 교동의 미화이발관을 인수했다. 그 사이 딸이 태어났고 서둔동에서 매산로3가로 이사도 했다. 그런데 매산로3가의 집주인은 연탄불을 꺼트리면 세입자의 아궁이에서 몰래 연탄을 빼 가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도 세입자들에게 많이 부과하는 사람이었다. 결국 1년을 못 살고 교동으로 이사했다. 교동의 집은 겨울에 외풍이 심해서 방 안에서도 얼음이 얼던 곳이었지만 주인이 좋은 사람이었다. 이대희가 잠시 사업으로 한눈을 팔았다가 망하면서 1년 넘게 월세를 못 내도 쫓아내지 않고 사정을 봐 주었다.

착실하게 미화이발관을 운영하던 이대희는 단골손님의 제의에 솔깃하여 건설사업에 뛰어들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수원의 건설 붐은 1980년대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건설에 대해 문외한이던 이대희는 기술자 1명을 고용하고 건물 외벽에 장식용 석재 붙이는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일감을 따서 석재를 가지고 가면 사업 제의를 했던 사람이 자신이 먼저 맡은 곳이라면서 가로채는 듯했고 심지어 이대희의 석재를 외상으로 거래해서 사용하기까지 했다. 여러 번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고 결국 그 사람은 석재 값을 떼먹고 잠적해 버렸다. 어렵게 사업을 이어 가다가 과천의 이주단지 주택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주민대표가 몽니를 부리는 바람에 손해만 보고 공사를 중단하고 말았다. 엮힌 데 덮친 격으로 거래처 한 곳이 부도가 나면서 이대희는 빚만 남기고 2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사업에 실패한 이대희는 본업으로 복귀했다. 남의 이발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가 된 이대희는 일자리를 찾았지만 그간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발관을 하면서 돈도 잘 벌었는데 무슨 월급쟁이를 하냐며 의아해 했다. 다행히 남문의 성심이발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성심이발관의 주인은 드라이를 잘하는 사람이어서 일하는 동안 그 기술을 배울 생각이었다. 주인의 가족들은 이대희의 이런 생각을 알았는지 그만두라는 압박을 계속했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영업 시작 전에 이발관 청소를 하는 근면성실함으로 버

티다가 결국 복문 근처 이발관의 제의를 받고 옮겼다. 그런데 월급을 더 준다면 그 이발관은 퇴폐영업을 하는 곳이었다. 오래 있을 수가 없어 얼마 후 그만두었다. 이대희는 월급쟁이 이발사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일하는 처지가 비참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이발관을 내고 싶어졌다. 마침 사업을 하다가 알게 된 형의 부인이 일수대출을 한다는 말을 듣고는 찾아가서 돈을 빌렸다. 담보물이 전혀 없었지만 그 형의 도움으로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4만 원의 점포를 얻을 수 있었다.

이대희가 이발관을 차린 곳은 현재 인계동주민센터 근처의 신축 상가였다. 지은 지 2년 정도 된 건물은 1층에 문방구, 미용실, 이발소, 세탁소, 양복점, 오락실 등 7개의 점포가 있었고 2층은 주인집이었다. 점포 안쪽에 방이 있어서 거주가 가능한 구조였다. 그런데 알

이대희가 인계동에 들어와서 처음 대성이발관을 차렸던 건물  
1층은 점포, 2층은 주인집이 있는 상가 건물이다.



고 보니 이발관은 2년 새 주인이 6명이나 바뀐 곳이었고 이대희가 7번째 주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상가의 위치가 인계동 입구에서 가장 깊이 들어온 마을의 끝에 있어서 유동인구가 적었고 상가 위쪽으로는 온통 밭이었다. 팽나무고개에서 인계사거리를 잇는 인계로는 아직 개통되지 않은 상태였다. 향원아파트가 근처에 있었지만 이발관의 영업이익이 신통치 않았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이대희는 열심히 해서 손님을 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별 고민 없이 생각나는 대로 ‘대성(大成)’이라는 상호를 붙이고 이발관을 개업했다.

개업하던 날 하루 종일 손님이 찾아왔다. 이발비가 2,000원이었는데 4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웃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주말에나 겨우 하루에 2~3명 손님을 받던 이발관이었는데 하루에 몇 십 명이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손님이 점점 줄어서 경영이 어려워지자 면도사를 내보내고 이대희의 부인이 면도기술을 배워서 부부가 이발관을 운영하게 되었다.

향원아파트 근처에서 열린 인계동 노인회관 준공식  
(1981년, 수원박물관 제공)



대성이발관을 성실하게 운영하면서 이대희는 빚을 모두 갚았고 향원아파트 17평형을 매입했다. 수원에 올라와서 처음 장만한 집이었지만 이대희 가족은 아파트에서 살 수 없었다. 당시 거래가가 750만 원이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700만 원 전세를 주고 구입했기 때문이었다. 2년 후 아파트 값이 1,500만 원으로 오르자 이대희는 17평형을 팔고 대출을 받아 2,040만 원에 24평형을 샀다. 이번에도 전세를 주었다가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야 비로소 아파트로 이사했다.

향원아파트는 1997년 향원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재건축을 추진하였다. 이대희는 조합원 분양 당시 인기가 좋았던 43평형을 신청했는데 조합원 분양가가 4억 7,000만 원이었다. 향원아파트 24평형의 감정평가액이 2억 원 정도였으니 분담금이 2억 원을 훨씬 넘는 액수였다. 남매가 모두 출가해서 부부만 거주하는데 굳이 넓은 집에서 살아야 할 필요도 없고 가장 꼭대기 층이 당첨되는 바람에 입주 직전 분양권을 팔았다. 입주 직후 24평형은 1억 원 정도 올랐고 33평형은 분양가 수준을 유지했으나 43평형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고 그나마 거래량도 미미했다. 1억 원이나 손해를 보고 판 사람도 있었다.

이대희는 집을 잠자는 공간 정도로만 인식했기 때문에 집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상가는 생업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욕심이 많았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을 판 돈으로 파밀리아파트 바로 아래 도로변의 상가를 매입했다. 인계동 재개발 이야기가 돌던 때여서 재개발이 결정되면 이발소를 옮길 생각이었다.

## 인계동의 변화

1980년대 초반 인계동 대성이발관 주변은 조용한 지역이었다. 현재 인계동주민센터 앞의 인계로는 아직 개통되지 않아서 동네를 출입하는 길은 42번 도로에서 들어오는 길이 유일했다. 현 인계로29번길은 마을 안길이었다. 이 길을 따라 들어오면 가장 안쪽에 대성이발관이 있었고 이발관에서 왼쪽으로 꺾어지면 향원아파트 정문이 보였다. 주민센터 뒤쪽 주차장 자리에는 슈퍼, 향원통닭, 향원반점, 전업사가 입주한 상가가 있었다.

1990년 매교~향원아파트 구간에 폭 25m, 길이 610m의 도로가 개설되었다. 밭이었던 곳에 도로가 나자 도로변 양쪽으로 상가가 들어섰다. 도로에 땅이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을 밀천으로 땅주인들이 상가를 지었다. 도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대성이발관



인계로 도로변 상가 2층에 위치한 대성이발관

주변은 새로 난 도로에 인접한 지역이 되었고 유동인구도 늘어났다. 이대희는 신축한 도로변 상가로 대성이발관을 옮기고 싶었다. 아무래도 도로변이 손님을 잡기에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친분이 두터웠던 용환갑이 상가를 짓는다기에 한 자리를 부탁했는데 선택의 여지는 많았으나 임대료가 비쌌다. 탐나는 1층은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7만 원짜리에서 갈아타기에는 무리여서 2층 한 곳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계약했다.

2층에 위치한 이발관은 입지조건만 보면 영업에 불리한 곳이지만 대성이발관은 손님이 많이 찾아왔다. 인계로를 지나는 유동인구가 많았고 특히 삼성전자 직원들이 많이 왔다. 1992년에 전원아파트, 1995년에 영광아파트가 준공된 후에는 그쪽 주민들도 찾아왔다. 주말이면 이발소 문을 여닫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통장, 예비군소대장 등으로 활동한 덕에 고정 고객층이 형성된 데다 지나다가 들어와서 이발을 하고 만족한 손님들의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 주말에는 하루 종일 실 틈이 없었다. 술을 못하던 이대희 부부는 주말 영업을 마친 후에 소주 2잔씩 마셨다. 너무 피곤해서 술에 취해 푹 자고 싶어서였다.

### 인계동 16동 통장

인계동에 들어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대희에게 반장을 맡으라는 요청이 있었다. 대성이발관이 속한 인계동 16동은 토박이나 오래 거주한 사람들이 대개 중장년층이었고 젊은 층은 대부분 자주 이동하는 세입자들이었다. 30대 초반의 이대희는 젊은 층에 속했기에 반장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다. 대성이발관 옆의 인선세탁소 주인이 맡고 있던 반장을 이대희가 이어받았다. 반장을 맡아 보는 중에 통장회의에서 용환갑이 이대희를 16동 통장으로 추천했고 일사천리로 선출되면서 16동 통장이 되었다. 그렇게 1년만 하라고



이대희가 통장 퇴임 시 받은 감사패



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에 참여한 이대희 부부(이대희 제공)

떠맡겨진 통장을 15년 가까이 맡아 보았다. 이대희는 인계동에 들어올 때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다. 사정이 어쩔 수 없어서 들어온 것이고 빚을 모두 갚고 나면 좋은 곳으로 이사할 생각이었는데, 통장을 하다 보니 '고향은 아니지만 여기서 오래 살다 보니 내 고향 같고 나가 보면 다 아는 사람'이어서 이발관에서 돈을 못 벌어도 인계동을 떠나지 못했다.

인계동 16통은 현 인계동주민센터부터 안디옥교회가 있는 언덕 아래까지 포함하며 5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대희가 통장을 보던 1985년부터 1998년까지 인계동은 세대수가 증가 추세였다. 인근의 매탄동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이 회사

와 가까운 지역에 방을 구하면서 자가 소유자들은 집 구석구석 공간을 만들어서 방을 꾸며 세를 놓았다. 미혼자들도 많았지만 젊은 부부도 많았다. 향원아파트 정문 앞의 1반은 남양 홍씨가 몇 가구 사는 세대수가 가장 적었고 인계동주민센터 뒤편의 3반은 세대수가 가장 많았다. 세대수가 많다고 건물도 많은 것은 아니었다. 4반에는 주택 한 채에 10세대의 세입자가 사는 경우가 있었고 5반도 주택 4채에 20여 세대가 거주하였다.

세입자들은 전·출입이 잦았다. 통적부에 주민의 전·출입을 기록하는 것이 통장의 주요 업무여서 이대희는 어느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방문해서 통적부를 작성했다. 적십자회비,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을 받으러 다니는 것도 통장의 업무 가운데 하나였다.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돈을 받아야 하니 집에 사람이 있을 때 찾아가야 했다. 이대희는 통장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6통 지도를 작성했다. 골목과 건물을 그리고 건물마

다 거주자의 이름과 직업 등 간단한 정보를 적어두고 가로등, 하수도 등의 위치까지 표시했다. 이 지도는 나중에 후임 통장에게 전달했다.

일일이 방문해서 수금하는 번거로움은 있었지만 통장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점도 있었다. 적십자 회비를 받으러 다니면 가정형편에 따라 액수를 가감해서 부과했다. 집주인이나 상가주인처럼 여유 있는 집은 더 받고 어려운 집은 안 받거나 덜 받았다. 16통에서 부담해야 하는 액수만 맞추면 되었기 때문이다. 돈을 받으러 다닐 때는 각 세대의 사정을 고려해서 동선을 잡았다. 야간에 일을 하는 집은 오후에 방문하고, 주간에 일하는 집은 저녁에 방문했다. 남편이 돈을 잘 내는 집은 남편이 있을 때, 부인이 돈을 잘 내는 집은 부인만 있을 때를 잘 맞춰 찾아가야 했으니 16통 주민들의 집안사정은 훤히 꿰고 있었다.

통장이라는 이유로 감당해야 하는 일도 많았다. 백일·돌잔치에 초대받으면 통장으로서 선물이나 축의금을 들고 방문해야 했다. 가끔은 일요일 아침에 초대를 받아 술까지 한 잔 권하면 거절할 수가 없었는데 술을 못하는 이대희는 아침에 마신 술기운으로 하루 종일 힘든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하지만 안 갈 수가 없었다. 초상이 나면 동사무소에 가서 천막을 빌려다 주고 부고를 내주었지만 국회의원에게 연락을 안 했다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다. 새마을사업으로 마을길 포장할 때도 재료비를 줄여 보고자 애를 썼지만 공사비를 떼먹었다는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했다. 통장이라고 찾아와서 빚보증을 부탁하는 사람도 많았다. 대개는 크지 않은 그러나 작지도 않은 몇 백 만 원 정도의 액수였기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보증을 섰다. 부인 몰래 서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몇 건은 사고가 나서 이대희가 책임져야 했다.

15년 남짓한 통장 임기 동안 이대희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조대왕 선발대회 참가였다. 수원시에서 매년 개최하는 화성문화제의 정조대왕 능행차 재연에 참여하는 정조대왕은 수원 시민 가운데 선발하였다.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동별로 참가 인원을 할당하기도 했는데 주민들은 참여를 꺼리기 때문에 통장들이 참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대희는 아쉽게 정조대왕에 뽑히지는 못했지만 그해 능행차에 부인과 함께 참여하였다. 지지대고개를 출발하여 수원고등학교까지 도보로 이동한 후 차량으로 용·건릉까지 이동하는 일정이었는데 짚신을 신고 10km가 넘는 거리를 걸었더니 엄지발톱이 빠지기도 했다.

인계동 통장들은 '통친회'라는 모임을 갖는다. 통장들의 친목모임인데 통장으로 일하는 동안 가입하고 통장을 그만두면 탈퇴한다. 이대희는 통친회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



2016년 KBCA 전국이용기능경기대회에서 작품 시연 중인 이대희(이대희 제공)

기도지사상을 2회 수상했고 수원시장상도 2회 수상했다.

## 명장을 꿈꾸다

인계동에 들어와서 대성이발관을 시작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이대희를 '이발관 이 사장'으로 불렀다. 사업 실패 후에 짙어진 빛을 갹기 위해 그저 돈만 열심히 벌던 시절이었다. 빛을 모두 청산하고 나니 이대희의 마음에는 커트나 염색만 하는 이발사가 아닌 더 많은 기술을 가진 이발사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아이롱파마 기술을 배웠고 친구에게 처음 해 주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 남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이대희가 보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여서 다시 파마를 했는데 머릿결이 철사처럼 되어 버렸다. 파마의 기술은 익혔으나 원리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달 동안 매일 아침마다 친구에게 커피를 사 주면서 드라이어로 잘 펴지지도 않는 머리카락을 폈다. 이대희는 뭐가 문제



이대희는 2015년 수원시 최초로 이용기능장 자격을 획득했다.

였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대구의 직업전문학교에 등록하였다. 수업이 있는 날이면 새벽열차를 타고 대구에 내려갔다. 수업을 듣고 수원에 도착하면 오후 2시가 지나 있었고 그때부터 이발관 영업을 시작했다. 서경대학교 사회교육원 경영관리과정도 수료했다.

2000년대 초반에는 C.A.T(이미용예술기술협회) 국제강사 아카데미를 졸업하기도 했다. C.A.T는 새로운 이미용 기술을 개발하는 단체로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고 각 나라별 지부가 있었다. 이대희는 이용사로서 자기계발을 위해 한국지부 부회장까지 맡으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지만 활동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해서 그만두게 되었다.

배움의 갈증을 해소하고 이용사로서 자기계발에 노력하는 동안 이대희는 수원시에서 꽤 유명한 이용사가 되었다. 대성이발관은 선거철이면 수원시의 입후보자들이 프로필 사진 촬영 전에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 많이 찾아왔다. 김용서 전 수원시장도 단골이었다.

이대희는 대한이용사협회중앙회 강사자격증을 취득하여 강사로 활동 중이다. 2015년에는 수원 최초의 이용기능장이 되었다. 2년여의 노력 끝에 얻은 결과였다. 이제 남은 것은 이용사의 최고봉인 명장 타이틀뿐이다. 명장이 되지 못한다면 후배라도 명장으로 키우는 것이 이대희의 마지막 꿈이다. 이미 3명의 중앙회 강사와 2명의 이용기능장을 키워낸 경험도 있다.

이대희는 많은 비용을 들여 기술을 익혔지만 후배들에게 가르칠 때는 돈을 받지 않고 100%를 전수했다. 그것이 선배의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후회가 되는 면도 있다.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서 얻은 것은 가치가 있고 무료로 얻은 것은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인계동에서 대성이발관을 운영하며 돈을 잘 벌긴 했지만 모으지는 못했다. 이대희의 학



대성이발관 내부. 각종 임명장과 표창장, 사진, 자원봉사단 조끼 등이 이대희의 다양한 사회 활동을 보여 준다.

끊어질 것이다. 지금의 이대희는 자신을 믿고 먼 곳에서도 꾸준히 찾아와 준 고객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와서 돈을 벌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워 다시 고객들에게 돌려주면서 기능장까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구월이 원인이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보다 나은 위치에 서기 위해 피나는 노력이 있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이발 기술로 번 돈을 재투자한 셈이다. 수원시 이용업계에서 이대희는 나름 한몫을 했다고 자부한다.

이대희는 오랫동안 이용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재능기부 차원에서 이용 봉사를 시작했는데 혼자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 후배들을 독려해서 ‘다솜누리봉사단’을 조직하게 되었다. 다솜누리봉사단은 매일 마지막 화요일 저녁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적십자회 봉사단 활동도 하고 있다. 한 달에 2번 수요일 오전에 가게 문을 닫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으로 이용 봉사를 하러 간다. 전국에서 이·미용 적십자회 봉사단이 있는 곳은 광명과 수원뿐이다.

인계동 재개발을 앞두고 지인들은 이대희에게 남문 변화가로 옮겨서 크고 폼나게 영업을 해 보라고 권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지금의 오랜 단골들은 만날 수가 없다. 변함없는 싼 가격에 찾아오는 고객들인데 변화가로 나가면 요금이 비싸지고 결국 오랜 고객들이

임  
병  
자

전  
원  
경



이진희

경기민예총 문화위원장

## 영광아파트에 살다, 임병자와 전원경



인계로40번길에 위치한 영광아파트는 1995년에 입주한 한 동짜리 아파트이다. 팔달 115-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속하여 2017년 12월부터 이주가 시작되었다. 2018년 11월 현재 총 206세대 가운데 204세대가 이주를 완료하였다. 영광아파트 주민이었던 전원경과 임병자는 분양받아 입주해서 2018년 이주할 때까지 23년간 영광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이들은 조합원 자격으로 재개발 완료 후 다시 인계동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 내 집 마련의 꿈, 아파트 당첨

임병자는 영광아파트에 가장 먼저 입주한 주민이다. 1960년 해남 출생으로 서울 영등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서 1983년 4월에 결혼을 했다. 남편은 건설회사의 중장비 관련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제도며 강원도 등 전국으로 이사를 참 많이 다녔다. 수원의 세류3동으로 오기 전에는 오산에서도 잠시 살았다. 큰딸이 5살, 작은아이가 3살일 때 수원에 입성했다.

임병자는 수원에서 집을 얻으러 다닐 때마다 아이가 몇 명이냐는 집주인의 질문이 그

렇게 듣기 싫었다고 한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청약통장에 가입하였다.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싶어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이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수원에서는 민영아파트 분양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결국 청약통장을 민영주택으로 바꾸고 1990년대 초반 권선동 삼천리아파트 분양 때 신청을 했다. 당첨에 실패한 임병자에게 지인이 인계동 영광아파트 분양 정보를 주었다.

**임병자** 그러다가 삼천리아파트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민영으로 돌려서 아침 9시부터 장 오후 서너 시까지 동수원 주택은행에 가서 줄서서, 하루 종일 걸려서 서류를 넣었는데 당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를 언제 가나 그러고 있는 참에 누가 정보를 주더라고요. 아는 교인이었는데, 인계동 영광아파트가 한 동짜리지만 남문, 뉴코아하고 가깝고 위치가 좋다고 하기에, 가격대는 조금 비쌌는데도, 어떻게 하나 넣었는데 예감에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거죠.

임병자는 영광아파트 입주일을 1995년 6월 30일로 기억하고 있다. 예정보다 빠른 입주였다. 세류3동의 주택에서 초등학생 자녀 두 명과 부부가 한 방에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하루라도 빨리 아파트로 오고 싶은 마음에 입주를 서둘렀다고 한다.

**임병자** 6월 30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주택에서 살다가 빨리 아파트로 가고 싶어서 방 하나짜리에서 잠시 살았지요. 잔금을 줘야 하는데 솔직히 그 시절에 돈이 뭐 있어요? 아파트에 최대한 돈을 넣으려니 짐을 다 버리고 웅색하게 살다가 마지막 잔금 넣고 나서는 입주일이 얼마 안 남으니 얼른 가야지 하는 생각만 했지요.

전원경은 1962년 경북 예천 출생이다. 시골에서 어른들이 중매를 해서 1987년에 대구에서 결혼을 했다. 전원경의 남편도 중장비 일을 한다. 결혼 후 서울 오류동에서 2~3년 살다가 순위 시누이가 분양받은 매탄동 동남아파트에서 4~5년 전세 살다가 영광아파트에 입주하였다. A타입에 분양 신청을 했지만 계속 떨어져서 빨리 당첨되려고 B타입에 분양 신청을 했다. 1층과 꼭대기 층처럼 선호도가 낮은 층은 B타입, 선호도가 높은 층은 A타입이었다. 최상층인 19층에 당첨이 되었는데 남편은 나쁜 층에 당첨되었다며 투덜거렸다.

**전원경** 남문을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안쪽에 갈 수 있죠. 전통시장을 걸어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영광아파트에 분양 신청을 넣은 거예요.

**전원경** 너무 좋았지요. 저도 그래서 한 달 내내 집들이를 했어요. 애들 아빠 친구, 내 친구,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불러서. 처음에만 꼭대기 층이라고 투덜거렸지 우리 신랑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파트가 오래 되어서 헌 집이 돼서 그렇지, 처음에는 새 집이니깐. 그리고 처음으로 장만했으니깐요. 내 집으로는 첫 집이었어요.

임병자는 24평형을 분양받았다. 34평형보다 작았지만 방이 3개여서 남매와 부부 4인 가족이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그때만 해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산다는 걸 생각하지 못해서 가진 돈에 맞춰 아파트를 산 것이다. 아이들이 크고 살림살이가 늘어나면서 집이 점점 좁아졌다.

**임병자** 24평인데도 방은 3개였어요. 저는 월세 내는 게 싫었는데, 용자를 받으면 월세 산다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다 주고 들어가느라고 작은 평수를 분양 받은 거예요. 그 때는 소심했지요. 멋모를 때여서. 남의 빛이라면 무서워하고 빛지면 큰일나는 줄 알았죠. 그래서 내 돈 다 주고 간신히 아파트에 들어갔죠.

**임병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처음 2~3년 동안은 손님을 치러도 새벽 2~3시까지 청소를 하고 살았었어요. 내 집을 장만했다는 게 너무 좋아 가지고. 부모 도움 없이, 누가 해 준 것도 없이 장만한 집이니깐요. 저는 결혼해서 보증금도 없는 월세를 살았거든요. 그런 형편이었다가 내 집을 장만해서 들어가니 얼마나 뿌듯해요. 시댁에서도 도움 하나 못 받았어요. 한동안 너무 좋았죠. 그런데 애들이 크고 살림이 늘어나니까 이전 집이 좁아져서 지옥 같아졌죠.

## 시골 동네처럼 편안했던 영광아파트

영광아파트는 T자형 복도식 아파트였다. 34평형과 24평형이 한 층에 섞여 있었다. 1~4호가 24평형이고 5~8호가 34평형, 직각으로 꺾인 부분은 9~10호가 24평형, 11~12호가 34평형이었다. 층수도 9층부터 19층까지 다양했다. 한 동짜리 아파트였지만 T자형 구조

라서 다른 아파트에 비해 세대수가 많았다. 총 206세대가 거주했는데 모든 세대가 한 곳의 출입구를 이용했고 엘리베이터는 홀수 층과 짝수 층 전용으로 구분해서 운행하였다. 출입구가 한 곳이다 보니 영광아파트 주민들은 누구나 오다가다 한 번쯤은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임병자** 우리가 홀수 층에 살아도 급할 때는 짝수 층 엘리베이터를 탈 때가 있던 말이에요. 한 층만 걸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되니까. 그렇게 20년 넘게 살다 보니까 다 알죠. 그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는데 누가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차 한 잔 하고 가.”라고 하면 서너 명이 우르르 그 집으로 가기도 하고.

**임병자**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잖아요. 더군다나 엘리베이터가 엄청 컸거든요. 그렇게 크니까 많은 사람이 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두 대밖에 없었지만 엄청 컸어요. 그걸로 이사할 정도로요. 초창기에는 고층이 아니면 거의 다 그

독특한 영광아파트 외관



엘리베이터로 이사를 했지요. 큰 물건 올라갈 거나 사다리로 옮겼지, 사실 그때 우리는 다 엘리베이터로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짐을 싣기가 충분하니까.

영광아파트 입주 초기에 도둑이 든 적이 있다. 1층에는 경비실이 있어서 들어오지 못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방범창을 자르고 침입했다고 한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방범창을 철제로 교체하는 집들이 많았다.

**전원경** 경아네하고 2호하고, 여섯 집인가에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입주하고 나서 몇 달 안 있다가 그랬어요. 그레 옆집이 그런 걸 보니까 불안해 가지고, 알루미늄은 휘어지고 하니까 그걸 잘라서 집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입주 초기에는 주민들끼리 서로 얼굴을 익히지 못했을 때라 낯선 사람이 돌아다녀도 별로 의심받지 않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다. 아파트 경비가 강화되었는지 주민들이 가까워져서 그랬는지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

영광아파트에는 오래 거주한 주민들이 많았다. 전원경과 임병자는 1995년 입주 때부터 2018년 재개발로 이주할 때까지 23년간 영광아파트 주민으로 살았다.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기 전, 그러니까 2008년에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기 전까지는 절반 이상이 입주 때부터 살던 주민들이었다.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초기 입주민은 30% 정도만 남았다. 그래도 영광아파트에 입주했던 사람들은 최소한 10년씩은 살다 나간 듯하다.

**전원경** 살아 보니까 남문 가깝지, 사람들이 동네 시골처럼 지내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영광아파트에는 오래 산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중간에 이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오래 산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지내지요. 바뀐 사람들은 모르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지. 그러기 전까지는 다들 오래 살았어요. 시골 동네처럼 그냥 정이 들고 사람들이 좋았어요.

영광아파트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정기 모임이나 친목회는 없었지만 가까운 사람들끼리 개인적으로 친목을 도모하며 모여서 음식 해 먹고,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그렇게 시골 동네처럼 지냈다. 전원경은 자신과 친한 주민 10명을 모아서 모임을 주선했다. 임병자는 교회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다. 비슷한 포레가 모인 것도 아니었다. 40대도



전원경과 영광아파트 주민들의 일본 북해도 여행(전원경 제공)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그런데 오래 같이 살아 가지고 나이 차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모여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놀러가고. 중국 여행을 갔었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한다.

**전원경** 국내는 자주 놀러는 안 갔는데 가까운 데 고기리도 가고, 몇 년에 한 번씩 놀러가요. 아, 그리고 공연도 보러 가고요. 내가 모임의 총무 할 때 공연도 보고 뭐도 하자 계속 이랬더니 모임 중 한 분이 “아유, 언니가 총무 할 때가 제일 잘 했어.” 이러더라고요. 모여서 밥만 먹고 헤어지니까 어머,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연 ‘맘마미야’도 예약을 해놓고 보고, 또 가수들 오면 공연 보자 하고, 밥 먹는 것도 야외로 나가자 해서 나가고. 의미가 있으니까 재밌었죠.

남자들은 서로 안면이 있어도 뭉치기는 쉽지 않았다. 다들 직장이 달라서 그랬다. 몇 집이 함께 여행 가려고 돈까지 모았는데 결국 시간 조율을 못해서 여행을 못 간 적도 있다. 식사를 함께 하는 정도는 가능했다. 아이들은 같은 학년이면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면서 같이 놀고 그렇게 지냈다.

## 영광아파트에서 아이 키우기

전원경은 큰딸이 유치원생일 때 영광아파트에 들어왔다. 한 동짜리 아파트다 보니 아파트 안에 유치원이 없어서 아이들은 가까운 인계주공5단지 안에 있는 백합유치원에 다녔다. 통학차가 영광아파트로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 중앙침례교회에서 운영하는 중앙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다. 중앙유치원은 선착순 모집이라 엄마들이 전날부터 밤새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가 등록을 하기도 했다.

영광아파트에는 놀이터가 하나 있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놀이터에서 모래 장난을 하며 놀았다. 놀던 아이들은 저녁때가 돼서 들어가자고 해도 집에 안 들어가려고 했다. 또래 친구들과 노는 것이 좋아서 백합유치원 다니던 여자아이들이 다 그랬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크면서 놀이터는 더 이상 아이들이 노는 곳이 아니었다.



전원경의 두 딸(전원경 제공)  
영광아파트 입주 초기 베란다에서 찍은 사진이다.

**전원경** 요즘은 어른들이나 불량 학생들이 놀이터에 앉아 있지 아이들은 놀이터를 쓰지도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입주했을 때는 아이들이 놀이터 모래밭에 가서 놀기도 했는데, 개들이 조금 더 클 때쯤 되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게 시작되면서 2000년 중반인가부터 아이들이 노는 게 어디 있어요. 놀이터에 아이들은 없고 불량배들이나 거기서 놀고 있고 어른들이나 가서 앉아 있고 그랬지 누가 있어요, 놀이터에.

영광아파트가 인계동이고 인계초등학교가 멀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권선초등학교로 통학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남자아이들은 가까운 매교동의 수원중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원중학교는 원래 남학교였는데 2008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었다.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남녀공학인 매탄동의 매현중학교나 권선동의 곡선중학교로 진학했다.

중학교까지는 거주지 인근의 학교로 배정되지만 고등학교는 지망하는 순서에 따라 무작위 추천제로 배정되기 때문에 간혹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었

다. 임병자의 딸은 권선고등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영통의 청명고등학교에 배정되었다. 전원경의 큰딸은 집에서 가까운 매탄동의 효원고등학교에 다녔지만 작은딸은 오목천동의 영신여자고등학교에 배정되었다. 지금은 학교가 많지만 당시에는 학교가 다 외곽에 있어서 통학하는 게 어중간했다. 영광아파트에서 통학하기에 영통의 청명고등학교도 교통이 불편했지만 오목천동의 영신여자고등학교는 더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래서 통학용 승합차를 타고 다녔다.

**전원경** 우리 작은딸은 영신고등학교에 되고 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9순위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 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했는지. 그래서 새벽에 봉고차를 타고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냥은 갈 수가 없어서.

**임병자** 그래도 우리 딸은, 집 앞에 영통까지 가는 2-1번 버스가 있어서, 그거 타고 청명고등학교에 다녔지요. 그런데 말도 말아요. 어느 한가 버스가 못 다닐 정도로 갑자기 폭설이 내렸는데, 애가 처음에는 전화가 연결이 됐는데 나중에는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영통에 사는 아는 이모네 가서 잠 좀 자면 될 텐데, 융통성 없이 고지식해 가지고 그저 집으로 오느라고. 나중에는 전화는 안 되지, 애 아빠 보고 가보라고 했더니 폭설이 너무 심하니까 차를 끌고 갈 수

권선초등학교 전경  
영광아파트는 인계동에 속하지만 권선동의 권선초등학교 학군에 해당하였다.



가 없다지. 장장 세 시간 반인가를 눈길에 푹푹 빠져 가면서 걸어서 집에 왔나 봐요.

전원경은 딸이 돌이고, 임병자는 남매를 두었다. 전원경의 큰딸은 내년엔 시집을 간다고 한다. 아이들이 어릴 때 영광아파트에 와서 그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 한 곳에서 20년을 넘게 살았다.

## 청소, 청소, 그리고 또 청소

임병자는 2018년 1월에 이주할 때까지 4년 6개월 정도 통장을 맡았다. 1월에 연임됐지만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만두었다. 10년이 넘도록 장기간 통장을 했던 전임 통장이 노인정 운영에 관한 문제로 노인들과 갈등을 빚었던 모양이었다. 그래서 신입 통장을 뽑는다는 공고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었다. 내내 일을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 잠시 쉬고 있던 임병자는 공고를 보긴 했지만 관심이 없어서 그냥 넘겨 버렸다. 그런데 지원자가 없었는지 공고문이 다시 붙었다. 임병자는 이번에는 관심을 갖고 도전했다.

**임병자** 통장은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하게 놔뒀던가 봐요. 그런데 너무 오래하니까 동사무소에서 바꾸기는 하더라도요. 요즘은 임기가 어느 정도 있어요. 2년 하고 자동 연임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하겠다는 후보가 나서면 바로 교체, 사람이 없으면 다시 연임하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임기가 8년이었는데 이제는 4년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한 사람이 통장을 너무 오래하면 주민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저는 통장을 2년만 하고 그만두려고 처음 1년간은 소극적이었어요. 봉사하는 것도 안 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아, 이런 것도 해야 하는구나.'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 알게 되는 게 많더라고요.

임병자가 통장을 맡은 동안 가장 많이 한 일은 청소였다. 시청 주변이 지저분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시청이 속해 있는 인계동의 통장들은 매주 시청 주변을 청소했다. 아침 10시부터 집계를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웠다.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시청 있는 데까지 대청소를 실시했다. 새마을금고 팔달 인계1지점 근처에 조성한 다울공원은 아예 인계동 통장들이 관리했다. 친환경 세제라고 알려진 EM발효액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다.



보라색 조끼를 입고 2016년 추석맞이 대청소에 참여한 인계동 통장들(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임병자** 봄에는 어버이날 무렵에 행사가 있어요. 마을 단위로, 인계동 통장들이 어른들에게 식사 대접 봉사를 하는 거예요. 축협이 있던 자리에 있는 웨딩홀 4층하고 5층에서 노인 분들 1,000~1,200명에게 식사 대접을 해요. 인계동 거주 노인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요. 인계동 통장이 총 63명이었어요. 63통까지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재개발 때문에 이사를 가서 한 20명 가까이 빠졌지요. 그만둔 게 아니라 동네가 재개발되는 바람에 40여 명이 된 거지만. 인계동이 대단히 크죠? 아무튼 통장들이 없으면 일이 안 될 정도로 통장들이 활약을 많이 했지요.

통장들이 참여하는 동네 청소는 임병자가 통장을 맡았던 기간 내내 즐기치게 이어졌다. 청소, 청소, 또 청소였다. 통장들의 불만이 생기자 나중에는 구역을 나누어 순번제로 진행하였다. 불참자는 벌금을 내도록 해서 자기 순서에 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는 통장은 다른 순서의 통장과 알아서 날짜를 바꾸기도 했다.



영광아파트가 들어선 곳은 인계동의 구도심이라서 주택가와 상가가 혼재되어 있고 마구잡이로 설치된 전선과 생활 쓰레기 등으로 인해 혼잡스러운 모습이다.

**임병자** 염태영 시장님이 시청 주변, 인계동 박스 안이 그래도 인계동을 대표하는 곳인데 너무 더럽지 않냐 해서 통장들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시청 직원들까지 합세를 해서 청소를 했는데, 우리는 보라색 조끼, 시청 직원들은 연두색 조끼를 입고 청소를 했어요. 동사무소에 가면 청소하던 사진들이 다 있어요. 가보세요. 한 주마다 매번 청소를 했어요. 나중에는 청소가 너무 지겨우니까, 개인적인 일도 좀 봐야 하지 않느냐, 한 주에 한 번씩은, 살림도 해야 하는데 너무 자주 한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10통에서 20통까지 자르고, 20통에서 40통까지 자르고. 10통씩, 20통씩 잘랐다가, 15통씩도 잘랐다가 하면서 돌아가면서 청소를 했어요. 청소 하러 안 나오잖아요? 명단에 체크까지 해 가지고 벌금까지 물렸었어요. 하도 안 나오니까요.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하니까요.

구도심이라는 인계동의 특성상 동네 청소는 중요한 문제였다. 영광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단지는 쓰레기를 마구잡이로는 안 버리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금방 지저분해지니

까 통장들이 통장 재량에 따른 지원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조건을 만들면 동사무소에서 지원이 나왔다. 동사무소에 지원 요청을 하면 청소도 하러 나와 주고 쓰레기봉투도 몇 개 지원해 주고 공공근로 인력을 청소에 투입하기도 했다. 통장들은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에 가서 쓰레기가 어떻게 배출되고 처리되는지 견학을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기도 했다.

**임병자** 수원 화성행궁과 가까운 거리인데, 수원 시내의 통로인데 너무 지저분하고 낙후가 돼서 그래서 지금 재개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소에 굉장히 중점을 두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발전이 안 됐잖아요. 재개발이 진행하기 쉽지는 않아도 행궁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재개발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개발 안 해도 충분히 여기서 살 수 있는데 가라고 하니깐, 보상 받은 돈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불만도 많겠지만요. 그런데 또 맨날 그 타령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 우리처럼 선뜻 호응해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들이 생각이 다들 다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거겠죠.

## 조합원과 현금청산자

영광아파트 재개발은 2017년 5월 주민총회에서 결정이 되었다. 2017년 5월에 관리처분을 하고 이주 시작은 같은 해 12월 7일부터였다. 2018년 11월 현재 영광아파트가 속한 팔달8구역 전체 가구 가운데 85%가 이주를 했고 영광아파트에는 두 가구가 남아 있다. 12월까지 이주를 마감하고 나면 강제 집행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좋은 쪽으로 해결하려고 남은 사람들과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남아 있는 사람들은 현금청산자이다. 재개발 후에 다시 돌아오는 조합원과 달리 현금청산자는 보상금을 받고 나가면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다.

**전원경** 우리는 조합원이고 조합원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현금청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조합하고 협상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합에 조합원 신청을 한 거고요. 그분들은 돈을 받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임병자** 조합에서는 강제 집행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사람 일이란 모르는 거니까 자꾸 좋은 쪽으로 해결하려고 올 연말까지는 나가 달라고 살살 달래는 것 같아요. 다른 현금청산자들은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나갔는데, 지금 영광아파트에는 두 가구가 남아 있는 거죠.

영광아파트는 당초에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파트만 있으면 재건축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영광아파트 후문 쪽의 2차선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어서 영광아파트 쪽으로 2.5m가 도로에 포함된다고 한다. 그러면 아파트의 일부가 잘려나가게 되므로 초기 계획과 달리 재개발구역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원경과 임병자는 재개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전원경** 잘된 거죠. 영광아파트가 들어가고, 그 옆 전원아파트도 들어가고. 저희 영광아파트가 모퉁이에 있잖아요. 상가 빼놓고는. 영광아파트가 효자라니까 효자.

**임병자** 저 같은 경우는 집 장만하기가 어려웠던 차에 어쩌다가 한 동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속상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효자 노릇을 한 거죠. 사실 제 가격은 못 받았지만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 가려고 하는 거죠.

분양받을 아파트의 입주 예정 시기는 2022년이라고 한다. 하지만 전원경은 그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 남아 있는 주민들 이주도 시켜야 하고,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고, 추첨도 해야 하고, 여러 절차가 많이 남아서 앞으로 5~6년은 있어야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18년 8월 6일 현재 팔달8구역의 전체 이주율이 83%였다고 한다.



영광아파트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 입구

## 언제 다시 만나 모여 살까

전원경은 2000년쯤인가에 동대표단의 임원을 맡아 몇 년간 일을 했다. 그때 정월대보름에 척사대회를 열었다. 영광아파트는 입주하고 나서 10년 정도 지난 후에 7~8년간 척사대회를 개최했다. 윗놀이를 마치고 다들 막걸리 한 잔씩 마시고 노래 부르고 놀았는데 재미있었다. 두 번째 척사대회는 날이 춥다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했는데, 고기 굽는 연기가 안 빠져서 곤란을 겪기도 했다. 재개발 얘기 나오고 최근 몇 년 전부터 척사대회는 중단되었다.

**전원경** 척사대회를 처음에는 놀이터에서 했어요. 거기서 아예 암태지를 한 마리 잡아 가지고 바비큐 하고 떡도 하고 음료수, 과자, 과일 다 해가지고 주말 낮에 잔치를 벌인 거예요.

**전원경** 할머니들도 엄청 많이 오고 애들까지 다 왔어요. 음식도 싸가지고 가고. 윗놀이는 첫 해는 상품을 안 줬는데 나중에는 이것도 상품도 걸자 해서 그로부터 해서 이런저런 상품을 걸었는데 그때 우리 신랑이 1등 해서 상품권을 받아 가지고 준영이네하고 밥을 먹었다니까요. 그 걸 내가 안 가지고, 이거 가지고 밥 먹자 해서. 그런데 남자들이 오히려 더 재밌어했어요.

아파트 주민 행사의 개최 여부와 내용은 동대표의 의지에 달려 있었다. 한 동짜리 아파트라 서로를 너무 속속들이 알아서 좋을 때도 많았고 갈등도 있었다.

**전원경** 단양팔경도 구경하러 가서 유람선도 탔고. 한 번은 젓갈 나는 데, 광천도 갔고요.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동이 작다 보니까 절차를 제대로 안 밟았다고 하면서 딴 사람이 우리를 걸고 넘어져서 동대표랑 임원을 그만뒀어요.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었어요. 한 동네 모여 살다 보니까 서로를 너무 많이 알아요. 하하.

재개발로 어쩔 수 없이 영광아파트를 떠났지만 전원경과 임병자 두 사람은 함께 살았던 시절이 좋았다고 회상한다. 전원경은 현재 사는 곳은 같이 입주를 한 것도 아니고 계단식이라 두 집밖에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가 없다고 한다. 영광아파트는 통로도 넓고 복도식이라 같이 걸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사는 아파트도 같이 입주를 했다면 뭔가 대화가 될 텐데, 대화도 안 되고 해서 영광아파트에 살 때 같지가 않다고 한

다. 지나고 나니까 영광아파트에 살 때가 좋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임병자** 서로가 너무 인색하지 않고 자기한테 뭐라도 있으면 즐까 하면서 좀 다정했다고 할까 그런 게 있었어요, 영광아파트에는.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들을 잘 만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영광아파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여성문화공간 휴'에서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무료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기를 알려 주고는 거기서 좀 봅시다 그러죠.

재개발이 되고 나면 분양받은 아파트에 다시 입주할 사람들은 영광아파트 전체 가구 중에 절반 정도 될 것 같다고 한다. 2022년 입주 예정이라고 하니 늦어도 2024년에는 입주할 수 있을 거라고들 예상하고 있다. 이주를 시작하고도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 남은 시간도 금방 지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아이들이 모두 떠난 영광아파트 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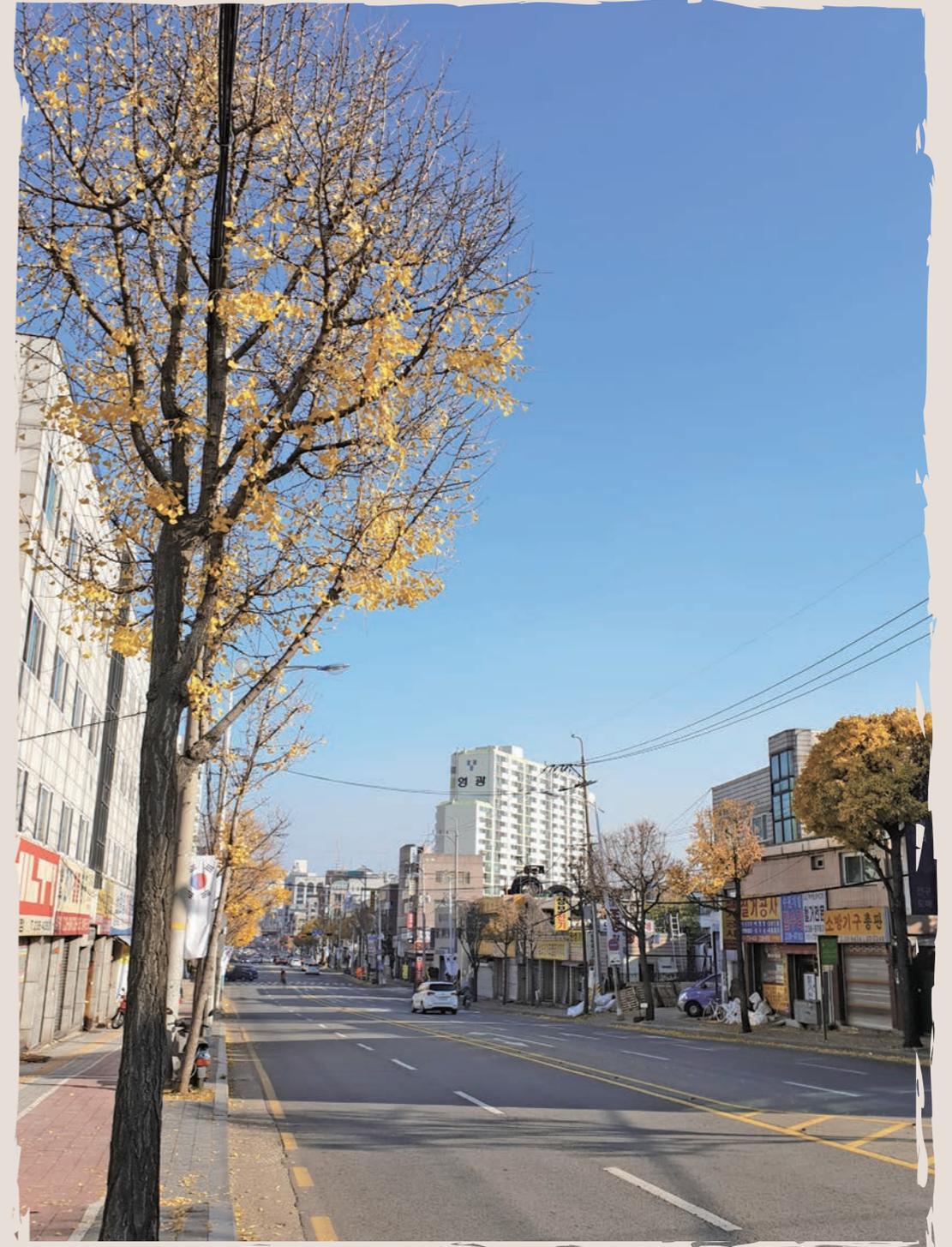


**임병자** 그래서 언제 다시 만나서 모여 살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해요. 재개발 되고 나면 다시 많이들 입주할 거예요. 지금 조합원이 꽤 많아요. 초창기에는 8구역 조합원이 1천 8백 몇 명인가 했는데, 지금은 다 빠지고도 작년 5월에 보니까 1천 5백여 명이더라고요. 영광아파트에 살던 사람들도 절반은 재입주를 할 것 같아요.

**임병자** 대단지가 들어와요. 52동이라는데, 배치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영광아파트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대형 평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영광아파트 사람들이 과연 그 평수에 들어갈까 싶어요. 저는 거기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보상이 감정가로 나왔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부가가치를 보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억울한 면이 있기는 있죠.

서로를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아서 좋을 때도 있었지만 때론 크고 작은 갈등도 있었던 23년 영광아파트에서의 삶. 이주가 완료되고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고 나면 영광아파트는 거기 살았던 사람들의 추억 속 사거리 모퉁이에서만 이따금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낡은 모습을 벗은 새로운 마을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이든, 현재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의 기억 속이든 말이다. 지나고 나니 의견이 달라 갈등하고 반목했던 일들 조차 추억이 되었다. 어쨌든 재개발은 확정이 되었고, 이제 팔달8구역과 그곳 영광아파트 사람들의 삶은 또 어떤 지도를 그려 나갈지 모를 일이다. 그래도 아무쪼록 모두 행복하길. 영광아파트라는 이름의 영향 아래 모두에게 영광이 있기를.

**임병자** 나는 인계동 동네가 너무 좋은가 봐요. 그게 왜 좋으냐면 영광아파트에서 남문시장 이 정말 가깝거든요. 지금 사는 곳은 곡반정동사거리, 명성교회 있는 사거리인데 운동하기는 정말 좋아요. 차가 아파트로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마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운동 코스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살기 좋은데,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저는 정이 안 가요. 영광아파트 살 때는 한 10분, 15분 사이면 쪽 걸어가서 운동도 다녀오고 모든 쇼핑을 다 하고 팔달산도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지금 사는 곳은 내가 세를 들어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집인데도 적응이 안 돼요. 이사를 3월 3일에 갔으니까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그런데 적응이 안 된다니까요. 나는 얼른 다시 인계동으로 가고 싶어요.



인계동 영광아파트

최  
선  
비



윤 유 석

(사)역사문화컨텐츠연구원 연구원

## 7남매를 키운 영동시장 '김씨아줌마' 최선비



### 선지와 국수가게 아줌마

최선비는 1928년 강원도 철원군 동성면 오지리 골말에서 태어났다. 21살이 되던 해 6·25전쟁이 나면서 9살 된 여동생과 13살 된 남동생과 함께 월남을 했다. 어머니는 전염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후였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다. 최선비도 피난 당시 전염병을 앓고 있었다. 머리가 다 빠지는 병이었다. 사람들은 최선비를 서울 광나루에서 수원천 냇가로 데려다 났다. 영동시장이 있는 곳이었다. 어떻게 수원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동생들은 광나루에 놔 두고 최선비만 수원천에 데려다 놓은 것이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동생들이 최선비를 찾아왔지만 그 전까지는 수원에서 가족 없이 혼자 지냈다. 최선비의 기억은 머리카락이 빠진 채로 냇가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던 장면부터이다.

**최선비** 처음에 와서는 내가 이렇게 툭이아가 됐었어. 그 나쁜 병 있잖아. 머리 빠지고, 엠병. 말하자면, 그거를 참. 보따리, 옷 두어 개 해가지고 여기다 끼구. 머리는 다 빠지고. 여기 와갔고 배가 고파서 냇가에 장사꾼들 선지 팔다가 내불구, 인제 그거 좇어 먹구. 또 영동시장이 불이나서 집이 하나도 없었어 6·25 때. 아무것도, 집두 없구. 냇갈로 버드나무가 아릅드리로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있었구.



6·25전쟁 당시 방화수류정 근처에 형성된 피난민촌(1950년대, 수원박물관 제공)  
최선비는 전염병에 걸려서 피난민촌에 들어가지 못했다.

6·25전쟁 당시 수원에는 월남민연락소가 있었다. 연무동·남수동의 철원민연락소, 세류1동의 황해도민연락소, 팔달사의 개성시민연락소 등 수원에 12개의 수용소 겸 연락소가 있었다. 피난민들은 연락소에서 정보교환을 하면서 정부에서 주는 구호미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직업을 소개받거나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기도 했다. 연락소는 정착촌으로 발전해 연무동, 세류1동, 영화동 등에 피난민촌이 형성되었다.

전염병을 앓고 있었던 최선비는 다른 월남민들과 함께 피난민촌에 있지 못하고 영동시장으로 오게 된 듯하다. 영동시장은 1919년 문을 열어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는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이었고 경기 남부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다. 영동시장에서 최선비는 시장 사람들이 팔다 버린 것들을 주워 먹으며 살 수 있었다. 한 번은 검은 봉지에 들어있는 선지를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먹다 보니 하얀 구더기가 꾸물대고 있었다.

**최선비** 그때 시절은 진짜 뭐가 있어. 피난민은 많고. 그런 거 좇어 먹고 그러더니. 빨래하러 가서, 선지를 이렇게 인제, 구더기가 하애. 그걸 다 좇어 먹은 거여 그걸. 아이구.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아, 나. 그래 가지구 '아이구 이걸 다 먹었구나.' 정신없어서. 배고프니깐 그냥 막 좇어 먹고. 아이구 그래 가지구 머리두 나구, 일도 잘 하구. 그러니깐 그 아줌마 둘이 붙잡고 너는 딴 데로 가면 안 된다 그러구 시집까지 보내준 거여.

최선비의 말처럼, 그때 그렇게 선지와 구더기를 먹어서인지 따로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머리카락도 다시 나고 병도 나았다. 선지와 함께 최선비가 기억하는 생명의 은인은 국숫집 아주머니이다. 천막에서 국수를 팔던 두 아주머니가 최선비를 챙기고 함께 살게 해 줬다. 병이 낫게 된 최선비는 시장 안 우물에서 물지게로 두 양동이씩 물을 퍼다 날랐다. 김칫거리를 가져오면 달려들어 다듬었다. 일을 잘 했기 때문인지 아주머니들은 혼자 된 이북 처녀를 계속 데리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황해도 남자를 중매해서 혼인도 시켜 주었다.

## 안 해 본 장사가 없어

23살에 결혼을 한 최선비는 국숫집 아주머니 집에서 나와, 남편과 함께 장사를 시작했다. 처음 시작한 장사는 튀김, 일명 덴뿌라 장사였다. 튀김장사를 시작으로 겨울이면 빵장사, 여름이면 덴뿌라 장사를 했다.

**최선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튀기지를 못해 못 팔아. 사람이 많아서. 다리 하나 건너가려면 30분 걸린다고 그랬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땐 풍로, 풍로에다 숯불 펴서, 이거 저기 불 넣어서 바람 돌려가지고 기름 뿌리면 인제 덴뿌라, 그 덴뿌라 장사로다가 장사 시작을 그렇게 해가지구 그냥 장사로 늙은 거여.

나중에는 수인선 협궤열차를 타고 군자염전에 가서 소금을 사다가 팔기도 했다. 수원과 인천을 오가던 수인선은 1937년 개통돼 1995년 폐쇄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발이 되었던 교통수단이었다. 디젤 엔진으로 바뀌기 전까지 조개탄을 연료로 사용했는데, 추울 때는 열차에서 떨어진 조개탄을 주워다가 방을 데우기도 하였다. 그렇게 장사를 시작해 안 해 본 것이 없었다.



수원 일대의 미곡 집산지였던 영동시장 사진 골목(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최선비** 소금장사가 끝나니까 쌀장사, 땅콩장사, 호두장사, 대추장사, 은행장사, 안 한 거 없 이 별 장사를 다 해봤어. 촌에 나가서 사다가 수원 와서 냉겨준 거지.

**면담자** 어디 가서 사 오신 거예요?

**최선비** 용인, 마평리, 양지, 배개미(백암), 안성 …… 멀리 나가야 은행도 있고, 그땐 그랬어. 은행도 놓고, 대추고 놓고. 그땐 다 피난 도중이니까 그런 게 귀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러, 옆 에 내가 애기를 낳아가지고, 지금 우리 큰아들이 예순 다섯인데, 그걸 낳아서 업고. 나는 이제 위에 집 할아버지가 한 오십 넘었을까, 그 아저씨하고 같이 땡기면서 사서 동네에 모아 났다가 실어오고. 그렇게 장사해가지고 소금장사하다가 쌀장사로 변한 거지. 영동시장에서 쌀장사로 늘었어요. 지금은 금은방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는 전부 쌀상회였었어요, 거기.

**면담자** 쌀은 어디서 사오셨어요?

**최선비** 쌀두 뭐 배개미, 안성, 조암, 발안, 오산 뭐 안 간 데 없어요. 방앗간마다 다 가구, 장마 다 다 가는 거지. 또 깨 사는 것은 광천장에 가고. 광천, 홍성, 뭐 안 간 데가 없어.

장사만 한 것이 아니었다. 봉담 와우리에서 젓소 농장도 하고 슈퍼마켓도 20년 넘게 했 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오래하고 애착이 갔던 것은 쌀장사였다. 영동시장은 1951년 4 월에 복구가 되고 그해 12월에 ‘미곡의 도정 및 매매 제한에 관한 건’이라는 법이 제정되 면서 미곡상회가 많이 생겼다. 그 많은 쌀장사꾼들 속에서 최선비가 오래 쌀장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나름의 철학과 처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장에 있다 보면 장사하는 사 람들끼리 싸우는 일이 없을 수 없었다. 머리채 잡고 싸우는 일도 많았다. 최선비의 말대 로 “난 뱃속이 달라” 다 제각각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최선비는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성격이 아니었다. 싸움을 해도 그 자리에서 해결을 했다. 다들 먹고 살려고 장사를 하는 것이고 밥 싸움이니 친하게 지내자는 말로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을 달랬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골에서 농작물을 가져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잘했다.

**최선비** 할머니들이 참깨 두 뒷박, 녹두 한 뒷박, 팥 한 뒷박, 찹쌀 두 되, 뭐 이런 거 농사 지 은 거, 요런 거 해가지구 팔러 나오잖아. 그러면 저 동네서 노인 넷이나 다섯이 와. 그걸 이고 걸 어오는 거야, 30리 걸음을. 그럼 내가 많이 샀지. “애미야, 이거 가져왔다.” 그러면 내가 “거기 노 쇼, 거기 뉘.” 그러면 벌려 뉘요. 내가 여기 소매 값보다 더 줘. 왜 더 주느냐? 올 때는 그걸 가지 고 걸어왔지만은 갈 때는 할머니나 아주머니나 버스 타고 가라고 더 주는 거여. (중략) 그리고 할아버지들 마차에다가 쌀 한 가마, 참깨도 싣고. 할아버지들 셋도 땀다, 다섯도 땀다 타고 나오



영동시장 양곡상회의 모습(1981년, 수원박물관 제공)

는 거야. 내가 막걸리 그냥 이만한 대접에다가, 하나가 그때는 500원인데, 그거 하나 꿀떡꿀떡 잡수면 “어~ 잘 먹었어, 조카 잘 먹었네.” 그러면 그거 다 묶어서 놔두고 가는 거야. 누가 와서 얼 찜거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소박한 대접을 받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시골에 돌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최선비한테만 물건을 갖다 주라고 당부했다. “애들 일곱을 데리고 살고, 후덕하게 하니까, 한 뒷박이라도 김씨아주머니한테만 갖다 주라.”는 당부였다. 최선비는 남편의 성을 따라 시장에서는 ‘김씨아줌마’로 통했다. 시골에서 곡식을 가지고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인심을 얻어 꾸준하게 물건을 받을 수 있었다.

최선비의 쌀장사는 소매가 아닌 도매, 정확히 말하면 위탁판매였다. 최선비가 촌에 다니면서 쌀을 사들이고, 서울에서 연락이 오면 방앗간에 쌀을 맡겨 상회에 넘겨주는 방식이었다. 중간 마진을 먹는 것이었지만 욕심 부리지 않았다. 상회 주인과 배달하는 운임, 상·하차 작업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문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문을 조금

남겨도 많이 팔면 먹고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같이 먹고살자고 하는 장사였다.

**최선비** 왜냐하면 쌀 100가마른, 나는 백 가마에 1,000원씩 하면 만 원이잖아. 그럼 1,000 원이면 너무 싸지. 내가 이가 안 남아두, 조금 남아두. 내가 1,000원 먹으면 상회 주인 먹지, 차 싣고 가는 운임 먹지, 아저씨들 내렸다 올렸다 이거 상차 먹지, 몇 사람이야, 다섯 사람이 살잖아. 그 식으루 난 1,000원만 먹으면 돼. 나머지가 뭐, 여러 사람 흔들고 먹게 놔두고 난 그냥 1,000원.

최선비는 상인들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동행자로 여겼다. 한번은 쌀 외상값을 새치기 당한 적이 있었다. 냇 놓고 앉아만 있을 때 도움을 준 것도 상회에 같이 있는 사람이었다.

**최선비** 그때 쌀 서른다섯 가마 값을 촌사람한테 외상을 가져왔는데, 내려가다가 쥐야잖아. 그런데 쓰리꾼이 얼마나 많은지 알어? 우리 영감은 다 장을 보고, 나는 그 외상값을 갖고 가다가 주구 가야 하니까. 그런데 그 동네 내려가서 내리는 동안에 이만큼 쪽 찢어서 쪽 빼갔어, 쓰리꾼이. ‘어우 큰일났다.’ 거기서 털씩 주저앉아서, 우리 영감은 생전 욕 안 해. “가서 밥이나 먹어, 벌면 되지.” 그러더라구. 어우 그래 가지구 상회 들어와서, 강패 노릇하던 사람이 상회에 몇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젊은데, “어우 나 쓰리 맞았어.” “얼마나?” 그래. “서른다섯 가마 외상 값을 라구 가지고 내려가던 거, 그거 쓰리 맞았어.” “그러?” 그래. 그 이틀날 가니까 고대로 묶어서 가져왔어. 그르게 쓰리꾼들이 배개미 장이면 배개미, 안성이면 안성, 천안이면 천안. 그렇게 배치 해 보낸대. 그러니까 쓰리 맞았다니까, 묶은 채 하나도 건드리지도 않고 고대루.

누구든 잘 사귀어 놓으면 도움을 받는 법이었다. “사람은 다른 사람 넘볼 것도 없고, 억지로 뭘 할 것도 없이, 서로 도와가며 신세지며 사는 것”이라는 최선비의 말대로 다른 사람 것을 넘보지 않고 살았더니 어려울 때는 도움도 받을 수 있었다. 장사를 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동네 노인에게 쌀이며 장이며 가져가라고 인심을 베풀기도 했다. 남에게 그렇게 퍼주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동네 사람이 콩누룽지를 갖다 주면 그거 먹고 최선비네도 살 수 있었다. 서로 의지하며 사는 생활이었다.

**최선비** 또 밥집이, 맨날 밥 먹는 집이, 아주머니가 애도 못 낳고, 내가 애 업고 땡기니까 그

안타까워서, 콩을 밑에다 짝 깔고 밥을 해 가지구, "이거 먹고 땡기면 배 안고프다." 그렇게 살았어. 남의 덕만 보구. 내가 내 덕만 보구 산 게 아니라 촌사람 의지를 많이 하구 살은 사람이야.

인계동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지동의 하꼬방에서 살았다. 냇가 옆에 천막을 치고 흙바닥에 거적을 깔아 살던 움막집이었다. 시에서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동의 천막집을 나와 인계동에 집을 사서 들어왔다. 그때도 상회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계약을 하면서 치러야 할 잔금 3만 원이 부족한데 돈을 빌릴 수도 없었던 최선비는 조심스럽게 상회의 할아버지에게 말을 꺼냈다. 할아버지는 선선히 돈을 건네주었다.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이었다. 그렇게 남의 신세를 지며 살던 기억이 생생하다. 지금도 최선비는 사람들 신세를 지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선비** 집을 사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돈이 3만 원이 모자라. 쌀 상회 사장 강씨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거 3만 원 봐줄 수 있어? 없어?"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달라는 거지. 그

최선비 가족이 살았던 지동 수원천변의 하꼬방촌  
(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랬더니 "그래, 봐 줘야지."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구. 나는 그냥 빗 안 지고 그거 지을라구. 그런 건 생생해. 왜? 남의 신세였잖아. 신세였으니까 그걸 안 잊어버려. 남의 신세를 많이 지고 살구. 지금까지두. 뭐 신세라고 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두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아우 우리 아주머니 만났네." 하면서 10만 원도 주고, 3만 원도 주고. 그럼 내가 "왜 돈을 줘. 내가 뭐 돈 없는 사람이여?" "어유 그래도 내가 그만큼 할머니한테 성의를 받아야 하니까 내가 드리는 거여. 갈비탕이라도 잡수라고." 그렇게 저렇게 사는 거여.

최선비가 말하는 "서로 신세지면서 산다."는 것은 "서로 의지하며 산다."는 말인 듯하다. 장사하고 살다 보면 얼굴 붉히는 일들도 많고 싸움 일도 많기 마련이다. 하지만 최선비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챙겼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 보였기 때문이다.

**최선비** 싸움하고 그런 건 없어. 왜? 면장 마누라가 들깨를 한 말 가져와서 한 말 값을 줬는데, 들깨가 뿌어서, 먹어 보니까 아려서 못 먹겠어. 들깨가 목으면 아리거든. 아니, "면장 마누라 자리를 내놔라, 내놔. 그거를 어따 섞으라고 갖다 놔어?"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이 있으니까, "올해 농사지은 걸로 많이 갖다 드릴게." 그래서 그냥 말어야지, 어떻게 해. 싸움하고 그러면 되겠어? 면장 마누라 그래도 체면도 있고 그런데. 그냥 말았어.

또 한 번은 발안에서 들깨를 한 말 가져와 돈을 받아 간 사람이 저녁 때 다시 찾아왔다. 시어머니가 분명 두 말을 줬는데 왜 한 말 값만 받아 왔냐며 다시 가서 확인하고 제대로 돈을 받아 오라면서 며느리를 혼냈다는 것이다. 시댁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며 찾아온 그 며느리에게 최선비는 들깨 값을 줬서 보냈다. 장사꾼이 더 벌면 되니 시댁에서 쫓겨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최선비는 그렇게 사람들을 의지해 장사하고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다.

### 3번의 장례식과 7결례의 양말

최선비에게는 일곱 식솔이 있었다. 27살에 첫애를 낳고 뒤로 자식을 더 낳아 아들 둘, 딸 하나, 3남매를 두었다. 그리고 여기에 고아가 된 남편의 형님께 조카 4명이 더 있었다. 남편의 5형제 중에서 남으로 내려온 셋째 형을 뒤늦게 김포에서 찾은 것이다. 김포로 찾

아 갔을 때 형님 부부는 3형제를 두고 다른 집의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다. 보기에 안타까웠던 최선비는 개간한 산을 사서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동서가 넷째를 낳고 6개월 후에 유명을 달리하고 아주버니도 세상을 뜨면서 4명의 조카가 고아가 되었다. 작은어머니였던 최선비는 조카들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최선비** 우리 만동서가 갔어. 막내가 나와 가지구, 2월에 낳고 9월에 갔어. 어후, 그래서 우리 막내딸이 지금 신여섯이여. 대법원집으로 시집을 갔지. 부잣집으루. 여태 지가 지 손으로 밥 안 해 먹어. 그래서 우리 그 막내딸보고, 9살이야. 내가, 큰엄마가 돌아갔으니까 큰아빠도 돌아가고. 내가 우리 딸보고 하는 소리가, “○○아, 저녁에는 국수도 삶아 먹고 수제비도 해 먹고. 아침에는 엄마가 뽕토를 많이 싸잖아, 니들 뽕토를 8개를 싸니까. 엄만 또 장에 가고. 니가 국수 삶아 먹고, 수제비 해 먹고. 다 데려다가, 니 동생, 니 오빠야. 엄마가 혼자 벌어서 할 테니까, 너 힘들어도 어떡하니, 먹고 살재니.” 그래서 그게 아홉 살부터 그렇게 했는데, 지금 부자잖아요. 서울서 시집갔으니까.

형님네는 아들 셋에 딸 하나, 최선비네는 아들 둘에 딸 하나였다. 노름 끝에 병을 얻은 남편은 44살의 나이에 간경화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때 최선비 나이 42살이었다. 그 뒤로 7남매의 양육은 오로지 최선비 몫이었다.

**최선비** 애들 일곱을, 양말을 사도 7개를 사야 허구, 바지를 사도 7개를 사야 허구, 넌닝구를 사도 7개. 다 옷을 똑같이 사서 입혀야 해. 왜냐허은 인제 샘나서 울어서. 집에 오면 애들이, 남자애들 다섯, 우리 딸들 둘. 남자 새끼들이, 인계동 이 동네 새끼들이 다 와서, 밥두 다 쳐 먹고, 우리 방 쪼그만 데 와서 포개 자고 있고 그러니까. 그땐 화딱지가 나면 몽덩이고 뭐고 없어, 그냥. “이 새끼들아, 니들 니 집에서 밥 쳐먹고, 우리 집에서 밥 쳐먹고, 다 쳐먹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뭘 먹어!” 그냥 막 패주고. 그래두 여전히 와.

애들 일곱을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 납부금을 내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지동초등학교와 인계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일상업고등학교, 매향여자상업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켰다. 졸업식에는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지금은 다 제 일을 하면서 잘살고 있다.

**최선비** 여섯 달 된 거 길른 애가, 제사 때고 명일 때고 그러면 다 모이잖아요. 그럼, 형들 생 각해 보라고. 엄마가 어디 갔으면 우리가 어디 사는 줄도 모를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가 길러 줘서 잘 사니까, 눈도 흘기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사촌지간이지만 우애가 좋았다. 지금은 최선비 밑으로 56명의 손주와 증손주가 있고 자식들이 살피주며 효도를 다한다. 딸들은 늘 남자형제들에게 엄마한테 잘하라고 당부를 한다. 하지만 최선비는 서로 의중계 지내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말한다.

## 장군할아버지 만신

최선비가 7남매를 키우는 데 힘이 된 존재가 또 하나 있었다. 장군할아버지였다. 최선비는 38살에 갑작스레 만신이 되었다. 신내림을 받은 것이다. 고생을 그렇게 했는데 귀신까지 들어왔다고 남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최선비는 그것도 ‘애들 먹여 살리라고’ 장군신이 들어온 것이라 여겼다.

**최선비** 애들 멕여 살리라고 38살에 느닷없이 만신이 됐어. 아무것도 아닌데두. 그때 애들 멕이라고 그랬는지, 잘 맞추구 아픈 사람 잘 고치고 그랬어. 그러니까 인계동 사람 나 아니면 살 질 못한다 하구.

**면담자** 어떤 사람들이 왔었어요?

**최선비** 아픈 사람들, 못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보러 다니지. 그래도 내가 인심 안 잃고 없는 사람 도와가면서 …….

만신이 된 후에도 장사는 계속 했다. 젓소 목장을 하고 마트를 하고 쌀장사를 할 때도 만신이였다. 만신이 돼서 한 일은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 주는 일이었다. 인정이 많고 동정심이 많아서인지 신이 들어왔어도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냥 보내질 못했다.

**최선비** 할아버지 들어와서 뭐 그리울 게 없었어. 내가 원래 인정이 많아서. 아픈 사람이 돈이 없잖아. “없어도 괜찮아. 너 나오면 네가 또 사람 끌어다 놓으면 돼. 돈 조금이어도 괜찮아. 너만 나야.”

돈도 필요 없고 애들만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잘 커 주기만을 바라며 하게 된 만신이였다. 장사도 하고 만신도 하면서 애들을 키웠다. 70세가 넘으면서 장사는 그만두었고, 만신은 86살이 될 때까지 했다.

## 세상을 사는 지혜

장사를 그만두고 나서 최선비는 동네 할머니들이 모이는 야채가게에 나가 담소를 나누거나 노인회관, 노인대학 등을 다니면서 지내고 있다. 경로당은 자주 나가지는 않지만 가끔 컵라면이라도 사먹도록 회장에서 돈을 건네기도 한다. 크게 부유하진 않아도 남과 나누는 것이 순리이고 이치라 여기기 때문이다. 돈만 알면 사람의 마음이 굽어진다. 마음이 굽지 않으면 내 것만 챙기지 않고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최선비의 인생철학이다.

**최선비** 내 마음이 이렇게 된 게 별로 없잖아. 돈만 알면 이런데. 사람을, 사람이 되어야 돈도 버는 거지. 사람이 베풀어야 사람이지. 베푸는 게 사람이야. 인간적으로 베풀지 못하면 사람 아니잖아. 내 것만 내 거라 그러면 누가 좋대. 같이 살아야 좋대지.

최선비는 머리가 다 빠지는 염병을 앓은 채로 철원에서 내려와 영동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인계동에 집을 장만하였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일 나가고 밤 12시에나 집에 들어오며 정신없이 살았다. 시숙 내외와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3남매와 4명의 조카까지 일곱이나 되는 아이들을 키우려고 장사도 하고 만신도 했다. 주변 사람들은 최선비가 남에게 베풀며 열심히 살았으니 대통령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베풀고 남이 베풀어 주어 가능했던 삶이라는 것이 최선비의 생각이다.

구십 평생에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날은 따로 없는 것 같다. 7명의 자식이 잘 커서 증손자까지 56명의 대가족을 이룬 것이 그저 보람될 뿐이다. 인계동의 집이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최선비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현재 큰아들 내외와 사돈과 함께 살고 있다. 그래도 매주 인계동 야채가게 나들이를 한다. 최선비는 나이가 들어도 죽지 않아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최선비가 마음을 곱게 써서 오래 산다고들 한다.



재개발사업으로 다른 동네로 이사한 후에도 최선비는 매주 인계동 야채가게 나들이를 한다.

## 집필위원

김미엽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김현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김형아 설날 대표  
윤유석 (사)역사문화컨텐츠연구원 연구원  
이승연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이진희 경기민예총 문화위원장  
정수자 시인

## 기획·편집

김현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 GOOD BYE 인계

인계동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

발행일 : 2019년 12월 15일

발행처 :  사람이 번영합니다 휴먼시티수원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전화 031-220-8058, 팩스 031-220-8060)

<http://www.suwon.re.kr>

발간등록번호 : 11-B552980-000002-01

ISBN : 979-11-90343-29-9 93350

---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